

# 어사매

(제 14 호)



## 橫城郡民憲章

우리 橫城은 우람한 泰岐山의 氣象과 悠悠히 흐르는 蟾江의 精氣를 받은 고장으로 豐饒을 謳歌하며 人情을 나누면서 子孫萬代가 살아갈 永遠한 삶의 터전이다.

이땅에 사는 우리는 先烈의 드높은 抗日 救國精神과 愛鄉心을 이어 받은 자랑스러운 郡民으로서 創意와 叡智를 한데 모아 살기좋은 새 橫城 建設의 主人으로 身命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첫 째 : 우리 郡民은 항상 反省하고 부지런히 배워 참되고  
바른 사람이 된다.

둘 째 : 우리 郡民은 서로 믿고 사랑하며 英才를 키우는 복  
된 家庭을 이룬다.

셋 째 : 우리 郡民은 어른을 尊敬하고 이웃을 아끼며 웃음  
이 넘치는 마을을 이룬다.

넷 째 : 우리 郡民은 地域特性을 살리고 科學的 研究와 實  
踐으로 豐饒로운 내고장을 만든다.

다섯째 : 우리 郡民은 正直, 秩序, 創造, 協同의 生活化로  
맑고 밝은 社會를 이룬다.

여섯째 : 우리 郡民은 崇高한 3·1精神을 이어받아 나라에  
忠誠하는 國民이 된다.



## 횡성의 상징



### 군기

21세기를 향한 횡성군민의 무한한 도약과 인간 중심의 밝고 희망찬 삶을 뜻한다.



### 군의새 / 백로

은백의 눈부신 자태는 군민의 순결함을 뜻하며 서원면 압곡리 일대에 무리지어 여름을 난다



### 군의꽃 / 함박꽃

녹색의 넓은 잎은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을 말하며 탐스럽고 화려한 꽃은 군민의 높은 기상과 밝은 미래를 뜻한다



### 군의나무 / 느티나무

군목의 느티나무는 나무의 수명이 길뿐만 아니라 우람하며 무한히 성장하는 횡성군을 뜻한다

## 형성군 노래

방 직 현 작사  
노 명 석 작곡



1. 태 기 - 산 뻔 은 즐 기 덕 고 - 의 정 기 모, 아
2. 운 암 - 정 청 란 아 래 형 성 - 교 빛 겨 있 고
3. 교 통 - 의 심 장 부 로 사 방 뻔 은 동 맥 의 길



앞 들 - 의 넓 은 옥 토 부 강 을 자 랑 하 고  
태 풍 - 루 반 송 터 는 옛 일 을 아 되 는 듯  
경 향 으 로 사 통 오 달 거 마 가 즐 비 하 고



동 서 로 - 구 비 친 강 꾸 준 히 - 흐 르 는 곳  
낙 낙 장 송 넓 은 숲 에 흥 익 정 신 가득 한 곳  
전 통 의 - 산 업 정 신 부 흥 을 - 꾀 하 는 곳



아 름 다 운 이 - 강 산 에 빛 나 는 우 리 형 성

• 발간사	-----	심진황
• 축사	-----	조태진
• 축사	-----	이인원
• 축사	-----	이연구

**I. 역사속의 횡성앞들**

횡성앞들과 구전설화	-----	김승기 · 15
------------	-------	----------

**II. 횡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선사유적 · 고분	-----	최복규 외 · 23
불교유적	-----	정연우 · 123

**III. 연구문**

봉복사 서곡대사행장	-----	채희승 · 173
------------	-------	-----------

**IV. 어사매 문화마당 (수필, 시, 현시, 기행문)**

고등어를 구우며	-----	이정애 · 179
삶	-----	박현숙 · 182
추모문무겸전삼원수	-----	송인석 · 183
유격답사기행문	-----	조근민 외 · 184

**V. 문화행사 입선작**

제15회 태풍문화제 입선작	-----	191
제13회 태기문화제 입선작	-----	200
이연승시비건립 2주년기념 입선작	-----	206

**VI. 문화원소식 및 안내**

문화원소식	-----	211
임원 및 회원 명부	-----	216

# 發 刊 辭



심 진 황  
황성문화원원장

내외군민 여러분의 文化力量을 結集하고 鄉土史料를 發掘 再照明하면서 매년 한 번씩 인사드리는 「어사매」가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어느덧 올해로 열네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새천년을 앞두고 發刊되는 금번호에서는 鄉土文化를 바로 알고 바로 세우기 위한 취지로 “江原鄉土文化研究會”가 우리고장의 소중한 文化遺産과 傳統民俗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한 “橫城郡의 歷史와 文化遺蹟”을 收錄하였습니다.

마을마다 훌륭한 鄉土史와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無關心속에 소홀히 다루어지고 훼손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이 생각하면서 조상이 물려준 文化遺産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는 契機가 되길 어사매 14호는 所望해 봅니다.

끝으로 우리고장의 唯一한 鄉土誌인 「어사매」가 앞으로도 군민여러분에게 유익하고 가치있는 향토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關心과 愛情을 부탁드리며 귀중한 玉稿를 보내주신 文學人 그리고 내외 군민여러분께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祝 辭



조 태 진  
황 성 군 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의 창조란 큰 사명을 다하고 있는 황성문화원 심진황 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계인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사매』제14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새천년을 앞두고 지난 백년을 마무리하면서 향토사와 문예, 예술등 다양한 장르에서 문화원이 앞장서 지방문화의 구심점이 되어 문화적 갈증해소에 힘써 온 점을 높이 치하드립니다.

새로운 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제와 산업과 문명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한 삭막함과 공허함은 자연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질 것이며 그러한 심리적 공황을 보상 해 줄 것은 순수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성문화원과 문화계 인사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 질 것이라 믿어 황성문화원의 정점으로 여러분들이 힘과 뜻을 모아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의 지방문화를 선도하는 향토문화의 중심이 되어 주민들의 문화수준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향토사를 이행하는 소중한 사료가 될 『어사매』14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황성문화원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祝 辭



이 인 원  
황성군의회의장

향토문화를 꽃피워온 어사매 14호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심진황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 일컬어 지고 있습니다.

문화는 민족의 혼이 담긴 유산이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매체이기도 합니다. 물질문명으로 정체성을 잃어가는 선조들의 자랑스런 얼과 혼을 찾아 계승 발전시켜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역사적인 일들이 이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소명이요 책무일 것입니다.

특히 새천년의 무한경쟁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문화의 중요성을 재 인식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세계속에 활짝 꽃피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지역의 대표적 향토문화지인 어사매야 말로 모든 군민들의 정신문화를 함양시킴은 물론 향토문화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썽록 이번엔 발간되는 어사매에 대한 온 군민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어사매 발간을 위해 애써오신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祝 辭



이 연 구  
횡성교육청교육장

이중환은 그의 저서 『택리지』에서 '횡성현은 두메속에 터가 활짝 열려서 환하게 밝고 넓으며 물이 푸르고 산이 평평하여 형용하기 어려운 별수런 맑은 기운이 있다. 또 地境안에는 여러 대를 살아 온 土大夫가 많다' 라고 횡성을 소개 했으며 정조때 발간된 『여지도서』에는 '횡성을 효도가 지극하며 노인들을 공경한다. 농사일에 힘쓰며 송사가 없는 고장' 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횡성은 옛날부터 미풍양속의 고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 횡성은 조상들의 얼과 슬기가 듬뿍배어 있는 전통문화들이 오늘날까지 원형을 잃지 않고 잘 보존되고 있는 문화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지역발전은 문화예술의 발전 여하에 따라 좌우되며, 이를 바탕으로한 창의력이 지역 발전의 지표가 되는 세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인간의 내면 세계를 풍성하게 가꾸어 주고 지역사회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소중한 가치일 것입니다.

향토문화의 과수꾼으로 그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한 횡성문화원의 심진황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어사매'가 횡성향토문화를 담은 큰 그릇으로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그동안 '어사매' 14집 발간을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사매 (제14호)

1. 歴史속의 횡성앞들

## 횡성앞들과 口傳說話



---

## 歷史 속의 횡성앞들

- 횡성앞들과 口傳說話 -

---



김 승 기



지금 세계는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난 천년을 결산하고 마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한창이다. 천년이란 세월은 참으로 길고 긴 세월이다. 시대적으로도 고려왕조(穆宗)에서 조선왕조를 지나 국란기를 거쳐 대한민국에 이르는 왕조와 나라가 성쇠를 거듭한 기간이다.

어쨌거나 밀레니엄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동 시대의 각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업적을 이룬 유명인물을 선정하고 그 공과를 평가하기에 바쁘다. 물론 그 반대의 인물들도 평가받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지난 천년, 횡성지역 발전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을 찾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역대군수 현감(縣監)중에서 말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지난 천년 이 고장을 이끌어 온 사람들의 명부나 그 업적을 기록한 사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까지 재임한 황성현감과 군수 중에서 가장 선각자였던 분으로 구일 현감(具溢 縣監)을 꼽고 싶다. 물론 이 고을 현감을 지낸 많은 분들의 송덕비가 지금도 도처에 산재해 있고 그 분들의 공적도 관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구현감의 공덕을 칭송한 『관개이민물세불망지비(灌溉利民沒世不忘之碑)』가 전하는 애민사상에 가장 존경을 보내고 싶다.

이 글을 기고하는 까닭은 지금 황성읍내 북단에서는 『읍마택지』와 국도 우회공사가 한창이고 그 남단에는 내년부터 『황성앞들구획정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황성앞들』이 자취를 감출 날도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일현감은 조선 중기인 1620년부터 1695년까지 살았던 무신으로 본관은 능성(綾城)이고 자는 중경(重卿)이다. 그는 1642년(仁祖 20년) 진사(進士)가 되고, 1656년(孝宗 7년) 금부도사(禁府都事)가 되었으며 1658년 황성현감이 되었다.

이때 황무지나 다름없던 『황성앞들』을 개척한 공로로 4품직을 제수받았고 1664년(顯宗 5년) 남평현감이 되었다. 그후 황해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경기도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동녕부사(敦寧府使)등을 지냈으며 1694년 훈련원사(訓練院使)를 제수받았지만 고령으로 국사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가 고사하고 관직을 떠났던 고결한 성품을 지닌 분으로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비록 실록(實錄)등 사료에 기술된 정사(正史)는 아니지만 황성지역에서 구전(口傳)되는 설화를 통해 구현감의 애민사상과 『황성앞들』 개간에 대한 그의 집념을 짚어 보고자 한다.

특히 여기 소개하는 두가지의 설화의 근원이 되었던 속칭 『뱀구덩이』와 『황성앞들』이 앞서 말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조만간 그 운명을 달리 할 것 같아 잊지 않기 위해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 《설화 하나 : 뱀구덩이》

황성읍 읍상4리 『향교말』 못미처 있는 마을을 지금도 『뱀구덩이』라고 부르고 있다. 『뱀구덩이』는 지금은 도심의 일부이지만 지금부터 100여년만 해도 집이 하나도 없는

들판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설화에 따르면 지금부터 3,4백년까지는 황성현 현청(縣廳)소재지가 갑천면 화전리에 있었다고하며 고을 이름도 『화성(花城)』이라고 했다.

화전에서 지금의 황성으로 천읍(遷邑)을 이때에 했다고 전하며 도읍(都邑)을 옮긴 사람이 구현감이라고 하며 당시에 지금의 황성을 소재지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갈대밭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황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서 구현감은 퇴계 이황(李滉)선생의 문인으로 알려진 월천 조목선생(月川 趙穆 : 1524~1606년) 황성 조씨로 4선생중의 한분으로 한때 공조 참판을 지냈으나 관직에 욕심이 없어 평생 학문에만 뜻을 두었던 대학자로 『月川집 등 많은 문집을 남김』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월천선생은 낙향하여 황성 조씨가 세거(世居)하던 향리인 황성읍 정암리 『망백마을』에서 시문을 즐기며 살고 있었다.

월천선생은 십여리길을 걸어 구현감에게 자주 놀러왔다. 아침먹고 집을 나서면 관아에서 하루종일 구현감과 바둑두고, 장기두고, 담화하다가 해가 질 무렵이면 관아를 나서곤 했다.

그런 때마다 구현감은 월천선생을 배웅하며 『뱀구멍이』까지 나와 배양(배웅)을 했다고 한다.

이 『뱀구멍이』는 7,80년전만해도 아름답리가 넘는 큰 엄나무가 있던 낮은 고개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안녕히 가십시오. 내일 또 놀러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며 배웅하던 고개라하여 「배웅고멍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 고장 토속어로 『고멍이』란 「산보다 얇은 언덕」을 뜻한다고 한다. 원님이 월천선생을 배양하던 『고멍이』 즉 『배웅고멍이(배웅고개)』가 수백년 세월이 흐르면서 와전되어 『뱀구멍이』로 굳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읍마택지』 개발이 「산보다 얇은 고멍이, 작두백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를 일이다.

## 《설화 들 : 횡성보(洑)의 유래》

앞서 밝힌 바와 같은 도읍을 횡성으로 천읍한 구현감은 들은 넓지만 사방이 갈대만 무성한 황무지로 해마다 가뭄을 겪어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배를 굶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던 『횡성앞들』을 개간하기로 하고 이 일로 노심초사했다.

『횡성앞들』은 이름그대로 『전평(前平)』이라고 불렀고 그 앞을 흐른 『앞내』를 『전천(前川)』이라고 했다. 그 냇물을 끌어들이어 농업용수로 쓸 수만 있다면 기름진 옥토를 얻어 백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지금도 결코 작은 들판이 아닌 『횡성앞들』을 개간하는데는 막대한 장비와 노동력, 그리고 재정을 필요로 하는 대역사였음에는 틀림없다.

아무튼 당시 변변한 측량기구도 없는지라 목측(目測)으로 해서 높는데 보를 막고 도수로를 내서 황무지에 물을 대야하는데 어디다 보를 막고 도수로를 어디로 내야하는지 알 수 없었던 현감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한겨울 눈이 오는 날 그는 꿈을 꾸었다. 늘 그 일로 연구하고 고심하던 터라 그런 꿈을 꾸었는지 모를 일이다.

어떤 큰 뱀이 꿈에 나타나서

“네가 이렇게 이 고을에 수령으로 처음 와서 천읍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보를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 네정성이 가륙하여 내가 너를 도와 주겠다”고 말하더라. 그리고는

“그러니 내가 일어나 밖에 나가 보면 눈이 왔을텐데 내가 지나간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따라서 도랑을 내고, 내가 들어간 자리가 있을테니 그곳에 보를 막아라” 하더라는 것이다.

그의 지성에 하늘도 감응한 것일까? 꿈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가 보니 과연 자욱히 눈이 내렸는데 눈발에는 귀용이 끈 것처럼 자리가 나 있더라. 그 길을 따라가 보니 지금 마산리 보가 있는 곳에 상당히 깊은 소(沼)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들어 갔더라.

그 현몽에 따라 뱀이 지나갔던 길을 그대로 보를 막고 수로를 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는 수로가 들판은 물론 시장통 할 것 없이 구불구불 나게 되었다고 하며, 비록 원형은 달라졌겠지만 그 수로는 지금까지도 『횡성앞들』의 젖줄 노릇



을 독특히 하고 있다.

오죽 그의 집념과 의지가 강렬했더라면 꿈에서라도 현몽하여 길을 열어 주었겠는가. 그 정성은 전 현민(縣民)이 힘을 모아 개간에 나서게 했고 결국은 『전평』, 즉 황성원님이 자랑하던 『황성앞들』을 탄생시켰는데, 개간당시에도 삼천마지기가 넘었다고 한다.

이제 그 앞들도 도시화에 밀려 많은 부분이 택지로 변하고 급기야 『토지구획정리』로 영원한 전설로 남을 날도 멀지 않았다.

이 대역사를 기념하여 세운 황성현감 구일의 『관개이민몰세불망지비(灌溉利民沒世不忘之碑)』는 지금 황성읍 마산리 『황성앞들』 한가운데 『신현필공덕비(申鉉弼功德碑)』와 나란히 서 있다.

이 비는 「황성앞들의 관개수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매년 한해로 시달리자 1659년(仁祖 6년) 현감과 주민이 힘을 모아 10리가 넘는 수로를 개설하여 1천가리가 넘는 논이 가뭄걱정을 덜게 한 것을 기념하고 현감의 공덕을 칭송」하고자 1678년(肅宗 4년)에 세웠다고 한다.

비의 규모는 가로 53.3cm, 세로 161cm, 두께 20.8cm, 갓석은 가로 85cm, 세로 51cm, 높이 35cm이며 처음에는 황성읍 교항리에 세웠으나 1969년 『황성앞들』 경지정리 사업으로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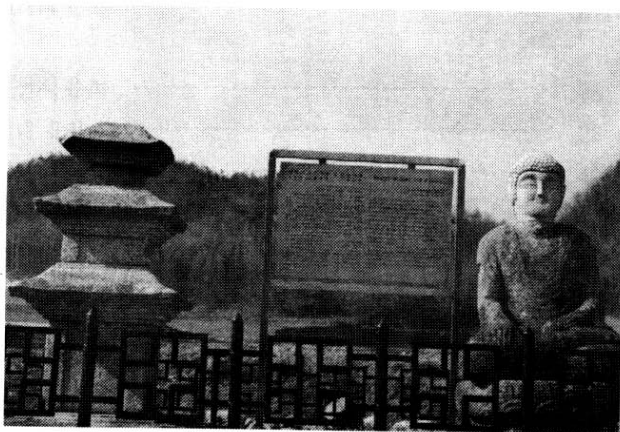
주) 위의 두가지 설화는 1984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발행한 「한국구비문학대계(韓國口碑文學大系)」 6-2권에서 발췌한 것이며, 편찬당시 한명수옹 등 지역원로들의 구전을 채록한 것으로서 구일현감의 생존연대와 월천선생의 생존연대가 일치하지 않는 등 역사적사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황성의 옛지명 중에 「화성」이란 명칭이 언급되고, 황성향교의 화전에서 이전설, 또는 화전리 지역에 「관아터」 「향교터」 등 지명이 남아있는 점을 미루어 일정기간 이곳에 도읍을 두었다가 천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하겠다.

어사매 (제14호)

II. 횡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선사유적 · 고분  
· 교류적**



---

## 횡성군의 선사유적 · 고분

---

최 복 규 (강원대 사학과 교 수)

최 승 엽 (강원대 사학과 대학원)

김 상 태 (강원대 사학과 대학원)

이 해 용 (강원대 사학과 대학원)

I . 횡성군의 선사시대 문화 -----	24
1. 구석기시대 문화 -----	24
2. 신석기시대 문화 -----	26
3. 청동기시대 문화 -----	26
4. 초기철기시대 문화 -----	27
II . 횡성군의 선사유적 -----	28
1. 구석기시대 유적 -----	28
2. 신석기시대 유적 -----	40
3. 청동기시대 유적 -----	43
4. 초기철기시대 유적 -----	59
5. 기타 유적 · 유물 -----	72
III . 횡성군의 고분유적 -----	72

# 횡성군의 선사유적 · 고분

## I. 횡성군의 선사시대 문화

### 1. 구석기시대 문화

횡성군 지역 내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의 존재를 밝혀 그 성격을 연구한다면, 이 지역에서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달리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면서 최초로 전개한 문화가 바로 구석기시대 문화이기 때문이다. 최근 횡성지역 내에서도 조사가 진행되어 구석기시대의 사람들이 생활하였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횡성군 내에서 발견된 구석기문화가 단독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이웃나라의 당시 문화와도 비교·연구하여야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구석기유적은 1933년 함경북도 종성군 동관진(潼關鎭)에서 발견된 일이 있으나 일본인들에 의해 무시당하였으나, 해방후 1963년 함경북도 웅기군 노서면 굴포리와 1964년 충남 공주군 석장리에서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현재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살았음을 입증하는 유적이 수십 곳 발견되었다. 횡성군 내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시대 유적은 둔내면 현천리유적이다. 이 유적은 1982년 4월 당시 둔내고등학교 교사였던 정연우(현재 강원도청 문화재 전문위원)선생이 발견해서 강원대학교 사학과 유적조사단(단장 : 최복규 교수)에 연락하였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되었다. 현천리유적에서 발견된 석기들은 20여점이었으며, 후기구석기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남한강의 상류에 해당하는 주천강 유역에도 2~3만년 전에 인류가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1994년 강원대학교 사학과 유적조사단<sup>1)</sup>이 행한 횡성댐 수몰지역 문화재 지표조

1) 이 선사·고분유적 분야 조사단으로 필자들 외에 연구보조원으로 홍영호(함백여중 교사)선생, 보조원으로 강원대학교 사학과 학생인 최성수·김태형·유순희·신윤주·이은희·최영석·홍성학·안미숙·유영숙·안혜원·최원석·김희진님 등이 참여하였으며, 편집·그림에는 이은희·신윤주·안혜원님 등이 많은 수고를 하였다. 이 지면을 통하여 그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사 과정에서 갑천면 부동리의 계천(桂川) 강변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유적 두곳을 발견하였다.

조사단이 찾은 부동리 서쪽의 유적을 부동리 I, 계천의 상류인 동쪽의 유적을 부동리 II 구석기유적으로 정하였다. 부동리 I 유적에서 차돌로 만들어진 주먹도끼, 찌개, 굽개, 팔매돌, 찌르개, 몸돌 등 20여점의 뗀석기를, 부동리 II 유적에서 사암으로 만든 굽개와 찌개 등 3점의 뗀석기를 찾아내었다.

또한 갑천면 화전리 계천 강변에서도 혈암으로 만든 찌개 1점과 화강암제 찌개 등 3점을 찾아내어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계천을 끼고 널리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발견된 뗀석기들의 양상으로 보아 중기구석기시대나 그 이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뗀석기를 만든 솜씨나 모습이 중기구석기시대 이전의 제작수법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갑천일대 수물예정지에서 발견된 구석기시대 유적들은 발굴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렇게 된다면 문화의 성격이나 당시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1994년 11월 선사유적조사단은 안흥면 안흥1리와 안흥3리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을 찾았다. 안흥1리·안흥3리 유적은 모두 주천강변에 자리잡고 있다. 안흥1리 유적은 현재 안흥면사무소가 있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남향반이 단구로서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살기에 알맞은 곳이다. 이 곳 일대에서 차돌로 만들어진 주먹도끼, 뚜르개, 굽개 등 10여점의 석기가 발견되었다.

안흥 3리 유적은 안흥면사무소에서 1.5km 떨어진 주천강 상류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도 이암제 찌개·굽개 등 3점의 석기가 발견되었다.

주천강 유역인 안흥리에서 발견된 2곳의 구석기유적은 수집한 석기의 만든 솜씨나 모습이 중기구석기시대로 판명된 북한강의 상무룡리유적이나 한탄강의 전곡리유적에서 발굴된 석기와 비슷한 점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로 추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유적의 정확한 연대측정은 치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진 후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계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유적이다.

이상의 현재까지 발견된 유적으로 보아 남한강의 상류인 섬강과 주천강의 물줄기를 따라 당시 사람들이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황성군내의 구석기유적

조사를 계속한다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구석기인들의 생활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신석기시대 문화

황성군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사유적 조사단의 지표조사 과정에서 신석기시대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는 유적을 찾았음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신석기시대 유적이라 증명할 수 있는 빗살무늬토기가 갑천면 중금리 계천강변에서 발견되었다. 이 빗살무늬토기는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토기의 형태로서 한강 하류인 서울 암사동, 미사리 등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것들이었다. 앞으로 계천 강변일대에서 발견된 중금리 유적을 발굴 조사하여 연구한다면 남한강을 끼고 교류하였던 신석기시대의 문화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가 중금리에서 발견됨으로 황성군지역에서도 6~4천년 전인 신석기시대 기간에 사람들이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 3. 청동기시대 문화

청동기시대에 황성군지역에 사람이 거주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적·유물은 고인돌이나 민무늬토기 등의 존재로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사유적 조사단이 처음으로 황성군 지역에서 찾아낸 고인돌·선돌·민무늬토기 분포지는 여러 곳이 된다. 고인돌은 갑천면 중금리에서 3기, 화전리에서 2기, 청일면 유동리에서 3기가 발견되었고, 선돌은 황성읍 개전리에서 2기가 발견되었다. 민무늬토기가 찾아진 곳은 갑천면 중금리·화전리, 청일면 유동리, 둔내면 조항리, 황성읍 개전리 등으로 청동기시대의 사람들이 생활하였던 지역이다. 앞으로 이들 유적에 대해 치밀한 조사를 할 경우 집자리들이 발견될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도 청동기시대의 존재를 명확히 밝혀줄 수 있는 청동유물이 1975년 9월 강림면 강림리에서 발견되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발견된 유물은 청동거울 1점, 세형동검 2점이다. 이러한 청동제 유물은 청동기시대의 존재는 물론 황성지역에 고도로 발달된 청동기 문화가 꽃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유동리 고인돌들은 탁자식으로 그 규모가 큰 편이며, 2호 고인돌의 경우 덮개 돌의 무게가 약 7톤 정도로 산출되는 점으로 보아 축조할 때 작업인원이 장정 60~7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갑천일대에 거주하였던 인구가 300~350명 정도였음을 산출해 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유동리를 중심으로 한 갑천유역 일대에서 청동기시대의 한 시기에 무리짓고 살던 사람들이 협력하여 고인돌을 만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고인돌들은 황성지역의 청동기시대 군장이나 마을 우두머리의 시신을 모신 시설물로 볼 수 있겠다.

또 중금리 3호 고인돌의 덮개돌 뒷면에 성혈(性穴)이 7개 파여져 있는데, 이러한 성혈은 당시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존경심과 사후세계에 복 많이 받고 후손들이 계속 번영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새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고인돌의 각종 양상으로 보아 황성군일대에도 청동기시대의 사회구조인 소규모 성읍국가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사회구조가 성숙되고 권력구조와 계급의식이 발생하면서 초기철기시대로 발전하였다고 생각된다.

#### 4. 초기철기시대 문화

이 시대는 청동기시대 말기부터 삼국이 성립되는 시기로서, B.C 300년경부터 A.D 300년경까지의 약 600여년간을 포함하고 있다. 황성지역은 이 시기에 삼국의 어떤 나라의 영역에도 흡수되지 않았다고 보며 독자적인 사회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둔내면 둔방내리 둔내고등학교 교내에서 1983년 발굴된 둔내(屯內)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존재는 그 사실을 입증한다 할 것이다. 둔내유적에서는 기원전후시기의 사람들에 의하여 조성되었던 집이 여러 채 불에 탄 상태로 발굴되었다. 이 유적에서 불탄 집 세채가 발굴되었는데 첫째 집자리는 약 46평, 둘째 집자리는 약 10평, 세째 집자리는 약 12평이었으며, 쇠연모들이 많이 출토되는 점은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임을 분명히 해 준다.

발굴된 쇠붙이의 제작기술은 매우 뛰어난 것으로 생각되었다. 집의 형태는 땅 밑을 50cm정도 파서 지은 반움집이며 내부는 기능에 따라 작업장·광·토기 굽는 곳·생활공간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탄화된 곡식물로 피·조·콩 등이 확인되었고, 동물

뼈·조개 따위도 같이 발견되어 농경·사냥·물고기잡이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토기 제작할때 물레를 사용하였다.

세 집자리가 모두 같은 때 불의 화재로 불탔다고 생각되는데 전쟁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있었던 까닭으로 보인다. 발굴조사된 이외의 지역에서도 유물이 많이 출토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마을의 규모가 5천평이상 되는 넓은 지역에 수십 집이 집단 생활을 하였던 것 같다. 둔내를 중심으로 한 횡성지역의 철기문화는 다른 지역과 비슷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집자리의 형태나 유물의 성격에서 독특한 면도 발견되고 있어 삼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이 지역 특유의 초기철기시대 문화를 발전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섬강 주변의 충적지대인 읍하리에서도 다량의 민무늬토기와 두드림무늬토기 조각이 채집되었다.

이 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 동안 연맹왕국단계의 소규모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살았던 주민들이 삼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삼국의 국력이 강성하여지고 영토확장을 위한 정복전쟁을 치루는 과정 중에서 그들에게 흡수되거나 융화되어 갔다고 볼 수 있겠다.

## Ⅱ. 횡성군의 선사유적

### 1. 구석기시대 유적

#### 1) 갑천면 부동리 유적<sup>2)</sup>

#####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 [지도 1-⑥, 1·2]

부동리 구석기시대 유적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흘러내려가는 계천(桂川)의 남쪽 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흘러드는 계천은 동쪽의 태기산에서 발원하여 매일리의 구리들·하동평, 포동리의 마무리·저고리골, 구방리의 당두루·음달말, 화전리의 버덩말을 지나 부동리의 옷마을에 이르는데 이곳 일대에는 현재도 20여채의 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옷마을 일대에서도 구석기를 몇점 발견하여 부동리Ⅱ 구석

2) 최복규·최승엽·이해용, 『횡성댐 수몰지역의 유적조사』, 『횡성댐 수몰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강원대학교, 1994. pp. 22-27

기 유적이라 부르게 되었다.

계천이 옷마을일대를 휘돌아 서북쪽으로 흐르다 다시 서쪽으로 곧게 흐르는 남쪽 산기슭에서 구석기 유적을 찾아 부동리 I 구석기 유적이라 하였다.

이곳은 북쪽으로 계천을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기는 하나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여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살기에 알맞은 지점이다. 강보다 10~20m 높은 하안단구지점에서 구석기 시대의 주먹도끼, 찌개, 굽개, 팔매돌, 찌르개, 몸돌 등 20여점의 뎀석기를 채집할 수 있었다. 하상은 현재 상당히 높은 편이나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생활하였던 수만년 혹은 수십만년 전에는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유물

### ● 부동리 I 지역

#### ① 팔매돌 [그림 1-①, 사진 3]

차돌, 91.7×81.4×80.5mm, 852g (93부동 1-0-1)

등근 자갈돌의 둘레에 떼기를 하여 만들었다. 표면의 여기저기에 자갈돌 자연면이 남아 있어 손에 쥐기 알맞다. 짐승사냥할때 팔매돌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② 팔매돌 [그림 1-②, 사진 4]

차돌, 100.4×88.3×86.3mm, 1,106g (94부동 1-0-12)

등근 자갈돌의 둘레를 다듬어 팔매돌을 만들었다. 표면의 일부에 자갈돌 자연면이 남아 있다. 손에 질 때 안정감을 갖을 수 있도록 날카로운 모서리를 다듬었기 때문에 모난 곳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동물사냥할 때 사용하였을 것이며 매우 큰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③ 주먹도끼 [그림 2-①, 사진 5]

개차돌, 123.0×58.1×44.9mm, 275g (94부동 1-0-14)

크고 긴 자갈돌을 이용하여 만든 주먹도끼이다. 긴 양쪽의 한 끝을 주먹도끼날로 다듬고 다른 한 끝은 손잡이로 하였다. 잡이쪽은 손에 쥐기 좋도록 날카로운 능선을 다듬었다. 등쪽의 일부에는 자갈돌 자연면이 남아 있다. 동물사냥을 할때 손에 들고 사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날길이는 84mm이다.

④ 찌개 [그림 2-②, 사진 6]

차돌, 95.2×76.2×37.0mm, 226g (93부동 1-0-2)

큰 차돌 자갈돌의 한쪽 귀통이에서 격지떼기수법으로 크고 납적한 격지를 떼내어 만들었다. 격지의 두께가 두터운 쪽을 잡이로 하고 날카로운 둘레의 한쪽을 찌개날로 다듬었다. 손바닥에 잡히는 면에서 격지의 등면이, 앞쪽에는 격지의 떼기면이 둥근 곡선을 그리면서 남아 있다. 날이 비교적 날카로운 편이며 길이는 141mm가 된다.

⑤ 찌개 [그림 3-①, 사진 7]

반암, 85.7×60.7×33.5mm, 190g (93부동 1-0-3)

큰 반암 자갈돌의 한쪽 모서리에서 격지를 떼내어 만들었다. 두께가 두터운 쪽을 손잡이로, 날카로운 쪽을 찌개날로 다듬었다. 등면에는 자갈돌 자연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반대편에는 격지 떼낸 면이 울퉁불퉁하게 있다.

날길이는 66mm이다.

⑥ 찌개 [그림 3-②, 사진 8]

차돌, 97.7×84.9×70.7mm, 722g (94부동 1-0-11)

큰 차돌 자갈돌을 깨내어 한쪽부분으로 찌개를 만들었다. 손아귀에 잡히는 부분에는 자갈돌 자연면이 남아 있어 쥐기에 편하도록 하였으며 날카롭게 깨진 모서리를 찌개날로 사용하였다. 날길이는 73mm이다.

⑦ 대패 [그림 4-①, 사진 9]

사암, 78.2×76.0×52.1mm, 450g (93부동 1-0-4)

큰 사암 자갈돌을 납적하게 깨내어 대패를 만들었다. 바닥과 윗면에는 자갈돌 자연면이 평면으로 남아 있어 대패바닥이나 우뚝손잡이로 사용하기 좋도록 하였다. 대패 날의 등면은 깨낼 때 생긴 둥근면이 남아 있고, 양옆에는 평면으로 깨진 면이 남아 있다. 날은 둥글며 길이는 68mm이다.

⑧ 굵개 [그림 4-②, 사진 10]

반암, 83.3×45.4×42.5mm, 254g (93부동 1-0-8)

반암 자갈돌을 깨내어 굵개로 만들었다. 바닥과 등면에 자갈돌 자연면이 남아 있다. 왼손에 잘 잡히는 것으로 보아 왼손잡이용으로 쓰였을 것이다. 날길이는 54mm, 경사각은 80°이다.

⑨ 굵개 [그림 4-③, 사진 11]

차돌, 78.1×44.5×32.6mm, 143g (94부동 1-0-13)

판자 모양의 차돌을 이용하여 굵개를 만들었다. 판판한 면을 굵개의 바닥으로 하고, 왼쪽의 둥근 모서리에 잔손질을 하여 날을 만들었다. 잡이쪽은 두툼하며 2,3째 손가락이 들어가 잡도록 오목파기를 해 놓았다. 날길이는 47mm, 경사각은 45°이다.

⑩ 찌르개 [그림 5-①, 사진 12]

반암, 116.3×76.7×59.7mm, 408g (93부동 1-0-9)

큰 반암돌을 깨내어 한쪽 뾰족한 곳에 찌르개 날을 만들었다. 손잡이쪽은 둥글어서 잡고 쓰기에 편하도록 하였다. 찌르는 날은 단면이 세모꼴이며 능선이 3선으로 나타나 있다. 날을 세울때 등쪽에 계단식떼기타격을 가한 흔적이 남아 있다.

⑪ 망치돌 [그림 5-②, 사진 13]

차돌, 87.7×76.5×61.9mm, 446g (93부동 1-0-5)

둥근 차돌 자갈돌을 망치돌로 사용하였다. 손잡이쪽에는 자갈돌 자연면이 남아 있고, 타격면에는 수많은 타격 흔적이 남아 있다. 손아귀에 꼭 알맞은 크기의 자갈돌을 선택하여 석기를 만드는 공구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 부동리 II 지역

① 찌개 [그림 5-③, 사진 14]

사암, 122.7×89.6×55.8mm, 477g (94부동 2-0-1)

넙적한 사암 자갈돌을 이용하여 만든 찌개이다. 형태는 주먹도끼와 비슷하나 쓰임새는 찌개로 쓰였다. 손잡이쪽에는 자갈돌 자연면을 남겨 놓아 쥐기에 편토록 하였으며, 엄지손이 들어가 잡을 수 있는 홈이 자연적으로 파여져 있다. 앞쪽으로는 자갈돌 겉면이 일부 남아 있으나, 뒷쪽에는 몇 차례의 떼기를 한 흔적이 남아 있다. 외날찌개로서 날길이는 183mm이다.

② 찌개 [그림 6-①, 사진 15]

사암, 102.0×85.4×48.3mm, 665g (94부동 2-0-5)

사암 자갈돌의 한쪽을 다듬어 만든 찌개이다. 손잡이쪽에는 자갈돌 자연면을 그대로 남기고, 반대쪽은 등면에서 안쪽을 향하여 수차례의 떼기를 하여 날을 세웠다. 짐승사냥을 할때 매우 유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손에 질때 안정감을 많이 주는 석기

였을 것이다. 날은 둥근 외날이며 길이 72mm이다.

③ 굽개 [그림 6-②, 사진 16]

사암, 73.4×57.9×32.7mm, 132g (94부동 2-0-6)

사암제 큰 자갈들의 한쪽에 격지떼기를 하여 나온 크고 넓적한 격지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자갈돌 자연면을 굽개의 바닥면으로, 격지떼기를 할때 깨진면을 등으로 사용하였다. 격지면에는 때린점, 혹, 파문, 터진면이 남아 있다. 격지의 얇은 끝에 잔손질을 베풀어 둥근툽니같은 날을 만들었다. 날의 길이는 70mm, 경사각은 30°이다.

2) 갑천면 화진리 유적<sup>3)</sup>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지도 1-④, 17·18]

화진리에는 마을을 감싸안듯 계천(桂川)이 S자로 흐르고, 주변의 야트막한 산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뒷산의 산자락 끝부분에 경지정리된 전답과 가옥이 밀집되어 위치한다.

유적의 앞쪽으로 얇은 계천(桂川)이 흘러가고, 건너편에는 구석기시대 뎨석기가 발견된 부동리 마을이 있다. 강을 낀 주변에는 경지정리된 농경지가 있으며, 하루종일 햇볕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으로 당시의 선사인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강둔덕에서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조각과 함께 구석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정교하게 만든 뎨석기가 여러점 채집되었다.

(2) 유 물

① 찌개[그림 7, 사진 19]

혈암, 104.9×92.9×83.1mm, 1132g (93화전 -0-1)

상당히 정성들여 만든 안팎날 찌개이다. 손잡이 부분과 옆면 일부에만 자연면을 남긴채, 대부분 양쪽 방향에서 떼기를 베풀어 찌개날을 마련하였다. 몸체의 중심부에 곧은 찌개날이 위치하도록 계획적으로 격지떼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때린점,

3) 최복규·최승엽·이해용, 『양재』, 1994. pp. 28-30



방사선 등 뚜렷한 때기흔적이 오목하게 남아 있다. 날길이는 약 210mm이며, 양쪽 뎨면이 만나 이루는 날 각도는 100° 내외로 고른 편이다.

② 짝개[그림 8-①, 사진 20]

화강암, 136.7×80.7×51.6mm, (94화전 -0-20)

위는 자연면, 아래는 커면으로 이루어진 판판한 자갈돌을 이용하여 만든 짝개이다. 윗면에는 3~4번의 큰떼기를 하였고, 아랫면에는 한번의 떼기를 행했다. 아랫면과 이루는 날 각도는 70°~90° 사이에 든다. 이 석기를 길이축으로 놓고 관찰할 때 옆날 짝개에 해당한다.

③ 새기개[그림 8-②, 사진 21]

차돌, 44.5×21.7×11.8mm, 14g (94화전 -0-14)

한면은 판판한 자연면으로 남겨져 있고, 다른 한면은 모두 뎨면으로 이루어진 석영 조각돌(debris)을 이용하여 만든 새기개이다. 윗쪽 끝부분을 양쪽방향에서 때려 뺀 좁한 새기개날을 만들었다. 새기개 날각도는 약 50°이다.

④ 덜된연모[그림 8-③, 사진 22]

사암, 66.2×50.7×45.9mm, 203g (94화전 -0-4)

판판한 밑면에는 자연면이 그대로 남아있고, 윗면에는 여러방향에서 4~5차례 뎨 자국이 오목하게 남아있다. 때린점과 방사선은 뚜렷하다. 뎨면과 뎨면이 만나 이루는 능선의 각도는 90°~110° 사이에 든다.

3) 둔내면 현천리 유적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지도 2-①, 사진 23·24]

현천리 유적은 주천교(酒泉橋)의 동남쪽으로 약 200m 정도 떨어진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현천리 유적이 발견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로, 1982년 4월에 당시 둔내고교에 역사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정연우(현, 강원도 문화재전문위원)에 의해 발견·신고되었고, 강원대학교 사학과 유적조사단(단장:최복규)에 의해 정식으로 확인되었던 유적이다.

석기가 발견되는 곳은 현 하상에서 약 10m의 높이에 발달해 있는 소규모의 단구

면으로 남향받이이고, 주변의 낮은 지대는 범람원 지역인데 인공제방으로 막아 논으로 이용하고 있다.

조사기간 중의 재답사에서는 석기를 거의 찾을 수 없었으며, 당시에 발견된 4점의 석기는 단구 윗면에 전봇대를 세우는 공사 중에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단구면이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나 경작층이 문화층을 파괴할 만큼 깊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훼손이 더 심해지기 전에 조사가 될 필요성이 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 (2) 유 물

### ① 주먹도끼[그림 9-①, 사진 25]

반암, 133.4×79.6×12.2mm, 222g

얇고 넓은 반암제 자갈돌의 격지를 다듬어 주먹도끼로 가공하였다. 전체적인 형태는 첨두타원형(Elongate Ovate)으로 평면형굽(plain-butt)을 갖고 있다. 앞면은 완전하게 가공되어 있으며, 등면은 한쪽만 가공하여 약 70%가 자연면으로 남아있다. 단면은 얇은 렌즈형이고, 최대폭의 위치는 3등분하여 볼 때, 아래쪽 2/3선이다.

전체적으로 12mm 가량의 두께로 고르게 다듬었으며 날의 모양은 비교적 고른 직선 날이다.

전체 둘레를 돌아가면서 2차떼기를 베풀어 날부분을 잔손질 했으며, 날은 굽(butt)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마련되어 있다. 날의 길이는 30cm 가량이며 날의 평균각은 50~60도 이다. L/W는 1.7, W/T는 6.5로 첨두형 주먹도끼나 타원형 주먹도끼의 통상 평균수치<sup>4)</sup>에 모두 벗어나 있다.

주먹도끼의 모양을 다듬어 가는 과정에서 작은 격지들이 떨어진 면의 특징을 보면, 혹(bulb)이 작고 반면에 넓고 얇은 격지들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아 무른 망치(soft-hammer)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부러진 석기[그림 9-②, 사진 26]

점판암, 76.5×45.5×22.2mm, 62g

흑색 점판암(slate)제의 석기로, 밑의 평평한 부분에는 한번의 타격에 의해 생긴

4) Clark, J. D., Kleindienst, M. R. 1974. "The Stone Age Cultural Sequence :terminology, typology and raw material." KALAMBO FALLS PREHISTORIC SITE II, pp. 71-106.

격지면의 특징이 보인다. 날의 모양도 엇갈린 날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주먹도끼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쪽면은 모두 뎀면이며, 반대면은 일부 자연면이 남아 있다. 아래면은 맞은점이 없고 혹이 나타나지 않으며, 전체가 평탄하여 부러진 면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날의 잔손질에서 큰 떼기가 먼저 베풀어지고 2차로 작은 떼기가 베풀어진 계단식(steped) 잔손질이 행해져 전형적인 주먹도끼 날가공의 수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부러진 후에 다시 날부분을 잔손질하여 '양면다듬은 굵개'로 만들고자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격지가 떼어진 면의 특징으로 보아 무른망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부러진 아래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날카로운 날로 되어 있다.

### ③ 덜된연모[그림 9-③, 사진 27]

혈암, 83.1×69.2×32.5mm, 250g

원반형의 형태로 표면에는 오랫동안 지표에서 굴러 두터운 녹이 덮여있다. 3~4개의 격지가 둘레를 돌아가며 무계획적으로 떼어졌다. 격지들이 떨어진 면에는 때린 점이 움푹 파여있으며, 격지들이 두텁고 거칠게 떨어진 특징으로 보아 단단한 망치(hard hammer)에 의한 직접떼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몸돌에 남은 맞은면의 각은 각각 60~70도 사이에 있다. 몸돌(core)로 사용되기에는 크기가 너무 작고, 떼어진 격지들도 2~3cm의 작은 것이어서 떼어낸 격지를 석기로 재가공 하기에는 너무 작은 것들이다. 여러가지로 미루어 보아 석기로 만들다가 그만 둔 덜된 연모로 볼 수 있다.

### (3) 유적의 성격

현천리 유적은 비록 지표조사단계에서 찾아진 유적이지만, 채집된 석기의 제작수법이나 잔손질수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후기구석기의 문화층이 있음이 틀림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반암이나 혈암·점판암 등을 이용하여 석기를 만들었고, 무른망치에 의한 섬세한 떼기가 베풀어진 점으로 보아 후기구석기 가운데에서도 늦은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5) 이용조, 『丹陽 수양개 舊石器遺蹟 發掘調査報告』, 『忠州권 水沒地區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충북대학교 박물관, 1985. 수양개유적의 주먹도끼는 대부분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으로 만든 수법에서도 단단한 망치에 의한 1차 떼기로 마무리하고 있어 현천리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

현천리 주먹도끼와 같은 양식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바 없어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물론 돌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비슷한 환경의 수양개유적 후기구석기 문화층에서도 이러한 형식의 발달된 주먹도끼는 없다.<sup>5)</sup> 시베리아 알단(Aldan)강 유역의 후기구석기유적인 베레류프유적에 굽을 가진 타원형의 동일한 형식의 주먹도끼가 있어 문화접촉을 추측해 볼 수 있으며,<sup>6)</sup> 석기의 원료가 되고 있는 특수한 암질의 원석 공급지를 조사한다면 보다 자세한 문화상의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남한강 중류 지역의 수양개유적에서도 역시 반암이나 유문암이 주된 돌감으로 사용되고 있고 제작수법에서도 비슷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 현천리유적이 같은 남한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현천리유적의 석기가 수법상에서는 더 앞서고 있어 앞으로 조사가 진척되면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자리잡을 것이 틀림없다.

#### 4) 안흥면 안흥리 유적

##### 가. 안흥1리 유적

######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 [지도 2-④, 사진 28]

안흥면 안흥1리 6반이다. 역시 현천리유적과 마찬가지로 주천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안흥교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m 지점의 야산 구릉지대에 유적이 있으며, 유적이 위치한 구릉지대는 남쪽을 향해 경사져 있다.

현재 안흥리의 마을은 주천강변의 넓고 평탄한 단구 윗면에 자리잡고 있으며, 집들이 없는 곳은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층적단구는 현재의 하상에서 약 10m 지점으로 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강변에 제방을 설치하고 있다.

석기가 발견되는 구릉지는 높이 20m가 조금 넘는 또 다른 단구면으로서, 주천강의 지류와 배후산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단구이다. 마을이 위치한 단구면과 평행하게 산자락을 따라 발달해 있으며, 유적에서는 넓은 안흥리의 벌판이 내려다 보

6) 加藤晋平, 『シベリア』, 『日本の舊石器文化』 4, 東京:雄山閣, pp.181-284; 최복규, 『한림학보』 30호(87.5.7), 한림대학교 신문사.

인다. 현재는 마을 주민 합진섭씨에 의해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민묘가 3기 있다.  
(지번 : 58·59·61, 田 63-1)

모두 11점의 석기가 채집되었으며 석기가 채집되고 있는 지역은 전체 단구면에서 매우 한정된 면적(약 20m × 20m)이다.

## (2) 유 물

### ① 주먹도끼 [그림 10, 사진 30]

차돌, 122.9×90.5×54.9mm, 508g (94-안흥 1-1)

차돌 격지를 가공하여 주먹도끼로 만들었다. 돌감의 형태는 모난돌이며, 주로 격지의 배면만을 가공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다듬어 나갔다. 뾰족한 끝을 가진 비전형적 심장형(sub-cordiform)으로 최대폭이 중간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배면은 전면이 가공되어 격지로 떨어질 때의 맞은 점이 없어졌다. 배면 중간부분에 있는 두차례의 뎀자국으로 보아 두터운 격지를 먼저 얇게 한 후에 둘레를 재가공한 것으로 보인다. 뒷측부분은 격지면이 남아 있으며, 7~8차례의 큰 떼기로 잔손질 없이 석기를 완성하고 있다. 등면은 뒷측부분에만 3~4차례의 작은 떼기가 베풀어졌을 뿐, 나머지 부분은 몸돌에 붙어있을 때 생긴 격지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앞부분은 세개의 능선이 만나 주먹괘이(pick) 형태의 뾰족한 끝을 이루고 있으며, 둘레의 날은 불규칙한 엇갈림날로 사용가능한 날길이는 29cm이며, 날의 평균각은 80~90도 정도이다. L/W는 1.4 W/T는 1.6이다.

격지들이 떨어진 면이 거칠고 때린점이 깊게 파여있는 등의 특징으로 보아 단단한 망치를 사용해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뚜르개 [그림 11-①, 사진 31]

차돌, 54×40.9×23.5mm, 37g (94-안흥 1-2)

차돌 자갈돌 격지의 양 측면을 가파르게 가공하여 뚜르개를 만들었다. 위에 기록된 석기젠 값은 사용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격지축을 기준으로 한다면 길이 39.5mm, 너비 42.5mm가 된다.

격지의 등면에는 크게 격지가 떨어진 흔적이 남아 있으며, 배면의 옆으로 또 다른 격지가 떨어진 면이 있는 단면 삼각형의 형태이다.

뚜르개를 완성하기 위해 자연면인 부분을 제외하고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무디게

잔손질하여(crossed abrupt)<sup>7)</sup> 격지 우측 윗부분을 날카롭게 하였다. 날의 각은 70도 가량이며, 자연면을 잔손질 없이 그대로 잡이로 이용했다.

③ 격지 [그림 11-②, 사진 32]

차돌, 51.1×47.5×13.3mm, 44g (94-안홍 1-3)

차돌 자갈들의 격지이다. 격지의 왼쪽과 윗쪽에 이미 몇차례의 때기방향이 완전히 다른 격지가 떨어진 흔적이 있다.

때린면(striking platform)은 자연면이며, 단단한 망치로 직접때기 수법에 의해 때어진 것으로 배면에는 커다란 혹과 굽(bulb scars)이 잘 나타나 있다. 등면은 자연면으로 되어 있다. 격지각은 120도이다.

④ 격지 [그림 11-③, 사진 33]

개차돌, 56.7×70×18.5mm, 39g (94-안홍 1-4)

완전히 때면으로 이루어진 격지로서 오른쪽이 긴 평면 삼각형의 격지이다. 등면에는 앞서 떨어진 격지들의 흔적이 있으며, 오른쪽 아래부분에는 때림면으로 사용했던 다듬어진 때림면(flat-striking platform)의 일부가 남아있다.

맞은점은 강한 타격으로 인해 으스러져 있으며, 혹도 남아있지 않다. 타격의 힘이 어느정도 전해지다가 급속히 흰 영향으로 격지는 뒤틀려 있는 모양이다. 격지각은 115도이다.

이 격지는 하나의 때림면을 사용하다가 격지때기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혹은 새로운 때림면을 마련하기 위해 떼어낸 격지로 생각된다. 등면에 남아 있는 흔적은 격지 때기 수법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단계임을 보여준다.

⑤ 굽개 [그림 11-④, 사진 34]

차돌, 49×60.9×16mm, 50g (94-안홍 1-7)

차돌 모난돌 격지를 이용하여 2개의 굽개날을 만들었다. 굽의 왼쪽 아래부분에 밀잔손질로 하나의 굽개날을 만들었으며, 윗부분에 등잔손질로 또하나의 굽개날을 마련했다. 등방향에 만든 날은 등잔손질이 중간깊이(7mm), 날길이는 37mm, 날각도는 62도이며 날의 형태는 약간 불규칙한 직선날이다. 배면 방향으로 만든 날은 밀잔손

7) Marie-louise Inizan, Helene Roche, Jacques Tixier, 1992, Technology of knapped Stone, Meudon:CREP, pp.67-72.

질이 얇은짚이(2~3mm), 날길이 17mm, 날각도 55도이며, 날의 형태는 역시 직선날이다. 두 굽개날이 만나는 부분에는 가파른 다듬기로 둥근날의 밑개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등방향으로 만든 굽개날은 그 수법이 거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밑개의 사용을 편하게 하기 위한 잡이부분으로 가공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 나. 안홍3리 유적

#####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 [지도 2-⑤, 사진 29]

안홍면 안홍 3리 1반 668번지이다. 안홍 1리 유적에서 주천강을 따라 하류로 1.5 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석기가 발견되는 지점은 현재 하천에서 20m 높이의 구릉 윗면이며, 구릉 단면에 굽은 강자갈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주천강의 흐름에 의해 만들어진 단구임을 알 수 있다. 단구 윗면은 현재 20~30도 남쪽을 향해 경사져 있으며, 유적의 오른쪽 30m 쯤으로 주천강이 유적을 감싸며 크게 휘돌고 있다. 유적 앞으로 넓게 펼쳐진 평원은 역시 안홍1리 지역과 마찬가지로 10m 정도의 층적단구로서 현재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유적은 현재 주민 장정관씨에 의해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며, 밭 옆으로 개간되지 않은곳은 그대로 문화층이 살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유물이 발견되는 면적은 10×20m 정도이다.

##### (2) 유물

###### ① 찌개 [그림 12-①, 사진 35]

이암, 75.6×92×38.9mm, 397g (94-안홍 3-1)

이질암(pelite) 자갈돌에 엇갈림떼기로 7~8차례의 큰떼기를 베풀고, 다시 여러번의 작은 떼기를 베풀어 찌개를 만들었다. 날부분에는 많은 타격에 의해 으스러진 자국이 남아있다. 지표에서 많이 구른 영향으로 표면에는 이끼와 녹이 많이 끼여있다.

돌감의 형태는 긴네모꼴 평면에 단면이 길평행사변형이다. 날을 가공한 면의 맞은 자리가 심하게 으스러진 것으로 보아 단단한 망치에 의한 직접떼기수법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가장자리를 따라 돌아가면서 모두 떼기가 베풀어져 있는데, 부드러운 자갈돌 표면을 그대로 잡이로 이용하지 않고 다시 다듬은 점은 특기할만 하다.

만든 수법이 거친 편이며, 날은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았으나 불규칙한 직선날을 이

루고 있고, 날길이는 55mm, 날의 평균각도는 110도이다.

② 굽개 [그림 12-②, 사진 36]

개차돌, 55.7×61.2×41.5mm, 176g (94-안흥 3-2)

등근 개차돌 자갈돌의 한쪽면을 가파르게 다듬어 굽개로 만든 몸돌석기이다. “우뚝잡이굽개”라고 할 수 있다.

날부분은 별도의 잔손질 없이 서로 교차되게 직접떼기를 베풀어 1차떼기로 석기의 날을 완성했고, 잡이부분과 바닥면은 자연면을 그대로 이용했다. 다만 날의 양측면을 가파르게 다듬어 사용의 편리를 도모했다.

날은 완만한 등근날이며, 날길이는 32mm, 날의 각도는 80도이다.

③ 격지 [그림 12-③, 사진 37]

개차돌, 50.9×40.3×23.4mm, 62g (94-안흥 3-3)

거친 수법으로 떼어진 격지이다. 때림면은 자연면을 이용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떼면으로 되어있다. 격지의 윗부분이 부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등면에는 2개의 격지가 떨어진 흔적이 남아있으며, 이 가운데 두개는 반대방향에서 떼기를 시도한 격지이다. 배면에는 맞은 자리가 으스러져 있고 흑도 부서져 나갔다. 상당히 강한 타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배면의 오른쪽에는 또하나의 격지가 떨어진 흔적이 있는데, 역시 반대방향에서 격지를 떼 자육이다.

격지의 표면에 나타난 특징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격지의 몸돌은 양쪽에 때림면을 갖고 있는 몸돌(biconical core)<sup>8)</sup>이며, 격지는 마주떼기 수법에 의해 떼어진 격지로 생각된다. 격지각은 125도이다.

## 2. 신석기시대 유적

### 1) 갑천면 중금리 유적<sup>9)</sup>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 [지도 1-⑦, 사진 38]

횡성읍에서 441번 지방도를 따라 북동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개팔고개’를

8) Clark, J. D., Kleindienst, M. R., 1974, 앞논문, pp.80-83.

9) 최복규·최승엽·이해용, 『앞책』, pp.14-16.



넘기 전에 중금상회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중금리 마을이 나타난다. 마을 어귀에는 수령이 많아보이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으며, 마을 어귀에서 계천(桂川)으로 들어가는 지역 좌우에는 150~200여미터 되는 야트막한 산들이 자리잡고 있다. 비교적 낮은 산 끝자락은 대부분이 논으로 경지정리 되어있으며, 강가쪽으로 들어갈수록 마을이 넓어진다.

유적은 중금리에서 '능머루'라 불리는 지역으로, 정일화씨 댁 앞에 길게 펼쳐진 밭 일대이다. 유적의 앞으로는 계천(桂川)이 흘러가고, 그 건너에는 거문매(319m)를 중심으로 하여 200~300m 정도의 크고 작은 능선들이 둘러쳐져 있어 아늑함을 더해준다.

강을 낀 주변에는 능선과 어울려 비옥한 넓은 농경지가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논으로 경지정리 되었지만, 이곳은 비교적 지형이 변경되지 않은채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이 지역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선사인들이 삶을 꾸리기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계천으로부터 약 4~5m 높이에 있는 강가둔덕에서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 조각, 그물추, 보습 등이 채집되었다.

## (2) 유 물

### ● 빗살무늬토기

이 곳에서는 모두 3점의 빗살무늬 토기조각이 채집되었다.

입술부분 1점, 몸체부분 2점이다.

#### ① 입술부분 [그림 13-①, 사진 39-①]

토기의 겉면은 연할 갈색을 띠고, 안쪽면은 짙은 갈색이다. 안과 밖의 토기 빗살은 깨진면에서 뚜렷이 구분된다. 토기의 안쪽면과 겉면은 끝손질을 잘하여 매끈한 편이며, 운모가 섞여 반짝거리고 있다. 바탕흙은 상당히 고운 편이어서 다른 혼입물은 잘 관찰되지 않는데, 깨진면을 살펴보면 약 2mm정도의 석영알갱이가 1-2개 눈에 띈다. 토기 겉면에는 얇게 빗금을 새겨 넣었다. 빗금은 왼쪽위에서 오른쪽아래 방향으로 그어져 있는데, 그 기울기는 약 40° 정도이다. 그은 빗금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지만 대개 18-20mm이며, 입술끝에서부터 무늬가 시작되는 부분사이의 거리는 약 4-5

mm이다. 입술은 홀입술이며, 약간 바라진 형태이다. 입술끝으로 가면서 두께가 가늘어지고 입술끝은 평평하다. 깨어지긴 했지만 입술 가까운쪽에 구멍을 뚫은 흔적이 남아 있다. 구멍은 안과 밖에서 맞닿았는데, 바깥쪽(토기겉면)에서 많이 뚫고, 안쪽면에서는 그보다 덜 뚫은 듯하다. 이는 잘린면에 나타난 구멍의 최소지름이 그릇살 두께의 바깥보다는 안쪽가까이에 위치하며, 구멍의 최대지름도 바깥면이 더 넓어져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구멍은 굽기전에 뚫은 듯하다. 두께는 입술 끝으로 가면서 가늘어져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개 3.5~9.0mm사이에 든다.

② 몸체부분 [그림 13-②, 사진 39-②]

겉면은 짙은 갈색, 안쪽은 연한 갈색을 띠며, 속심은 전체적으로 짙은 갈색이다.

토기의 안팎면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지만, 속심에서는 바탕흙에 섞인 아주 작은 석영알갱이가 고르게 박혀 있는 것이 보인다. 운모가 토기 안팎면 모두에서 나타난다.

겉면에는 길이 약 11.5~12.5mm정도의 얇은 빗금을 오른쪽 위에서 왼쪽아래 방향으로 새겨 넣었다. 빗금의 기울기는 약 30° 정도이다. 현재 남아 있는 상태로 볼 때 윗단과 아랫단 무늬사이의 거리는 약 4~5mm이다. 두께는 약 7.7mm이다.

③ 몸체부분 [그림 13-③, 사진 39-③]

겉면과 안쪽면이 모두 연한 갈색을 띠는데, 겉면에는 부분부분 짙은 갈색을 보이기도 한다. 속심을 살펴보면, 바탕흙에 비교적 많은 양의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토기 겉면의 무늬는 얇게 새긴 두 선이 서로 만나는 '물고기뼈 무늬'이다.

두께 약 9.7mm이다.

● 석제 유물

① 돌 그물추 [그림 13-④, 사진 40]

54.6 × 51.3 × 14.1mm, 54g (93중금-0-6)

비교적 평판한 형태의 반암 자갈돌 양쪽면을 깨내어 만든 그물추이다. 양쪽면에서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끝부분을 떼내어 서로 대칭이 되는 오목한 홈을 만들었다.

무게는 54g이다.

② 보습 [그림 14-①, 사진 41]

135.4 × 93.9 × 16.1 mm, 246g (94중금-0-13)

커다란 자갈돌의 제일 가장자리에 타격을 가하여 얇고 넓게 떼어진 격지를 이용하

여 만든 것이다. 굽은 때린 면이 없는 선모양이다. 격지의 평면형태는 역삼각형이며, 등면을 상당히 여러차례 다듬어 턱진 부분이 없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형태가 오늘날의 삽날과 비슷하다. 땅을 일구는데 사용한 원시 농경도구중의 하나로 보인다.

### 3. 청동기시대 유적

#### 1) 갑천면 중금리 민무늬토기 산포지<sup>10)</sup>

##### (1) 유적의 위치 [지도 1-⑦, 사진 38]

이 유적은 중금리에서 '능머루'라 불리는 지역으로, 정일화씨 댁 앞의 계천(桂川)을 따라 길게 펼쳐진 밭 일대이다. 앞서 설명한 중금리 신석기유적과 같은 지점이다. 이곳에서는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조각, 그물추, 보습 뿐만 아니라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조각 여러점이 채집되었다.

또한 밭 한켠에 남아있는 고인돌 1기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길쭉 위에서 찾은 유물들을 살펴볼 때 이 유적에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두 문화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2) 유 물

이 곳에서 찾은 민무늬토기조각은 모두 12점인데, 입술과 밑부분은 없고 전부 몸체부분이다.

##### ① 몸체부분 [그림 13-⑤, 사진 42-①]

겉면은 연한 갈색, 안쪽면은 짙은 갈색을 띤다. 토기의 안팎면과 자름면 모두에서 1~3mm 정도의 석영알갱이가 관찰된다. 겉면은 매끈하지 못하며, 턱진 금들이 보인다. 안쪽 면에는 빗질정면한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두께 7.9mm

##### ② 몸체부분 [그림 13-⑥, 사진 42-②]

겉면은 갈색, 검은색, 붉은색의 세가지 빛깔이 나며, 안쪽면은 갈색빛을 띤다. 안쪽면에는 운모가 섞여 반짝거리고 있으며, 겉면과 속심에서는 4~5mm의 비교적 굵은 석영알갱이도 보인다. 토기의 두께와 휘임새로 볼 때 밑부분으로도 생각되나 정확하지는 않다. 두께 9.0~11.0mm

10) 최복규·최승엽·이해용, 『양재』, pp.14-16.

③ 몸체부분 [그림 13-⑦, 사진 42-③]

전체적으로 연한 갈색을 띠며, 바탕흙에는 1mm 정도의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다. 토기 겉면 일부와 안쪽면 거의 대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두께 6.0mm

④ 몸체부분 [그림 13-⑧, 사진 43-①]

겉면은 검은빛을 띠고, 안쪽면은 갈색이다. 안쪽면과 속심에서는 운모와 1~2mm의 석영알갱이가 관찰된다. 안쪽면은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토기 겉면은 비교적 매끈하고 검은빛이 고르다. 두께 6.6~7.0mm

⑤ 몸체부분 [그림 13-⑨, 사진 43-②]

안팎면이 모두 갈색빛을 띠지만, 속심 일부에는 붉은빛이 돌기도 한다. 바탕흙에 운모와 1~2mm 정도의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다. 두께 7.7mm

⑥ 몸체부분 [그림 13-⑩, 사진 43-③]

겉면은 연한 갈색, 안쪽면은 검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토기 안쪽면에는 바탕흙에 섞인 석영알갱이가 상당히 많이 관찰되는데, 1mm 이하의 작은 것부터 4~5mm 정도의 큰 것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박혀 있다. 토기 겉면에는 폭이 약 8~9mm 정도되는 도구로 여러 방향에서 빗질정면한 흔적이 잘 남아 있다. 두께 9.5mm

⑦ 몸체부분 [그림 13-⑪, 사진 43-④]

토기의 빛깔이나 두께, 바탕흙 등에서 앞의 것과 동일한 계통으로 생각된다. 겉면은 연한 갈색과 검은빛이 도는 진한 갈색의 두 빛깔을 띠며, 안쪽면은 전체적으로 검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안쪽면에서는 빗질정면하는 과정에서, 박혀 있던 석영알갱이가 빠져 나간 자국이 보인다. 겉면에는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빗질정면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두께 8.0~10.0mm

⑧ 몸체부분 [그림 13-⑫, 사진 44-①]

안팎면 모두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속심에서는 1mm 이하의 비교적 가는 모래알갱이가 박혀 있는 모습이 관찰되며, 가끔 1~2mm 정도의 석영알갱이도 눈에 띈다.

두께 9.3mm

⑨ 몸체부분 [그림 13-⑬, 사진 44-②]

겉면은 짙은 갈색, 안쪽은 연한 갈색을 띤다.

안팎면 모두에서 1mm 이하의 고운 모래알갱이가 비교적 촘촘히 박혀 있는 모습이

관찰되며, 속심에서는 4mm정도의 알갱이도 보인다. 비교적 많은 양의 비짐을 섞은 듯하며, 반죽을 잘 치대어 한쪽에 몰린 곳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안팎면을 비교적 매끈하게 끝손질하였다. 두께 9.1mm

⑩ 몸체부분 [그림 13-⑩, 사진 44-③]

안팎면, 속심 모두 짙은 갈색이다. 속심과 토기 안쪽면에서는 바탕흙에 섞인 석영 알갱이들이 많이 관찰된다. 토기 겉면을 비교적 매끈하게 끝손질하였다.

두께 7.8~8.4mm

⑪ 몸체부분 [그림 13-⑪, 사진 44-④]

겉면은 세 단으로 박리된 면이 나타나는데, 그에 따라 빛깔도 검은색, 짙은갈색, 연한갈색으로 드러난다. 안쪽면은 검은 빛을 띤다.

속심과 겉면의 박리된 곳에서 석영알갱이가 간간이 관찰된다. 두께 7.0mm

⑫ 몸체부분 [그림 13-16, 사진 44-⑤]

겉면은 연한갈색, 안쪽면은 짙은갈색이다. 속심에서는 1~3mm정도의 석영알갱이가 박혀 있는 것이 보인다. 두께 7.6mm

## 2) 갑천면 중금리 고인돌 유적<sup>11)</sup>

### (1) 유적의 위치 [지도 1-⑧]

중금리에서는 모두 3기의 고인돌을 찾았다. 중금리에서 '능머루'라 불리는 곳의 정일화씨 소유 밭 한켠에 1기의 고인돌(1호 고인돌)이 있으며, 중금리 1반 105번지 이계환씨댁 축사(대 368번지)내에 2기의 고인돌(2,3호 고인돌)이 남아 있다.

1호 고인돌은 앞서 설명한 빗살무늬·민무늬토기 산포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래 주변에 1~2기의 고인돌이 더 있었다고 한다. 1967년 4월에 중금리에서 간돌검, 간돌화살촉 등이 출토되었다는 기록이 있다.<sup>12)</sup>

이번 조사에서 주민들로부터 확인하여 본 결과, 경작에 방해가 된다하여 1호 고인돌 주변에 있던 고인돌을 깨내는 과정에서 나온것이라 한다.

11) 최복규·최승엽·이해용, 『앞책』, pp.20-22.

12)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강원도편』, 1977. p.385.

(2) 고인돌의 형태

① 1호 고인돌 [그림 14-②, 사진 45]

덧개돌은 평면형태가 긴 네모꼴(長方形)이며, 장축이 북동-남서방향(N 30° E)으로 놓여 있다. 이는 유적앞으로 흐르는 계천(桂川)의 방향과 나란한 것이다.

덧개돌의 크기는 길이 212cm, 너비 87cm, 두께 33cm이다. 덧개돌은 화강암을 판자꼴로 다듬어 만들었으며, 성혈이나 채석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땅에 묻혀 있어 하부구조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② 2호 고인돌 [그림 15-①, 사진 46]

덧개돌은 평면형태가 네모꼴이며, 장축이 북서-남동방향(N 40° W)으로 놓여 있다. 덧개돌은 편마암으로서, 크기는 125×98×40cm이다. 받침돌과 같은 하부구조는 드러나지 않은채 덧개돌만이 곁에 드러나 있다.

③ 3호 고인돌 [그림 15-②, 사진 47·48]

3호 고인돌은 2호 고인돌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3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덧개돌은 평면형태가 긴 네모꼴이며, 장축이 거의 동~서방향(N 80° W)으로 놓여 있다. 덧개돌은 편마암으로서, 크기는 170×103×42cm이다. 받침돌 및 하부구조는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덧개돌만이 관찰대상이다.

덧개돌 윗면의 동쪽하단에는 크고 작은 성혈 7개가 동서~남북방향으로 직교하며 'T'자 형태로 파여져 있다. 이 구멍이 파여진 시기는 현재로서는 알수 없다. 파여진 성혈의 크기는 아래와 같다.

번호	크기(가로×세로) cm	깊이(cm)
1	4.2 × 4.2	2
2	6 × 3	3.5
3	3 × 3	1
4	4 × 3	3
5	4 × 4	4
6	2 × 2	1
7	1 × 1	0.5

### 3) 갑천면 화전리 민무늬토기 산포지<sup>13)</sup>

####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 [지도 1-④, 사진 49]

화전리에는 마을을 감싸안듯 계천(桂川)이 S자로 흐르고, 주변의 야트막한 산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뒷산의 산자락 끝부분에 경지정리된 전답과 가옥이 밀집되어 위치한다. 민무늬토기 산포지는 화전리 191번지 이재영씨댁 앞에 있는 밭으로 강 옆의 둔덕에 위치한다. 이 곳에서는 경작중에 상당히 많은 양의 민무늬토기조각이 발견된다고 한다. 앞쪽으로 얇은 계천(桂川)이 흘러가고, 건너편에는 구석기시대 댜석기가 발견된 부동리 마을이 있다. 강을 낀 주변에는 경지정리된 농경지가 있으며, 하루 종일 햇볕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으로 당시의 선사인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한 지역에서 여러점의 민무늬토기 조각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주변에 당시의 집 자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 (2) 유물

이 곳에서는 14점의 민무늬토기조각이 채집되었다. 입술과 밑부분은 없고 모두 몸체부분이다.

##### ① 몸체부분 [그림 16-①, 사진 50-①]

토기의 겉면은 갈색을 띠고, 안쪽면은 붉은 빛이 도는 갈색이다. 고운 염토의 바탕흙에 굵은 모래를 섞었다. 겉면은 매끄럽지 않다. 두께 8.1mm

##### ② 몸체부분 [그림 16-②, 사진 50-②]

전체적으로 연한 갈색을 띠며, 고운 염토에 3~4mm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안쪽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보인다. 두께 10.3mm

##### ③ 몸체부분 [그림 16-③, 사진 50-③]

전체적으로 연한 갈색을 띠며, 바탕 흙에는 2~3mm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안쪽면에는 빗질정면한 흔적이 보이고, 겉면에는 물손질하여 매끈하다.

두께 8.6mm

13) 최복규 · 최승엽 · 이해용, 『앞책』, pp.30-32.

④ 몸체부분 [그림 16-④, 사진 50-④]

겉면은 붉은빛을 띠는 갈색이며, 안쪽면은 갈색이다. 바탕흙에 4~5mm 정도의 모래가 섞여 있다. 안쪽면에는 빗질정면한 모습이 보이고, 겉면은 매끄럽지 않다.

두께 10.5mm

⑤ 몸체부분 [그림 16-⑤, 사진 51-①]

전체적으로 갈색을 띠며, 속심은 검정색이다. 바탕흙에 1~2mm 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안쪽면은 대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두께 10.9mm

⑥ 몸체부분 [그림 16-⑥, 사진 51-②]

전체적으로 붉은빛을 띠는 갈색이며, 바탕흙에 2~3mm 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토기 겉면과 안쪽면 대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두께 5.6mm

⑦ 몸체부분 [그림 16-⑦, 사진 51-③]

전체적으로 연한 갈색이며, 모래알갱이는 약간 보인다. 겉면은 떨어져 나갔다.

두께 6.9mm

⑧ 몸체부분 [그림 16-⑧, 사진 51-④]

겉면은 검정색을 띠며, 안쪽면은 짙은 갈색을 띤다. 바탕흙에는 2~3mm 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고, 안쪽면에는 물손질한 흔적이 보인다. 두께 7.3mm

⑨ 몸체부분 [그림 16-⑨, 사진 51-⑤]

겉면은 붉은빛을 띠는 갈색이며, 안쪽면은 검정색이다. 바탕흙에 1~2mm 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겉면은 매끄럽지 않다. 두께 8.0mm

⑩ 몸체부분 [그림 16-⑩, 사진 52-①]

겉면은 짙은 갈색을 띠며, 안쪽면은 짙은 갈색과 검정색이 함께 나타난다. 바탕흙에 1~2mm 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겉면은 여러 방향에서 빗질정면 하였고, 안쪽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보인다. 두께 6.5mm

⑪ 몸체부분 [그림 16-⑪, 사진 52-②]

겉면은 연한 갈색이며, 안쪽면은 갈색이다. 바탕흙에 2~3mm 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겉면은 빗질정면한 모습이 보이고, 안쪽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보인다. 두께 8.3mm



⑫ 몸체부분 [그림 16-⑫, 사진 52-③]

겉면은 갈색이고, 안쪽면에는 검정색이다. 바탕흙에 1~2mm 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겉면은 매끄럽지 않다. 두께 7.0mm

⑬ 몸체부분 [그림 16-⑬, 사진 52-④]

전체적으로 검정색을 띠며, 안쪽면은 빗질정면한 모습이 보인다. 두께 9.2mm

⑭ 몸체부분 [그림 16-⑭, 사진 52-⑤]

겉면은 연한 갈색을 띠며, 안쪽면은 검정색을 띤다. 바탕흙에 2~3mm 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안쪽면은 빗질정면 하였다. 두께 7.0mm

4) 갑천면 화전리 고인돌 유적<sup>14)</sup>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 [지도 1-③]

화전리 고인돌 유적은 갑천으로 가는 441번 지방도로변인 구방리에서 좌측으로 다리를 건너 화전리의 버덩말로 가는 길 가운데 위치한다. 초현리에서 흐르는 계천이 화전리에서 S자로 휘돌아 하류로 흘러 횡성읍과 공근면 경계에서 금계천과 합류해 섬강으로 들어간다.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계천 강가에서 약 300여미터 떨어진 곳이다. 주민들이 '바위빼미'라고 부르는 논 한가운데에 고인돌 2기가 서로 포개져 있었는데, 1984년 경지정리시 바로 옆 길가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이 지점 주위에는 넓은 들이 있어 선사인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입지조건이었을 것이다.

(2) 고인돌의 형태

① 1호 고인돌 [그림 16-⑮, 사진 53]

1호 고인돌은 화강암을 다듬어 만들었으며, 장축방향은 동~서이다. 덮개돌의 형태는 타원형이며, 성혈이나 채석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덮개돌의 크기는 길이 144cm, 너비 136cm이며, 두께는 길가의 흙에 묻혀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다.

② 2호 고인돌 [그림 16-⑯, 사진 54]

2호 고인돌은 1호 고인돌 바로 옆에 위치하는데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장축방향은 1호 고인돌과 마찬가지로 동~서이다. 덮개돌의 형태는 타원형이며, 덮개돌에

14) 최복규·최승엽·이해용, 『앞책』, pp.32-33.

서 성혈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크기는 길이 194cm, 너비 152cm이고, 두께는 확인할 수 없었다.

#### 5) 갑천면 구방리 간돌화살촉 출토 유적<sup>15)</sup>

#####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 [지도 1-②, 사진 55]

구방리에서 간돌화살촉이 나온 지점은 횡성에서 갑천으로 가는 441번 지방도 우측변에 위치한다. 태기산(1,261m)에서 발원한 갑천과 수리봉(960m)에서 발원한 유동천이 초현리에서 합류하여 이룬 계천(桂川)이 구방리 앞을 흘러간다. 물 건너편으로는 현재 넓은 들이 펼쳐져 있어 당시에 도 사람들이 살기에 매우 좋았던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 유적은 강가에서 3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1983년에 이대균씨(구방1리 498번지 화성정미소 운영) 축사를 지으면서 도로옆 도랑을 팔 때 간돌화살촉 1점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당시 이 일을 하였던 화전리의 이재영씨가 유물을 보관하고 있다.

구방리의 건너편 마을인 화전리에서 민무늬토기 조각과 고인들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와 관련된 문화층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 (2) 유물 [사진 56]

발견자(이재영씨)가 간돌화살촉을 다시 숫돌에 갈아서 약간 변형 시켰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지표 50cm 밑에서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촉머리는 부러진 상태였다고 한다. 재질은 편암이며, 촉몸은 마름모꼴이다. 크기는 7.8×1.1×0.5cm이다.

#### 6) 청일면 유동리 고인돌 유적

#####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 [지도 1-①, 사진 60]

횡성읍에서 441번 지방도를 따라 북동쪽으로 약 20km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청일

15) 최복규·최승엽·이해용, 『앞책』, pp.33-34.

면 소재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 도로 오른쪽의 주유소 뒷편으로 약 200m 떨어진 정병로써 댁(청일면 유동2리 900-8번지) 밭 가운데 고인돌 3기가 놓여 있다. 고인돌이 놓인 위치에서 남쪽으로 500여미터 떨어진 곳에는 유동천(柳洞川)이 동서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주변에는 상당히 넓은 들이 펼쳐져 있어 선사인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생각된다.

본래 주위에는 2기의 고인돌이 더 있었으나 논 속에 매몰시켰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다. 1호 고인돌은 본래 위치에서 약간 이동되었고, 2·3호 고인돌은 제 위치이다. 옮겨진 1호 고인돌을 제 위치에 놓고 볼때 3기의 고인돌은 거의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며, 이는 유동천의 흐름과 나란한 것이다. 고인돌의 규모로 보아 축조한 당시의 사회규모가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인돌 부근의 밭에서 민무늬토기조각 1점을 수습하였다. 주변에서 민무늬토기가 나오는 점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의 집자리도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 (2) 고인돌의 형태

### ① 1호 고인돌 [사진 57]

1호 고인돌은 화강암을 다듬어 만들었다. 덮개돌은 평면형태가 사각형이며, 장축 방향은 남~북이다. 집을 개축할 때 원래 위치에서 현재 위치로 약5~6m 정도 이동시켜 놓아 본래 모습이 변형되었다. 받침돌(支石)로 보이는 판석 4매가 덮개돌 부근에 놓여 있어 탁자식 고인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203×169×44cm이다.

### ② 2호 고인돌 [사진 58]

1호 고인돌에서 동쪽으로 약 18.78m 정도 떨어져 있다. 2호 고인돌의 암질은 화강암이며, 장축방향은 동~서이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크기는 290×215×54cm이다. 덮개돌 윗면에는 구멍 3개가 나란히 파여 있고, 구멍과 구멍사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덮개돌 밑부분은 지면과는 조금 떨어져 있으며, 받침돌은 보이지 않는다.

### ③ 3호 고인돌 [사진 59]

3호 고인돌은 2호 고인돌에서 동북쪽으로 약 7.26m 떨어져 있고, 덮개돌의 장축 방향은 동~서이다. 덮개돌의 모양은 사각형으로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크기는 204×235×55cm이다. 성혈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3) 고인돌 주변 채집 민무늬토기조각 [그림 17-①, 사진 63-①]

3호 고인돌로부터 약 30여미터 떨어진 밭에서 민무늬토기 몸체부조각 1점을 채집하였다. 겉면은 갈색이고, 안쪽면은 검정빛을 띠는 진한 갈색이다. 겉면에는 터진 금이 보이고, 또한 빗질정면한 흔적이 보인다. 속심에는 2~3mm 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두께 9.6mm.

7) 둔내면 조항리 유적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 [지도 2-②, 사진 61]

조항리 유적은 둔내면에서 남쪽을 향하여 흘러 내리는 주천강변에 위치한다. 유적 앞으로는 주천강이 마을을 감싸안듯 휘돌아 흐르고 있으며, 주변에는 200~300m의 낮은 능선들이 사방에 둘러쳐져 있어 아늑한 편이다. 이 소쿠리 모양의 마을 안쪽은 현재 논과 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 선사시대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인접한 지역에 둔내 초기철기시대유적·현천리 구석기시대유적·영랑리 통일신라고분·안흥리 구석기시대유적이 주천강변을 따라 위치하고 있어 선사시대부터 이곳 일대에 사람이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둔내고등학교 변창수 선생이 보관하고 있는 간돌도끼 1점을 확인한 조사단은 이 유물이 출토된 조항리 일대를 답사하였다. 본래 이것은 둔내고등학교 학생인 안병락군(둔내면 조항리 814번지 거주)이 주워온 것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였다. 조항리에서 간돌도끼가 나온 지점은 '바일' 마을이라 불리는 주천강변에서 약 20m 떨어진 곳이다. 조사단은 이 부근의 논·밭 일대를 지표조사하여 돌도끼와 연관되어 보이는 청동기시대 민무늬토기조각 3점을 찾았다. 모두 몸체부분이다.

(2) 유물

① 간돌도끼 [그림 17-⑤, 사진 62]

길다란 화강암 자갈돌의 양면을 갈아 날카롭게 날을 만든 '간 양날 돌도끼'이다. 전체적으로 곱게 갈았지만, 일부에는 모양을 다듬기 위해 쪼은 흔적도 보인다. 길이는 18.6cm, 너비 6.4cm, 두께 3.6cm이다.

## ● 민무늬토기조각

### ① 몸체부분 [그림 17-②, 사진 63-②]

전체적으로 검정색과 회색빛을 띠고 있고, 속심은 연한 갈색이다. 고운 염토에 1mm 이하의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다. 빗질정면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두께 7.7mm

### ② 몸체부분 [그림 17-③, 사진 63-③]

안팎면이 모두 갈색이다. 안쪽면에는 터진 금이 보이고, 2mm 정도의 석영알갱이가 박혀 있다. 겉면은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두께 8.6mm

### ③ 몸체부분 [그림 17-④, 사진 63-④]

안팎면 모두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안팎면 모두 떨어져 나갔으며, 떨어져 나간 부분에서 1~2mm 정도의 석영알갱이가 관찰된다. 두께 6.4mm

## 8) 강림면 강림리 유적

###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 [지도 2-⑥, 사진 64]

1975년 9월에 강림1리에서 청동검 2점과 청동거울 1점이 출토되었으나 별다른 기록이 없어 출토 당시의 사정을 알 수 없다.<sup>16)</sup> 현지 주민의 이야기로는 강림 우체국이 위치한 곳에서 출토되었다고 한다. 출토된 청동거울은 문양의 시문 상태가 매우 우수하다.

출토지인 강림면 강림리는 둔내면에서 정선으로 이어지는 남한강의 지류인 주천강이 통과하는 곳으로서 약간의 낮은 지대가 강안을 따라 이어지고 있다.

### (2) 유 물

#### ① 청동잔무늬거울 [그림 17-⑥]

중앙구·내구·외구를 갖춘 소위 삼구식(三區式)의 잔무늬 거울이다.

거울면은 평면을 이루고 있으나 뒷면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중앙구가 외구보다 약간 얇으며, 거울 둘레끝의 단면이 반원형이다. 문양은 평행선과 삼각형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1cm의 구역안에 가는 선을 시문한 정교한 것이지만 전체의 구도가 정제되지 않아 문양구획이 일정하지 않다.

16) 이강승, 「횡성강림리출토 일괄유물」, 『고고학』, pp.107-108.

외구(外區)에는 1줄의 겹톱니날무늬가 경연(鏡緣)을 따라 돌려쳤고, 79줄의 겹톱니날무늬가 주연(周緣)을 따라 시문되었는데 그 크기들이 일정치 않아 좁고 넓은 차이가 있다. 내구(內區)는 10개의 동심원과 19개의 방사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구(中央區)에는 두개의 꼭지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 중앙구 바깥쪽과 내구 안쪽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다. 꼭지를 위쪽으로 놓고 보면 세로7·가로3줄의 선이 직교하여 중앙구를 가로지른다.

거울의 직경은 16.2cm, 두께 0.7cm, 중앙구 직경 3.2cm, 외구 두께 0.3cm, 중앙구 두께 0.2cm이다.

② 세형동검 [그림 17-⑦]

표면 전체가 검은 녹이 덮여져 있어 보존상태가 좋으며, 날부분이 약간 파손되었으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길이는 31.6cm, 최대폭은 3.7cm 이다.

③ 세형동검 [그림 17-⑧]

전자와 같이 검은 녹이 덮혀 있고 약간의 날부분이 파손된 것 이외에는 상태가 좋다. 전자에 비해 가늘고, 날부분이 직선에 가깝다. 길이는 29.8cm, 최대폭은 3.0cm이다.

9) 황성읍 개전리 선돌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 [지도 1-⑨, 사진 65]

황성읍에서 441번 지방도를 따라 북동쪽으로 약 3.5km 정도 올라가면 선돌이 위치한 개전리 마을이 나타난다. 도로변에서 마을 안쪽으로 약 500~600m 정도 들어가면 동서로 약 500m의 간격을 두고 선돌 2기가 나란히 마주 보고 있다. 개전리 '서쪽 선돌'은 이학연씨 소유의 밭(田 300번지 일대)둑에 위치한다. 이학연씨에 의하면, 본래 밭 중간에 있던 것을 경작에 방해가 되어 현재 위치로 약 10여미터 옮겨 놓은 것이라 한다. '동쪽 선돌'은 개전리 131번지 박무자씨 맥 정원에 세워져 있다. 선돌이 놓인 지점 앞으로는 전천(前川)이 동서 방향으로 마을을 가로지르며 흘러 섬강으로 유입되고, 주변에는 상당히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이 2기의 선돌을 마을 주민들은 '마귀할멈 빨래줄

17) 도술에 능한 마귀할멈이 두 바위 양쪽에 빨래줄을 매고, 밤마다 빨래를 해서 넣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 황성군, 『황성군지』, 1986. p.176.

18) Heine-Geldern, 이광규역, 『메가릿트問題』, 『文化財』4. 1969. pp.142-142.

바위'라고 부른다.<sup>17)</sup> 이런 선돌은 신석기·청동기·철기시대에 걸쳐서 만들어지 것으로 유럽 대륙에서도 많이 세워지며, 그 분포지역은 스페인·프랑스·북부독일·영국·덴마크·스칸디나비아 등 대서양 연안이며, 북프랑스의 브르타뉴(Bretagne)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sup>18)</sup>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를 위시한 인도와 중국에 분포한다.

선돌을 세우는 이유는 태양숭배에 따른 신앙의 표시이거나, 지역을 나누는 경계의 표시, 어떤 사건의 기념물로 세웠다는 학설이 있으나 종교적인 의미가 많은 큰돌문화(巨石文化)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 (2) 선돌의 형태

### ① 서쪽 선돌 [사진 66]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전체적인 모양은 긴네모꼴이다. 중간부분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모습을 하고 있으며, 윗부분은 약간 경사졌지만 편평한 편이다. 모서리 부분에는 모양을 다듬거나 채석할 때 생긴 것으로 여겨지는 떼낸 자국이 여러군데 남아있다. 현재 길이로 드러난 크기는 약 214×45×27cm이다.

### ② 동쪽 선돌 [사진 67]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전체적인 모양은 앞의 것과 거의 비슷한 편이지만, 중간부분부터 위로 갈 수록 폭이 점점 좁아지고 끝이 뾰족한 것이 다르다. 선돌 아래부분에는 버팀돌을 쌓아 쓰러지지 않게 축조하였다. 모서리 부분에는 역시 떼어낸 자국들이 많이 나타난다. 현재 길이로 드러난 크기는 약 268.5×37×29cm이다. 땅속으로 얼마나 깊이 묻혔는지는 알 수가 없다.

## (3) 선돌유적의 성격

선돌이 놓인 위치가 논밭으로 이루어진 넓은 평지의 한 가운데이고, 선돌의 모서리에 모양을 다듬거나 채석할때 생긴 뎀자국이 남아있는 점으로 볼때, 이것은 단순한 자연석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부여되어 인위적으로 세워진 것임이 분명하다.

'마귀할멈 빨랫줄 바위'라고 불리는 개전리 선돌 2기는 형태·암질·크기·놓인 위치가 서로 비슷한 점으로 보아 동시기에 축조되어 짝을 이룬것으로 여겨진다. 선돌의 형태상 특징으로 남녀를 구분하여 볼때 동쪽선돌은 남성, 서쪽선돌은 여성으로 가늠된다. 남성 선돌은 보통 끝이 뾰족하거나 삿갓모양을 하여 남근(男根)을 상징하고, 반면에 여성 선돌은 윗부분이 둥글거나 네모난 모양이며 배부분을 불룩하게 하여 임

신한 여성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한다.<sup>19)</sup> 이러한 형태상의 특징은 개전리 선돌에도 잘 들어 맞는다. 개전리 선돌은 둔중해 보이지 않고 늘씬한 모습이다.

개전리 선돌과 관련하여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선돌을 축조하는데 사용한 돌감의 채석장으로 추정되는 곳이 '동쪽 선돌' 옆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쪽 선돌 옆에는 선돌과 같은 암질의 바위벽이 겹으로 드러나 있으며, 선돌의 크기만큼씩 커로 떼어낸 흔적도 일부 보인다. [사진 68] 채석장의 가능성이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암질의 박편분석·비중 측정·채석흔의 관찰 등을 통해 두 암질이 서로 동일한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 여기서의 일단 그 가능성만을 제시할 뿐이다. 개전리 선돌이 축조된 시기를 밝히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선돌문화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전승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전리 선돌을 청동기시대 유적에 포함시킨 이유는 선돌이 자리한 곳이 넓게 펼쳐진 농경지의 한 가운데이고, 그 앞으로는 수심이 별로 깊지 않은 전천(前川)이 흐르는데, 이는 선사시대 특히 청동기시대의 취락형성 조건과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쪽 선돌이 놓인 지점의 주변 밭에는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편이 채집된다. 물론 선돌의 축조시기와 민무늬토기 산포지는 서로 관련성을 갖지 않는 별개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선돌은 보통 고인돌과 같은 시기의 문화적 배경하에서 축조된 것이며, 선돌·고인돌과 같은 우리나라의 큰돌문화(巨石文化)는 청동기시대의 주된 문화라는 학계의 통설을 감안할때 개전리의 선돌도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개전리 선돌은 마을 주민들로부터 주목받는 존재이긴 하지만, 동제(洞齊)·치성·돌탑제와 같은 민속신앙의 대상물로는 삼지 않는 듯하다.

개전리의 선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강원도내의 선돌유적으로는 양구군 남면 용하리<sup>20)</sup>,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sup>21)</sup>, 평창군 평창읍 임하리<sup>22)</sup>, 동해시 부곡동유적<sup>23)</sup> 등이 있다.

이밖에도 입석(立石), 선바위·선바우·입암(立岩)과 같은 지명을 지닌 곳에는 선

19) 한규량, 「한국선돌의 기능변천에 대한 연구」, 『백산학보』 28, 백산학회, p. 288

2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강원도의 선사문화』, 1986, p.47.

21) 철원군, 『郷土誌』, 1977, pp.355~356 ; 현재는 파괴되어 없어졌다.

22) 최복규·김경진·정연우·김용백, 『평창군의 역사와 유적』, 강원대학교 박물관, p. 31

23)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앞책』, 1986, p. 117



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의 체계적인 조사가 기대된다.

#### 10) 황성읍 개전리 민무늬토기 산포지

#####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 [지도1-⑨, 사진 65]

개전리 서쪽 선돌이 있는 이학연씨(개전리 122번지 거주) 소유의 밭 일대에서 민무늬토기조각 25점을 찾았다. 현재 두층나무가 심어져 있는 극히 한정된 면적만이 밭으로 이용되고 주변은 모두 논으로 경지정리 되어있다. 이학연씨에 의하면, 20여년 전에 밭을 논으로 이용하기 위해 땅을 고르는 과정에서 간돌도끼·간돌검·숫돌·토기 항아리 등이 흩어져 나왔다고 한다. 이 일대에 청동기시대의 집자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점 앞으로는 전천(前川)이 동서 방향으로 흐르고, 주위에는 상당히 넓은 들이 펼쳐져 있어 선사인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 (2) 유 물

개전리에서 찾은 민무늬토기조각은 25점으로 입술부분 2점, 몸체부분 22점, 밑부분 1점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민무늬토기조각은 대표적인 것 15점이다.

##### ① 입술부분 [그림 18-①, 사진 69-①]

전체적으로 연한 갈색을 띤다. 바탕흙은 고운 염토이고, 속심에서는 크기 3~4mm의 석영알갱이가 보인다. 안쪽면은 떨어져 나갔으며, 겉면에서는 입술과 몸체가 접하는 부분을 손으로 눌러 움푹 들어간 모습이 보인다. 입술모양은 밖으로 휘어진 형태이며, 끝은 편평하다. 두께 10.4mm

##### ② 입술부분 [그림 18-②, 사진 69-②]

겉면은 붉은색을 띤 갈색이며, 안쪽면은 갈색이다. 바탕흙에 1~2mm의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다. 안쪽면은 비교적 깨끗하게 끝손질하였다. 두께 6.9mm

##### ③ 밑부분 [그림 18-③, 사진 69-③]

겉면은 갈색을 띠며, 안쪽면은 검정색이지만 갈색을 띤 부분도 있다. 속심의 8mm까지 검정색을 띤다. 고운 바탕흙에 1~2mm 정도의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다. 바닥은 편평하며, 바닥두께는 15.2mm이고, 몸체 이음새 부분의 두께는 19.1mm로 약간 두툼한 편이다.

④ 몸체부분 [그림 18-④, 사진 69-④]

겉면은 갈색을 띠고, 안쪽면은 회색빛이 도는 갈색이다. 두면 모두 매끄럽지 못하며, 겉면과 안쪽면에서 터진 금들이 관찰된다. 바탕흙에 3~4mm 정도의 굵은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다. 겉면에는 덧입힘(slip)처리를 하였고, 안쪽면에는 빗질정면한 모습이 보인다. 두께 11.9mm

⑤ 몸체부분 [그림 18-⑤, 사진 69-⑤]

겉면은 짙은 갈색이고, 안쪽면은 검정색이다. 속심은 검정색이고, 고운 점토의 바탕흙에 2~3mm의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다. 안쪽면에는 빗질정면한 흔적이 남아 있다. 두께 8.8mm

⑥ 몸체부분 [그림 18-⑥, 사진 69-⑥]

겉면·안쪽면 모두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며, 속심과 겉면에는 비교적 가는 석영알갱이와 운모가 섞여 있다. 안팎면 모두 빗질정면한 흔적이 뚜렷이 관찰된다. 안쪽면에는 터진 금들이 보인다. 두께 10.4mm

⑦ 몸체부분 [그림 18-⑦, 사진 69-⑦]

겉면은 연할갈색이고, 안쪽면은 붉은빛이 보이는 갈색이다. 전체적으로 1~2mm 정도의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다.

겉면은 매끄럽지 않으며, 빗질정면한 모습이 보인다. 안쪽면에서는 석영알갱이가 빠져 나간 자국이 보인다. 두께 10.0mm

⑧ 몸체부분 [그림 18-⑧, 사진 70-①]

겉면은 검은빛이 도는 갈색이며, 안쪽면은 연할 갈색이다. 양면 모두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갔으며,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다. 두께 8.9mm

⑨ 몸체부분 [그림 18-⑨, 사진 70-②]

전체적으로 연할 갈색이고, 속심의 일부는 검정색, 일부는 갈색빛을 띤다. 안쪽면에는 비교적 굵은 석영알갱이가 박혀 있으며, 일부는 떨어져 나갔다. 겉면에는 빗질정면한 모습이 관찰된다. 두께 6.8mm

⑩ 몸체부분 [그림 18-⑩, 사진 70-③]

겉면은 갈색이고, 안쪽면은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고운 점토에 4~6mm 정도의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다. 겉면에는 빗질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두께 10.6mm

⑪ 몸체부분 [그림 18-⑪, 사진 70-④]

겉면은 짙은 갈색이고, 안쪽면은 검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겉면은 가로방향으로 빗질정면한 흔적이 있으며, 가는 모래가 섞여 있다. 안쪽면에는 빗질정면한 흔적인 16개의 굵은 줄이 그어져 있다. 두께 7.6mm

⑫ 몸체부분 [그림 18-⑫, 사진 70-⑤]

전체적으로 갈색빛이 나며, 운모가 섞여 반짝거린다. 속심에 큰 석영알갱이가 박혀 있는것이 관찰된다. 겉면에는 빗질정면한 흔적이 있다. 두께 10.9mm

⑬ 몸체부분 [그림 18-⑬, 사진 70-⑥]

겉면은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며, 안쪽면은 검정색이다. 매끄러운 겉면에 빗질정면한 흔적이 보이며, 안쪽면은 매우 거칠다. 속심과 안쪽면에서 1~2mm정도의 석영알갱이를 관찰할 수 있다. 두께 10.5mm

⑭ 몸체부분 [그림 18-⑭, 사진 70-⑦]

전체적으로 흰색빛이 도는 황색이며, 속심은 검정색이다. 겉면에는 터진 금이 보이고, 빗질정면한 모습이 보인다. 안쪽면에도 빗질정면한 흔적이 있다. 두께 7.7mm

⑮ 몸체부분 [그림 18-⑮, 사진 70-⑧]

위의 토기조각과 같은 흰색빛이 도는 황색이다. 겉면에는 빗질정면한 흔적이 나타나고, 안쪽면의 떨어져 나간 부분에서는 모래알 흔적이 보인다. 두께 5.9mm

#### 4. 초기철기시대 유적

##### 1) 갑천면 부동리 유적<sup>24)</sup>

######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 [지도 1-⑤, 사진 71]

부동리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부동리의 옷마을 일대에서 발견되었다. 앞의 부동리Ⅱ 구석기시대 유적과 이웃하고 있는 계천가의 충적토 지표에서 발견되었다.

현재 초기철기시대의 두드림무늬토기 입술부 1점과 토기 밑바닥조각 1점이 발견되었다.

24) 최복규·최승엽·이해용, 『앞책』, pp. 27-28.

## (2) 유 물

### ① 두드림무늬토기 입술부조각 [그림 19-①, 사진 72-①]

초기철기시대에 널리 만들어 사용되던 두드림무늬토기의 입술부조각이다. 빛깔은 짙은 회색이며, 겉면에는 두드려 만든 무늬가 남아 있다. 입술은 곧은 입술이나 안쪽으로 턱이 만들어져 있는 점으로 보아 뚜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바탕흙에는 진흙과 함께 석영장석을 섞었음을 알 수 있는 석영알 입자가 나타나 있다. 토기 두께는 5mm로 매우 얇은 편이다.

### ② 토기바닥조각 [그림 19-②, 사진 72-②]

회색빛의 초기철기시대 토기바닥이다. 상당히 단단한 점으로 보아 큰 항아리 바닥으로 생각된다. 바탕흙에는 진흙과 함께 운모를 섞었음을 알 수 있는 입자들이 들어 있다. 몸통부의 두께는 8mm, 바닥의 이음새 두께는 12mm이다.

## 2) 둔내면 둔방내리 유적

### (1) 유적의 위치 및 발굴 [지도 1-⑩]

둔내유적이 자리한 곳은 행정구역상으로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이며, 위도상으로는 북위 37도 30분, 동경 128도 12분에 해당된다. 영동고속도로의 둔내 톨게이트에서 북쪽으로 약 2km 정도 들어가거나, 횡성읍에서 6번국도를 따라가면 유적이 자리한 둔내고등학교에 이르게 된다. 유적주변에는 태기산, 봉복산, 어답산 등 험준한 산과 그 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유적의 앞으로는 태기산(해발 1261.4m)에서 발원한 주천강이 남쪽으로 흐른다.

유적의 입지와 관련하여 볼 때, 둔내유적은 해발 500m 이상되는 고산지대의 하천을 끼고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남한강의 제1지류인 주천강 상류지역의 하천변 충적지를 중심으로 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곳에는 보통 유적의 규모가 큰 마을이 형성되며 벼농사와 물고기잡이가 중요한 생계수단이 된다.<sup>25)</sup> 둔내유적의 경우 탄화된 곡식, 범씨자국 찍힌 토기편, 담수산 조개껍질 등이 그 예이다.

25) 박종철, 「先史, 古代 稻資料 出土遺蹟의 土地條件과 稻作·生業」, 『古文化』, 42·43합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3, pp. 32-35.

1983년 당시 둔내고등학교 역사교사였던 정연우 선생(현재 강원도 문화재전문위원)으로부터 교사(校舍) 신축공사 중에 유적이 드러났다는 연락을 받은 강원대학교의 원영환·최복규 교수가 현장을 조사하였고, 유적의 중요성을 인식한 강원대학교 박물관에서 긴급 수습발굴을 실시하였다.<sup>26)</sup> 유적의 극히 일부인 제한된 면적내에서 집자리 3기가 조사되었다.

## (2) 발굴된 집자리와 유물 [사진 73~77]

### ① 1호 집자리 [그림 19-③, 20]

동서 14m, 남북 11m(154㎡, 약 46평) 규모의 직사각형 집자리로서, 장축은 거의 동서방향이다. 움 깊이는 약 30~50cm 정도이며 바닥은 진흙을 다져 고르게 하였다. 기둥구멍은 서벽과 북벽이 맞닿는 모서리, 그리고 남벽과 서벽이 맞닿는 지점에서 발견되었는데 모두 집자리 내부에 위치한다. 지름 30cm, 깊이 40cm 정도의 큰 기둥구멍 주위에는 지름 10cm정도 크기의 보조기둥구멍 흔적이 남아있다. 불뎀자리는 집자리 바닥 중앙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서 발견되었다. 2/3이상이 파괴되어 정확히 어떤 시설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량의 숯과 불탄 돌들이 나오는 점으로 보아 돌을 고르게 편 형태로 추정된다. 집자리 서벽 중앙에는 직경 2m 정도의 광시설이 있고, 이 곳에서 진흙으로 고정된 7점의 민무늬토기와 1점의 두드림무늬토기가 출토되었다. 이중 2점의 민무늬토기에는 납작한 판자들이 덮여 있었다. [그림 20-①·②]

또한 동북쪽 모서리에 가까운 지점에서는 폭 60cm, 깊이 50cm 정도의 진흙저장용 구덩이가 발견되어, 그 주변공간은 토기를 빚는 장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남쪽지역에서는 각종 공구류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작업장으로 활용된 공간임을 짐작케한다. 벽선에서 20~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름 5cm, 깊이 4cm 크기의 낙수자리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지붕이 지면과 맞닿아 있지 않았으며 추녀끝이 벽선에서 20~30cm 정도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출입구는 남쪽 중앙부분으로 나 있으며, 집자리 바닥에서 차차 높아져 당시 생활면과 거의 맞닿도록 되어있다.

집자리 바닥 전체에 숯이 깔려있고, 불탄유물이 많아 폐기된 원인이 화재였음을 짐

26) 원영환·최복규, 『둔내』, 강원대학교 박물관, 1984.

작케한다.

1호 집자리에서는 경질의 민무늬토기와 두드림무늬토기 뿐 아니라 단조된 쇠칼 3점, 쇠화살촉 1점 등의 철기류, 주홍색·갈색·청색의 옥구슬 13점, 간돌화살촉 2점, 간돌검조각 1점, 숫돌, 가락바퀴, 갈돌 등도 출토되었다.

② 2호 집자리 [그림 21-①·②·③]

집자리의 규모는 동서 7m, 남북 5m(35㎡, 약 10.5평) 정도이며, 기초공사로 파괴되어 완전한 형태는 알 수 없다. 집자리 서북쪽에서 두께 1.5cm 정도의 탄화된 나무 판자벽이 발견되었고, 굵기가 20cm 이상 되는 숫기둥이 여러개 출토되었다. 불뎀 자리는 집자리 중앙에서 약간 안쪽으로 치우친 지점에 마련되었다.

고운 점토를 다진 후 그 위에 납작한 자갈돌 43개를 타원형으로 가지런히 깔아 중앙을 오목하게 만들었으며, 서북쪽 외곽에 45×15×30cm 정도의 바람막이돌을 세워 놓았다.

2호 집자리에서는 민무늬·두드림무늬토기 항아리, 토기뚜껑, 시루모양의 소형토기, 철판, 솔방울, 조개껍질, 조나 피로 추정되는 탄화곡물이 출토되었다.

③ 3호 집자리 [그림 21-④·⑤]

동서 8m, 남북 5m (40㎡, 약 12평)의 직사각형 집자리로서 움 깊이는 약 50cm이다. 출입구는 동남쪽으로 추정되는데, 밖으로 드나들기 편하도록 비스듬이 경사져 당시 생활면과 맞닿아 있다. 불뎀자리는 집자리 중앙에서 약간 안쪽으로 치우친 곳에 마련되었는데, 2호 집자리의 그것과 같은 방법으로 축조되었다. 탄화된 판자벽이 벽선을 따라가며 그대로 노출되었고, 집자리바닥에서는 기둥, 이영, 돛자리, 물레, 바구니 등이 탄화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3호 집자리에서는 다량의 민무늬토기와 두드림무늬토기 뿐 아니라갈색·청색옥 3점, 숫돌 1점, 낫·쇠칼·못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3) 지표채집 유물

둔내고등학교 주변에서는 지금도 많은 양의 토기조각들이 발견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관사 앞 텃밭에서 19점의 토기조각을 찾을 수 있었다. 그중 크기가 극히 작은 몸체 부분 4점을 제외하고, 비교적 형태상의 특징이 뚜렷한 15점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채집된 토기의 종류와 갯수〉

구 분	입술 및 목부분	몸체부분	밑부분
두드림무늬토기조각		1	
민무늬 토기조각	4	10	4

● 두드림무늬토기(打捺文土器)

① 몸체부분 [그림 22-③, 사진 78-①]

회색빛을 내는 연질의 두드림무늬토기조각이다. 바탕흙에는 1mm이하의 모래알갱이가 섞여있다. 겉면에는 거의 수직방향으로 끈무늬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배열어져 있다. 두께 6.4mm

● 민무늬토기

① 입술부분 [그림 22-④, 사진 78-②]

겉면은 옅은 갈색, 안쪽면은 검은색과 갈색이 섞여있다. 겉면은 매끈하게 손질되어 다른 혼입물이 관찰되지 않지만, 안쪽면과 속심에서는 1~2mm 정도의 모래알갱이가 많이 보인다. 입술은 끝이 편평하고 바라진 형태이다. 두께 8.0mm

② 입술부분 [그림 22-⑤, 사진 78-③]

안팎면이 모두 옅은 갈색을 띤다. 겉면은 매끈하며 안쪽면과 속심에서는 1mm이하의 고운 입자들이 관찰된다. 입술끝은 둥그스름하고 도톰한 편이다. 두께 6.0mm

③ 목부분 [그림 22-⑥, 사진 78-④]

안팎면은 연한갈색을 띠고, 속심은 짙은 갈색이다. 겉면은 거친편이며, 속심에서는 1mm이하의 고운 입자들이 고르게 박혀있는 것이 관찰된다. 입술 끝은 깨어져 나갔지만 횡새로 보아 바라진 입술의 목부분이다. 안쪽면에는 바라진 횡새를 주기 위해 손끝으로 꺾꺾 누른 손누름자국이 남아있다. 두께 9.0mm

④ 목부분 [그림 22-⑦, 사진 78-⑤]

겉면은 짙은 갈색과 연한갈색을 띠고 안쪽면은 적갈색을 낸다. 횡새로 보아 몸체에 서 목으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안팎면과 속심 모두에서 1~3mm정도의 모래알갱이가 관찰된다. 특히 이 토기의 양쪽면 하단에는 점토띠를 이어붙인 자국이 남아

있어 주목된다. 점토띠는 아래에서 위로 이어 붙였다. 이어붙인 부분에는 손누름자국이 깊이 남아있다. 두께 8.0mm

⑤ 밑부분 [그림 22-⑧, 사진 79-①]

바닥면은 적갈색, 안쪽면은 짙은 갈색을 띤다. 안팎면이 모두 거칠며 터져있다. 1~2mm 정도의 모래알갱이들이 관찰된다. 납작한 모양의 밑을 가졌다. 두께 13.5mm

⑥ 밑부분 [그림 22-⑨, 사진 79-②]

대체로 옅은 갈색을 띠며, 비교적 두텁고 단단한 편이다. 굽이 있는 겉면에는 손으로 눌러 축약한 흔적과 함께 가로방향으로 빗질하며 깎아낸 흔적이 남아있다. 밑은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들린형'이다. 들린바닥의 테두리 너비는 약 1.5cm이다. 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으며 추정되는 밑지름은 약 9cm이다. 두께 22.0mm

⑦ 밑부분 [그림 22-⑩, 사진 79-③]

전체적으로 연한 갈색이지만 안쪽면 일부는 어두운 갈색빛을 띠기도 한다. 바탕흙에는 1~2mm 정도의 모래알갱이와 운모가 섞여있다. 밑은 거의 굽을 형성하지 않았다. 두께 9.0mm

⑧ 밑부분 [그림 22-⑪, 사진 79-④]

전체적으로 어두운 갈색을 띤다. 크기나 두께로 보아 상당히 자그마한 형태의 토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둔내유적에서는 이러한 소형토기가 상당수 발굴된 바 있다. 납작밑이며 5mm 정도의 굽을 형성하고 있다. 두께 7.0mm

⑨ 몸체부분 [그림 22-⑫]

안팎면이 모두 흑갈색을 띤다. 겉면에는 1~2mm 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으며, 매끈하지 못한 편이다. 안쪽면에는 빗질정면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두께 6.2mm

⑩ 몸체부분 [그림 22-⑬, 사진 80-①]

겉면은 어두운 갈색, 안쪽면은 적갈색을 띤다. 안팎면과 속심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굵은 모래알갱이가 보이며, 운모가루도 섞여있다. 겉면은 매끈하지 못하고 거친 편이다. 두께 10.0mm

⑪ 몸체부분 [그림 22-⑭, 사진 80-②]

겉면은 연한 갈색, 안쪽면은 어두운 갈색이다. 안쪽면에는 1~2mm 정도의 모래알갱이가 한곳에 몰려있다. 겉면에는 빗질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두께 9.0mm



⑫ 몸체부분 [그림 22-⑮, 사진 80-③]

겉면은 붉은 갈색, 안쪽면은 옅은 갈색을 띤다. 상당히 고운 바탕흙에 1mm 이하의 작고 고른 입자들이 섞여있다. 겉면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두께 9.5mm

⑬ 몸체부분 [그림 22-⑯, 사진 80-④]

전체적으로 연한 갈색을 띤다. 겉면에서는 1~3mm정도의 모래알갱이 서너개가 관찰되고, 안쪽면에는 운모가 섞여 반짝거린다. 두께 8.0mm

⑭ 몸체부분 [그림 22-⑰, 사진 80-⑤]

안팎면이 모두 적갈색을 띠며, 다른 어떤 혼입물도 관찰되지 않는다. 두께 9.4mm

(4) 유적의 성격 및 보존대책

둔내유적은 한강유역의 초기철기시대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중의 하나이다. 공사중 드러난 부분에 대한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소규모 구제발굴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주천강 상류지역의 하천변 충적대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규모 취락의 구조를 파악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하지만 발굴된 3기의 집자리와 그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화재로 인하여 갑자기 폐기되어진 까닭에 당시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둔내유적 발굴을 통해 초기철기시대 둔내주민들의 건축기술과 생계유형, 생활상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비교적 많이 확보된 셈이다.

둔내유적에서는 민무늬토기와 두드림무늬토기가 함께 출토되었는데, 그 상대빈도는 민무늬토기가 훨씬 우세하다. 토기형태는 바라진 입술을 한 중·소형 항아리(外反口綠壺)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토기는 이른바 '중도식토기'로 불리는 것들이다. 둔내유적에서는 특히 실용성이 없는 소형토기[그림 22-①·②, 사진 77]가 여러점 집자리 내부에서 출토되어 주목된다. 시루, 바리(鉢), 항아리(壺), 굽다리토기(豆形土器)등 실생활용기와 같은 기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개 높이가 5~6cm 이내에 든다. 둔내유적 보고서에서는 이를 어린아이들이 빚어 만든 장난감토기로 해석한 바 있다. 이러한 소형토기는 해남 군곡리패총<sup>27)</sup>, 중원 하천리 F지구 1호

27) 최성락, 『해남 군곡리패총』 I, 목포대학 박물관, 1987, pp. 35-36

최성락, 『해남 군곡리패총』 II, 목포대학 박물관, 1988, p. 34

최성락, 『해남 군곡리패총』 III, 목포대학 박물관, 1989, p. 33

주거지<sup>28)</sup>, 명주 안인리유적<sup>29)</sup>등에서도 출토되었다.

둔내유적 주변에서는 현제도 상당량의 토기편이 발견되고 있으며, 농지정리나 각종 건물개축공사, 수도공사 등으로 인하여 당시의 문화층이 파괴되어가고 있다. 특히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둔방내리 일대에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있는 8만여평 규모의 부지조성 작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이와 연계해 오페수처리시설·경지정리·관광농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것이 이른바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다. '문화마을'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문화유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사시행 이전에 정밀한 지표조사 및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둔내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 3) 황성읍 읍하리 유적

####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 [지도 3, 사진 81]

읍하리유적은 섬강가의 사질충적토에 형성된 철기시대 유적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황성군 황성읍 읍하2리에서 3리에 걸쳐 있다. 황성교를 지나 황성읍으로 들어서면서 우측으로 섬강을 따라 내려가면 강 주변으로 15~20여호의 집과 비옥한 농경지가 펼쳐진다.

섬강의 하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넓게 형성된 강가 둔덕은 토질이 비옥하여 농경지로서 적당하다. 현재 이곳은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충적대지 위에서 다량의 민무늬토기조각과 두드림무늬토기조각이 채집되었다.

읍하 2리에서부터 간헐적으로 토기조각이 채집되며, 논으로 이용되는 곳의 강가쪽 단애면에서는 토기조각이 박힌 채 발견되기도 하였다. 토기조각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곳은 읍하 3리 4반 일대의 밭이다.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토기조각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유적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듯하다. 강 건너편은 가파른 계곡으로서 이곳과 같이 대지가 펼쳐진 곳은 없다. 따라서 이곳은 강의 혜택을 받으며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생활지역이다.

28) 윤용진, 「중원 하천리 F지구 유적발굴 조사보고」, 『충주댐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II)』, 1984. pp. 385-476

29) 강원대학교 발굴품 중에 있다. 보고서 미간.

## (2) 유물 설명

읍하리에서 채집된 토기조각은 모두 137점이다. 이곳의 토기는 크게 민무늬토기와 두드림무늬토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두드림무늬토기조각은 18점, 민무늬토기조각은 119점이다. 대표적인 유물 몇점을 골라 소개하겠다.

### ㉠ 민무늬토기

#### ① 입술부분 [그림 23-①, 사진 82-①]

겉면은 어두운 갈색, 안쪽면과 속심은 옅은 갈색이다. 속심에서는 1~2mm 정도의 모래알갱이가 많이 관찰되며, 4mm 정도의 큰것도 섞여 있다. 입술은 약간 바라진 형태이며, 입술 끝은 둥그스름하다. 안쪽면에는 가로방향으로 빗질정면한 흔적이 남아 있다. 두께 8.4mm

#### ② 입술부분 [그림 23-②, 사진 82-②]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상당히 고운 바탕흙을 사용하였으며 1mm 이하의 고운 입자들이 섞여 있다. 입술은 곧선형태에 가까우며 입술 끝쪽으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진다. 입술끝은 가늘며 둥그스름한 편이다. 두께 8.4~5.0mm

#### ③ 목부분 [그림 23-③, 사진 82-③]

안팎면 모두 밝은 갈색빛을 띤다. 토기 겉면은 거칠고 오히려 안쪽면은 매끈한 편이다. 1mm 이하의 고운 입자가 고르게 박혀있는 가운데 2mm정도의 모래알갱이도 간간이 섞여 있다. 입술의 휨새는 바라진 형태이다. 두께 12.5mm

#### ④ 목부분 [그림 23-④, 사진 82-④]

겉면은 붉은 갈색, 안쪽면은 회색빛에 가깝다. 상당히 정선된 바탕흙에 1mm 이하의 고운 입자가 섞여 있다. 몸체에서 입술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두께 9.0mm

#### ⑤ 목부분 [그림 23-⑤, 사진 82-⑤]

안팎면 모두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며, 1mm 이하의 고운 입자가 고르게 박혀있다. 휨새로 보아 바라진 입술을 형성했으리라 추정된다. 두께 10.0mm

#### ⑥ 밑부분 [그림 23-⑥, 사진 83-①]

전체적으로 갈색을 띤다. 상당히 두텁게 만든 납작밑이다. 1mm 이하의 고운 입자가 고르게 박혀있는 가운데 2mm 정도의 모래알갱이도 간간이 눈에 띈다. 안쪽면에는 손으로 눌러가며 혹은 손끝을 옆으로 밀면서 진흙을 편 흔적이 울퉁불퉁하게 남아 있

다. 겉면에는 손으로 눌러 축약한 자국이 있다. 추정된 밑지름은 약 11cm이다.

⑦ 밑부분 [그림 23-⑦, 사진 83-②]

바닥과 겉면은 연한 갈색, 안쪽면은 어두운 갈색을 띤다. 1~2mm 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그리 높지 않은 굽을 지닌 납작밑이다. 추정된 밑지름은 9.5cm이다.

⑧ 밑부분 [그림 23-⑧, 사진 83-③]

전체적으로 고르게 갈색을 띤다. 상당히 정선된 바탕흙에는 1mm 이하의 고운 입자와 운모가 고르게 박혀있고 2mm 정도의 알갱이도 간간이 눈에 띈다. 얇은굽에는 손으로 눌러 축약한 후 부분부분 깎아낸 흔적이 남아있다.

⑨ 밑부분 [그림 23-⑨, 사진 83-④]

전체적으로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상당히 무른 편이며 납작밑조각이다.

⑩ 원형토제품 [그림 23-⑩, 사진 84-①]

민무늬토기 몸체조각의 가장자리를 갈아서 둥글게 만들었다. 안팎면이 모두 갈색을 띠며, 1~3mm 정도의 모래알갱이가 고르게 박혀있다. 지름은 약 4.5cm이며 두께는 8.0mm이다. 이러한 원형토제품은 이 시기 유적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둔내유적에서는 집자리 내부에서 40여점 정도 발굴되었으며, 시루와 함께 출토된 점을 들어 시루구멍을 막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sup>30)</sup>

또한 백제초기유적인 몽촌토성에서도 발견되었는데 가락바퀴를 만들기 위한 준비품 혹은 시루구멍을 막기 위한 용도로 추정되었다.<sup>31)</sup> 그밖에도 철기시대유적인 춘천중도<sup>32)</sup>, 제주 각지패총<sup>33)</sup>, 해남 군곡리패총<sup>34)</sup>, 명주 안인리<sup>35)</sup> 등에서도 출토되었다.

아무튼 이 유물은 철기시대유적에서 상당수가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실생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깨진 민무늬토기조각이나 두드림무늬토기 조각을 새롭게 갈아서 재활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30) 원영환·최복규, 『둔내』, 강원대학교 박물관, 1984.

31) 김원룡 외, 『몽촌토성』, 서울대학교 박물관, 1989. p. 146

32) 지건길 외, 『중도 I』, 국립중앙박물관, 1982. pp. 32-33

33) 이백규·이정규, 『각지패총』, 제주대학교박물관, 1985. pp. 55-56

34) 최성락, 『해남 군곡리패총』 I, 목포대학 박물관, 1987. p. 58

최성락, 『해남 군곡리패총』 II, 목포대학 박물관, 1988. pp. 45-46

최성락, 『해남 군곡리패총』 III, 목포대학 박물관, 1989. pp. 44-45

35) 강원대학교 발굴품중에 1점이 있다. 보고서 미간.

⑪ 몸체부분 [그림 23-⑪, 사진 84-②]

안팎면이 모두 갈색이다. 겉면에서는 1mm이하의 고운입자가 관찰되며, 안쪽면에는 빗질정면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두께 14.6mm.

⑫ 몸체부분 [그림 23-⑫, 사진 84-③]

겉면은 어두운 갈색, 안쪽면은 연한 갈색을 띤다. 속심은 갈색과 검은색으로 나누어진다. 겉면은 매끈하게 손질하였고, 바탕흙은 상당히 정선된 편이다. 안쪽면에는 손으로 눌러 휨새를 준 흔적이 일부 남아있다. 두께 13.0mm

⑬ 몸체부분 [그림 23-⑬, 사진 84-④]

안팎면이 모두 적갈색을 띤다. 안팎면과 속심에서는 2~3mm 정도의 굵은 모래알갱이가 많이 관찰된다. 두께 10.5mm.

⑭ 몸체부분 [그림 23-⑭, 사진 84-⑤]

안팎면은 연한 갈색을 띠며, 속심에서는 일부 붉은빛이 돌기도 한다. 1~2 mm정도의 모래 알갱이가 안팎면에 상당히 많이 박혀있다. 두께 11.6mm.

⑮ 몸체부분 [그림 23-⑮, 사진 84-⑥]

안팎면이 모두 갈색이다. 양쪽면이 또한 상당히 매끈한 편이며, 빗질정면한 자국이 뚜렷이 남아 있다. 두께 9.0mm.

● 두드림무늬토기

① 몸체부분 [그림 23-⑯, 사진 85-①]

적갈색 연질토기조각이다. 민무늬토기 바탕흙에 문살무늬가 베풀어져 있다. 두께 10.0mm

② 몸체부분 [그림 23-⑰, 사진 85-②]

안팎면이 모두 회색빛을 띠며, 겉면에 문살무늬를 베푼 뒤 가로방향으로 한줄을 돌렸다. 두께 6.0mm

③ 몸체부분 [그림 23-⑱, 사진 85-③]

겉면은 어두운 갈색, 안쪽면은 검은빛을 띤다. 겉면에 빗금방향으로 꿈무늬를 베풀었고, 그 위에 가로방향으로 줄을 그었다.

현재 두줄이 남아 있고 두 줄 사이의 간격은 1.5cm이다. 굵기는 무른 편이다.

두께 7.0mm

④ 몸체부분 [그림 23-19, 사진 85-4]

회백색을 띤다. 겉면에 끈무늬를 겹쳐서 배풀었다. 두께 6.0mm

⑤ 몸체부분 [그림 23-20, 사진 85-5]

회청색 경질토기조각이다. 겉면에 세로줄무늬를 배푼 다음 그 위에 가로방향으로 줄을 그어 돌렸다. 현재 두줄이 남아있고 두줄사이의 간격은 약 2cm이다. 안쪽면에는 빗질정면한 흔적이 두 곳 남아있다. 두께 6.4mm

(3) 유물의 분류

읍하리에서 채집한 토기조각은 모두 137점이다. 읍하리의 토기는 크게 민무늬토기와 두드림무늬토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무늬토기 119점, 두드림무늬토기 18점이다.

〈읍하리 토기의 분류〉

구 분	입술 및 목부분	몸체부분	밑부분	계
민무늬토기	5	110	4	119
두드림무늬토기		18		18
계	5	128	4	137

읍하리의 민무늬토기는 대개 바탕흙에 모래알갱이가 많이 섞여 있으며 거친편이다. 바탕흙, 색조, 입술부 및 밑부분의 형태 등을 통해 볼 때 철기시대유적에서 출토되는 전형적인 경질의 민무늬토기조각들이다. 색깔은 대개 붉은빛이 도는 갈색 계통의 것들이 많다.

입술은 철기시대토기의 특징대로 바라진 형태를 한 것이 4점, 곧선입술에 가까운 것이 1점 있다.

밑부분은 모두가 얇은 굽을 지닌 납작밑이다. 채집된 입술 및 밑부분이 적어서 구체적인 형식을 분류하기는 힘들다.

한편 민무늬토기 몸체부 조각의 가장자리를 갈아서 등글게 만든 원형토제품이 1점 채집되어 주목된다.

읍하리에서 민무늬토기와 함께 채집된 두드림무늬토기조각은 18점이며 모두 몸체부분이다.

이를 토기의 질과 색깔, 무늬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두드림무늬토기의 분류〉

구 분	적갈색연질	흑색연질	회색연질	회청색경질	회청색경질
문살무늬	6	2	3		11
끈무늬		1	4		5
세로줄무늬				1	1
기 타				1	1
계	6	3	7	2	18

읍하리의 두드림무늬토기는 대부분 적갈색 연질토기와 회색의 연질토기에 문살무늬와 끈무늬를 배운 것이다. 또는 이 무늬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방향의 줄을 둘러기도 하였다.

(4) 유적의 성격 및 보존대책

읍하리유적은 삼강가의 비옥한 사질충적토 위에 형성된 전형적인 철기시대유적이다. 특히 채집된 민무늬토기와 두드림무늬토기를 살펴보면, 바탕흙·빛갈·무늬배운수법 등 여러모로 보아 한강(북한강, 남한강)줄기를 따라 분포되어 있는 동시기의 다른 유적들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읍하리 유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적으로는 둔내<sup>36)</sup>, 중도<sup>37)</sup>, 마장리<sup>38)</sup>, 이곡리<sup>39)</sup>, 하천리<sup>40)</sup>, 안덕리<sup>41)</sup>, 법천리<sup>42)</sup>,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한강유역의 철기시대문화를 대표하는 유적들이며<sup>43)</sup> 읍하리유적도 이들과 맥을 같이 하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생각한다.

36) 원영환·최복규, 『둔내』, 강원대학교 박물관, 1984.

37) 이진우 외, 『중도 I』, 국립중앙박물관, 1980.

지건길 외, 『중도 II』, 국립중앙박물관, 1982.

38) 김원룡, 「加平 馬場里 治鐵 住居地」, 『역사학보』 50·51, 역사학회, 1971.

pp.111-137 : 한영희, 「마장리 주거지 출토유물」, 『중도』 III, 국립중앙박물관, 1982.

39) 최무장, 「이곡리 철기시대주거지 발굴보고서」, 『인문과학논총』 12, 건국대학교, 1980. pp. 113-154

40) 윤용진, 「중원 하천리 F지구 유적발굴 조사보고」, 『충주댐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II)』, 1984. pp. 385-476

41) 윤내현·한창균, 「양평 병산리유적」, 단국대학교박물관, 1992. pp. 76-88

42) 최복규·최승엽, 「원주지역의 선사시대 문화조사연구」, 『강원사학』 9, 강원대학교 사학회, 1993. pp. 5-16

43) 안덕임, 「한강유역 초기철기시대문화」,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박순발, 「한강유역 원삼국시대의 토기의 양상과 변천」, 『한국고고학보』 23, 한국고고학회, 1989. pp. 21-58

읍하리유적은 읍하 2리에서 3리에 걸치는 섬강가의 충적대지가 모두 유적으로서 그 분포범위가 상당히 넓으며, 1시간여의 짧은시간 동안에 채집한 토기조각의 수가 137점에 이르는 점으로 보아 당시의 대규모 취락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당히 많은 양의 토기조각이 흩어져 나오는 것을 볼 때, 경작으로 인한 유적의 파괴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유적주변에서는 여러가지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이다. 읍하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황성~원주간 우회도로공사가 그것이다. 특히 황성교에서부터 섬강가를 따라 입석리쪽으로 내는 우회도로공사로 인하여 유적의 일부가 파괴될 위험도 있으므로 신중한 보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5. 기타 유적·유물

### 1) 황성읍 목계리 유적

목계리 감자밭에서 간돌창 1점이 출토된 일이 있다는 기록이 있으나<sup>44)</sup>, 현재 이 지역에는 농공단지가 들어서는 등 지형이 많이 변경되어 그 위치를 확인 할 수는 없었다.

### 2) 갑천면 갑천고등학교 소장 반달돌칼 [사진 86]

갑천고등학교 향토자료관에 반달돌칼 1점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출토지는 알 수 없다. 반달돌칼의 전체적인 모양은 타원형이다. 구멍은 중앙 상단에 1개가 뚫려 있는데, 양쪽면에서 맞닿은 것이다. 날은 한쪽면에만 마련되었다. 좌우 양쪽에는 모양을 다듬기 위해 떼어낸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날부분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정성들여 갈아서 만들었다. 크기는 10.3×5.1×2.0cm 이다.

## Ⅲ. 황성군의 고분유적

### 1. 둔내면 영랑리 통일신라고분 [지도 2-③, 사진 87·88]

영랑리 고분은 1983년 7월에 강원대학교 사학과 고고학반 (지도교수 : 최복규)에

44) 김원룡, 『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 서울대학교출판부, 1965. pp.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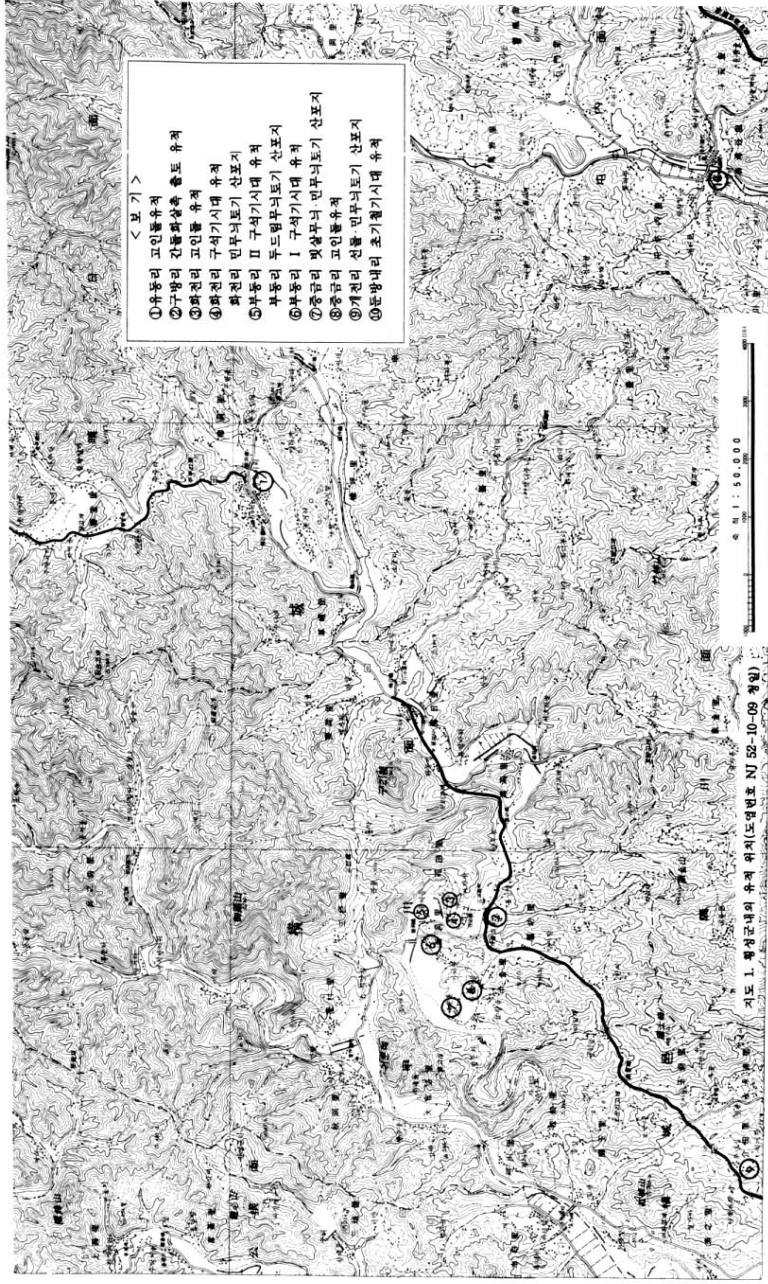
의하여 수습조사 되었다. 고분이 발견된 곳은 주천강변인 영랑리 3반 '중산' 마을의 김영일 씨 소유 밭 한 가운데이다. 당시 경작을 위해 평삭작업을 하면서 드러난 돌덧널(石槨)에서 토기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고고학반 조사단은 즉시 현장을 답사하였다. 하지만 조사단이 도착했을때는 이미 공사로 인하여 돌덧널이 해체되어 흩어진 상태였으며, 일부 남겨진 돌덧널 내부에서 5점의 통일신라기 토기를 수습할 수 있었다. 현재 이 유물은 강원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흩어진 석재들과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볼때 적어도 2기의 고분이 파괴된 것으로 여겨진다.

1994년 11월에 '횡성의 문화유적 조사'를 위해 이곳을 재답사했을 때 밭 가운데에는 아직도 돌덧널의 석재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상태였으며, 무연고 묘가 1기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무덤이 어느시기에 조성된 것인지는 아직 단정지을 수 없다. 횡성지역의 고분조사가 불충분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영랑리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 2. 둔내면 현천리 고려고분

1969년 9월 고려시대의 토기호(土器壺)1, 청자대접 2, 청자상감접시(靑瓷象嵌小椀) 1, 청동바리(靑銅鉢), 청화백자 모란문 향아리(靑華白磁牧丹文壺) 1점이 출토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sup>45)</sup>, 그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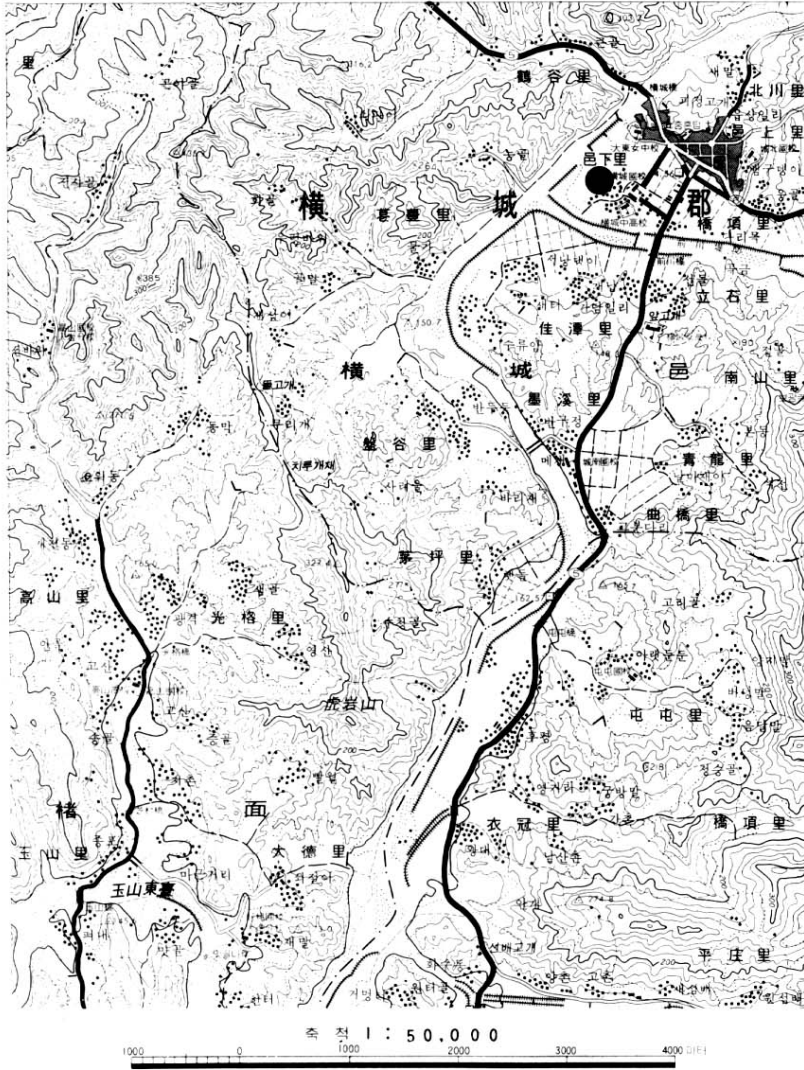
45)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강원도편-』, 1977. p.385



- < 보기 >
- ①부동리 고인돌유적
  - ②구방의 간동삼출출토 유적
  - ③파진리 고인돌 유적
  - ④파진리 구석기시대 유적
  - ⑤파진리 민무늬토기 산포지
  - ⑥부동리 II 구석기시대 유적
  - ⑦부동리 두드림무늬토기 산포지
  - ⑧부동리 I 구석기시대 유적
  - ⑨장금리 빗살무늬 민무늬토기 산포지
  - ⑩장금리 고인돌유적
  - ⑪개진리 신돌·민무늬토기 산포지
  - ⑫문방내리 조기철기시대 유적

지도 1. 불성교리의 유적 위치(도적번호 NJ 52-10-09 3월)





지도 3. 읍하리 유적위치(도엽번호 NJ52-10-15 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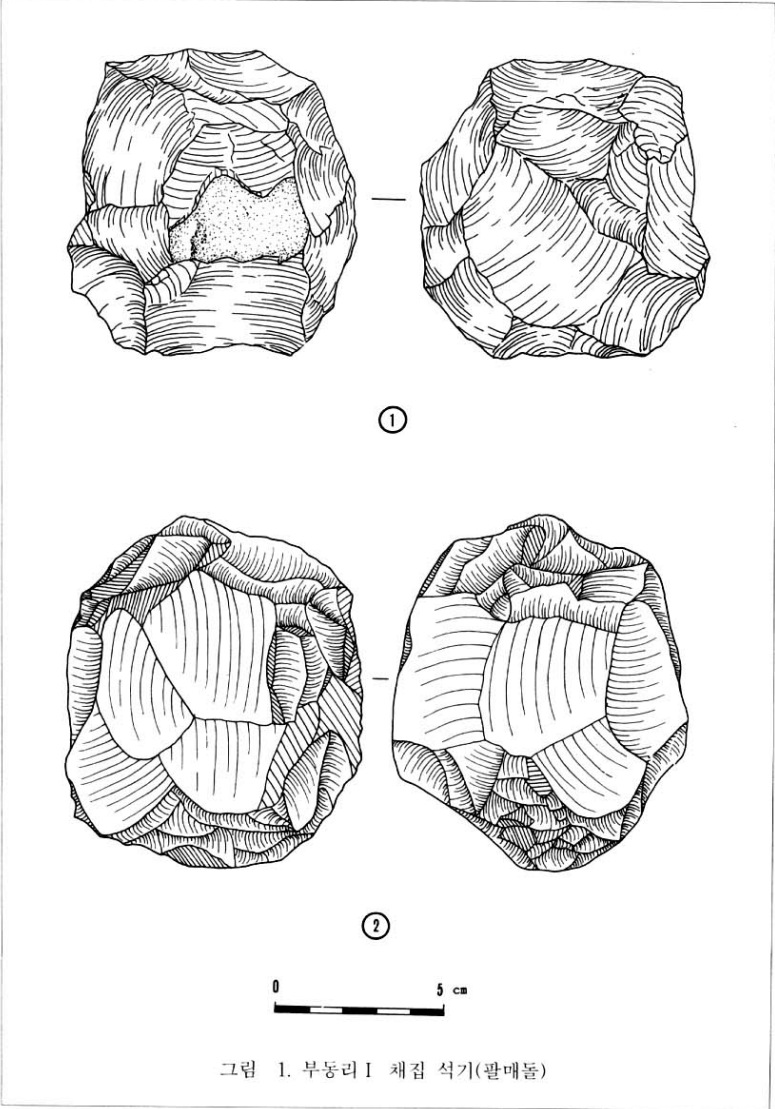


그림 1. 부동리 I 채집 석기(팔매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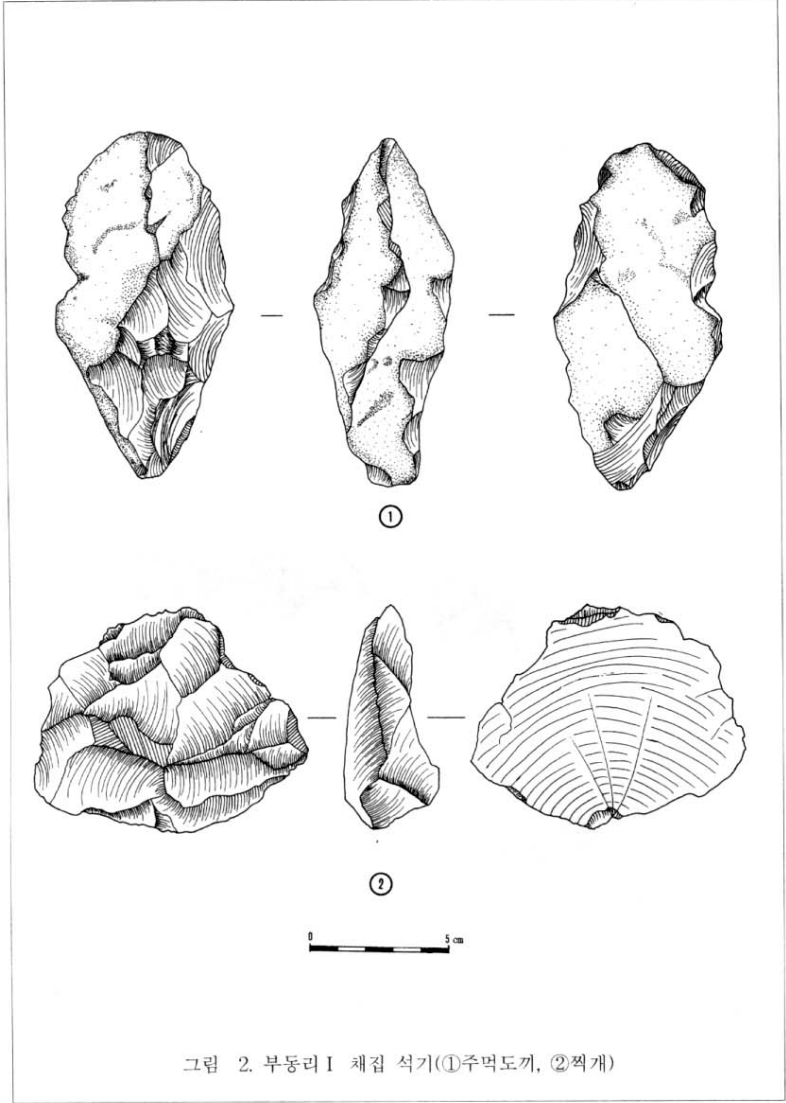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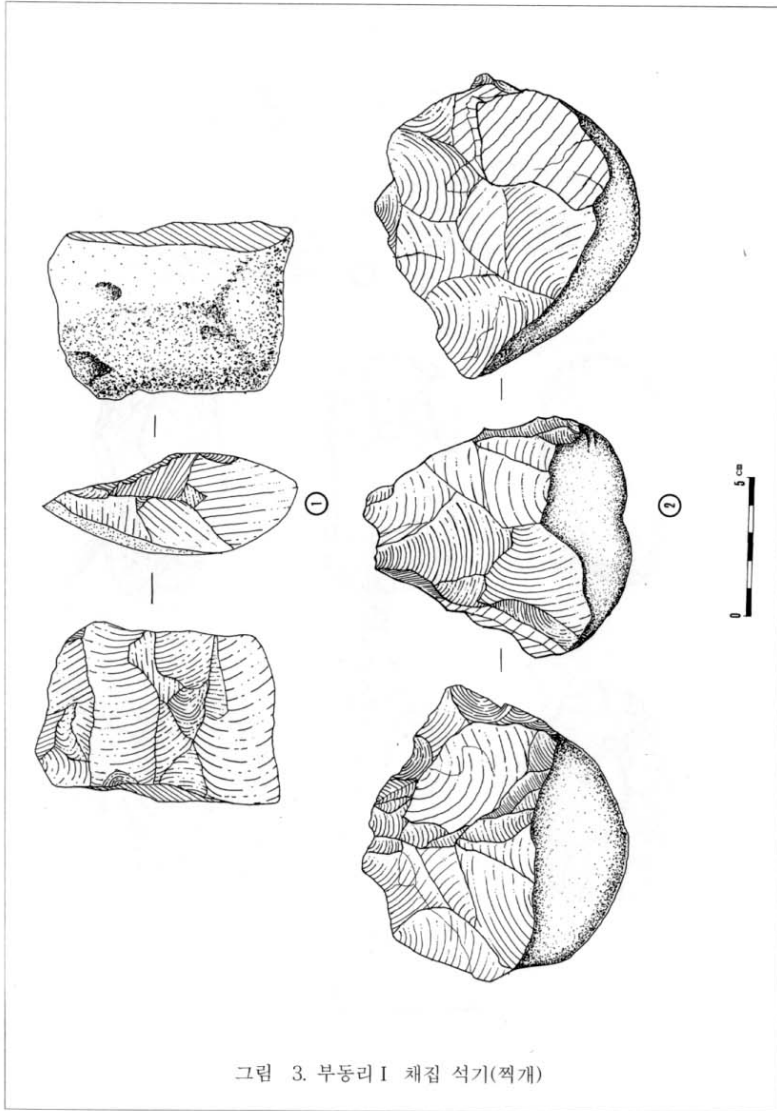


그림 2. 부동리 I 채집 석기(①주먹도끼, ②찍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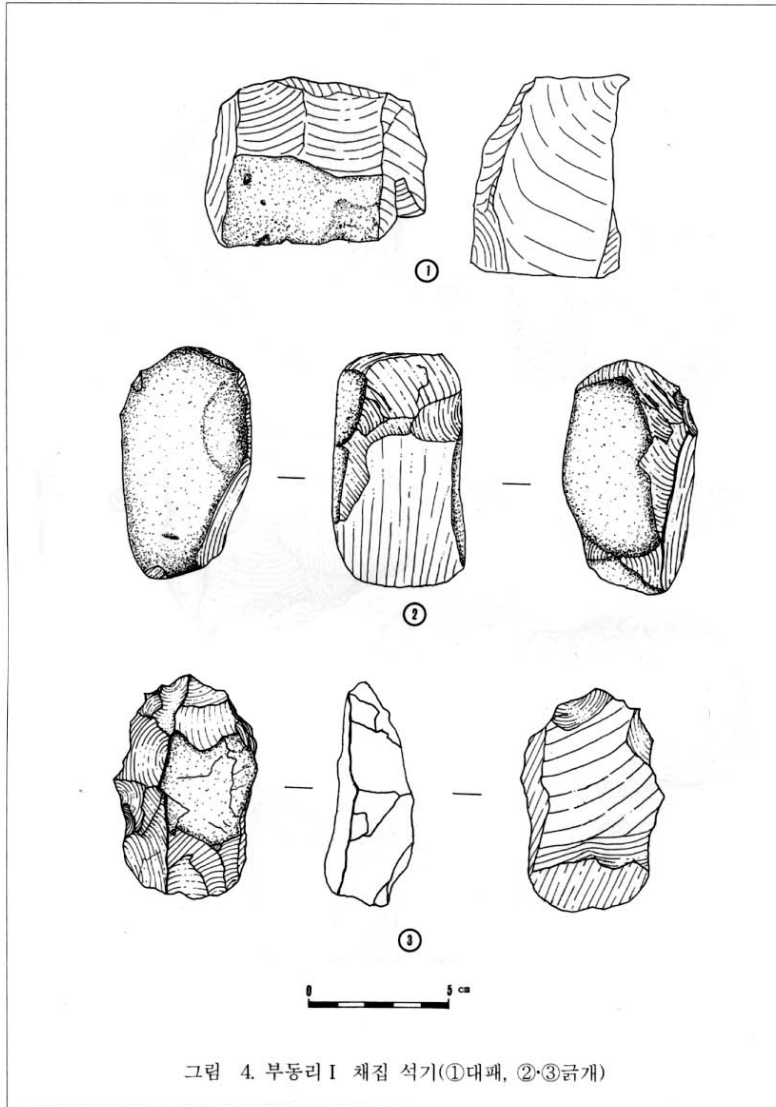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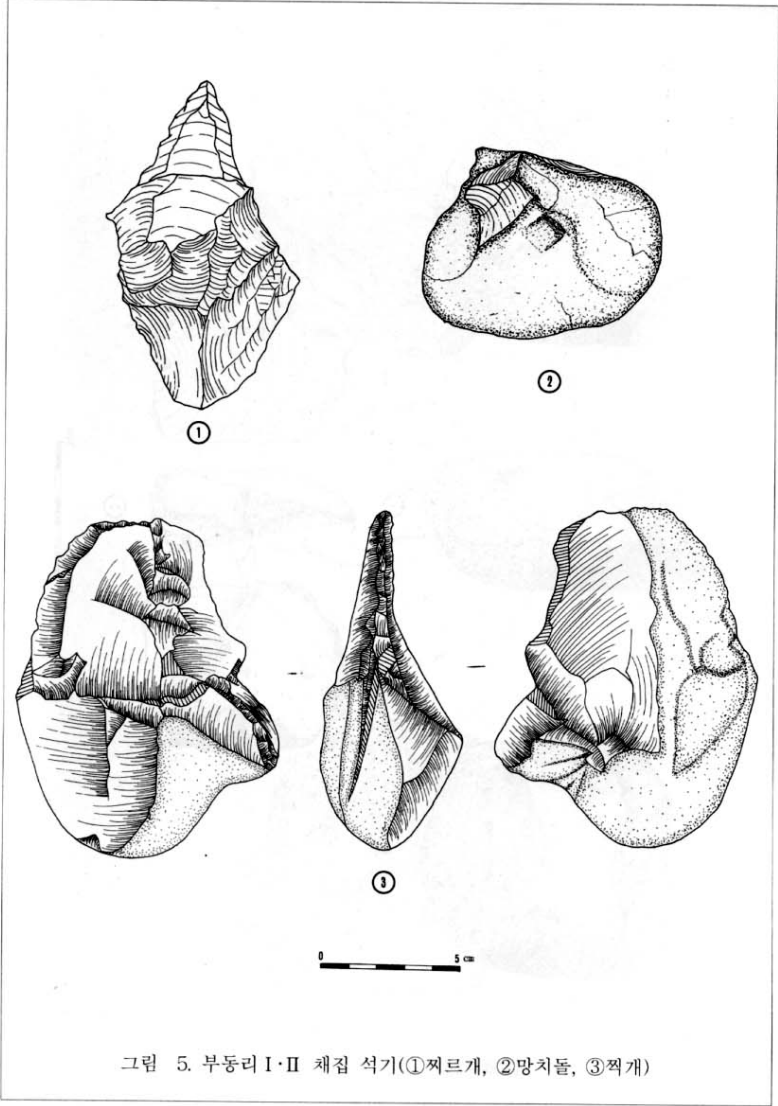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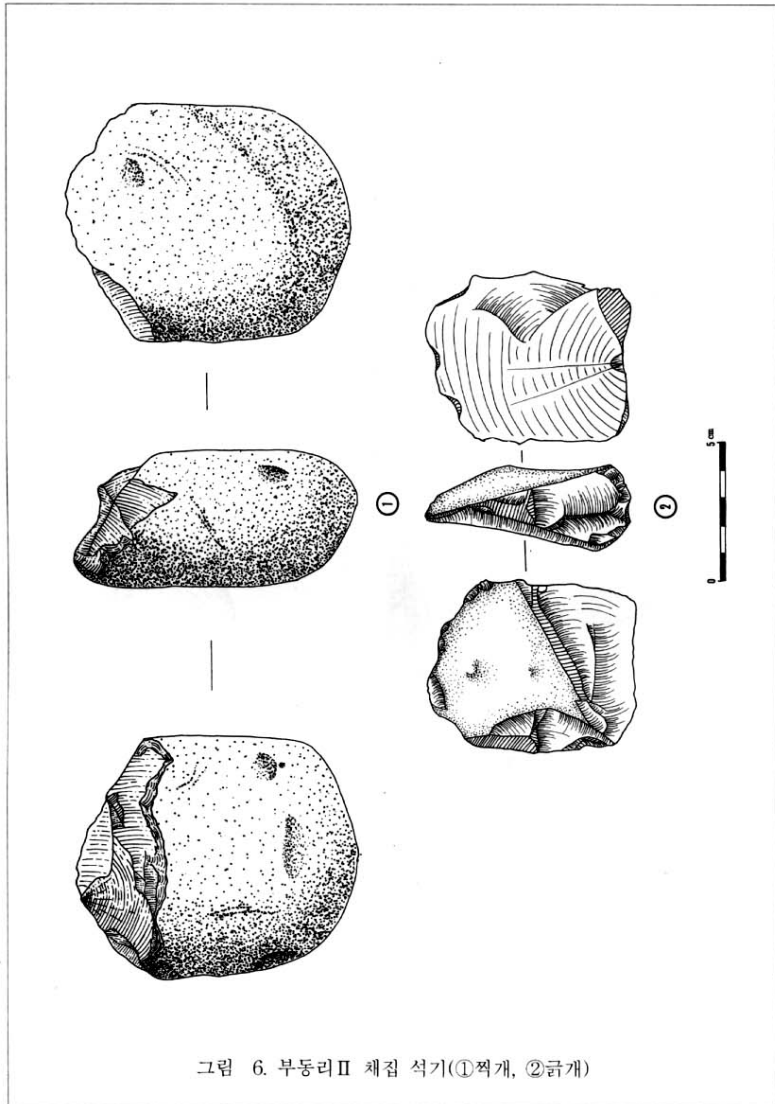


그림 4. 부동리 I 채집 석기(①대패, ②·③긁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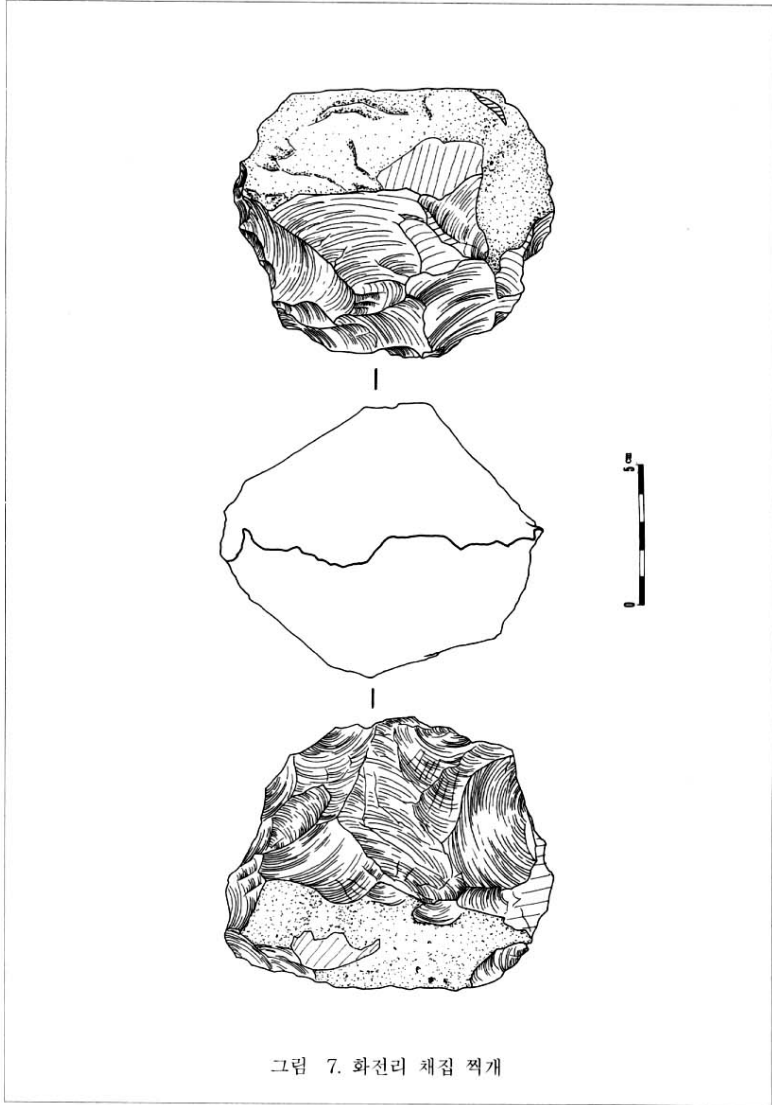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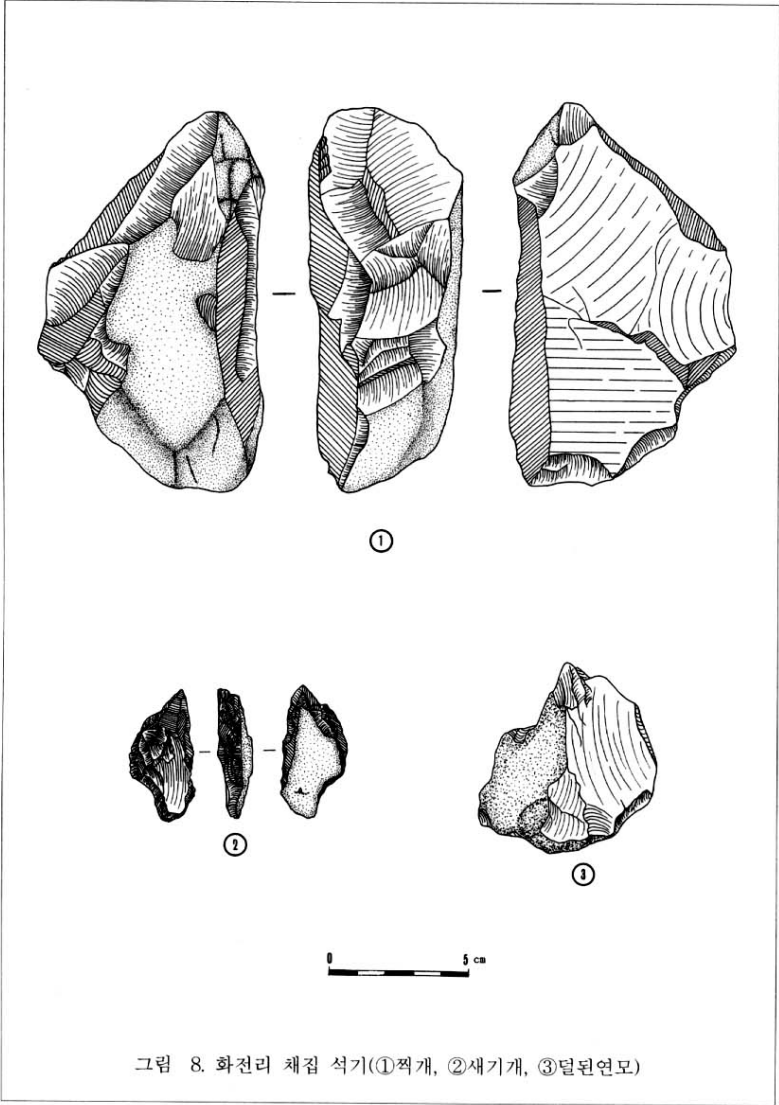


그림 7. 화진리 채집 짚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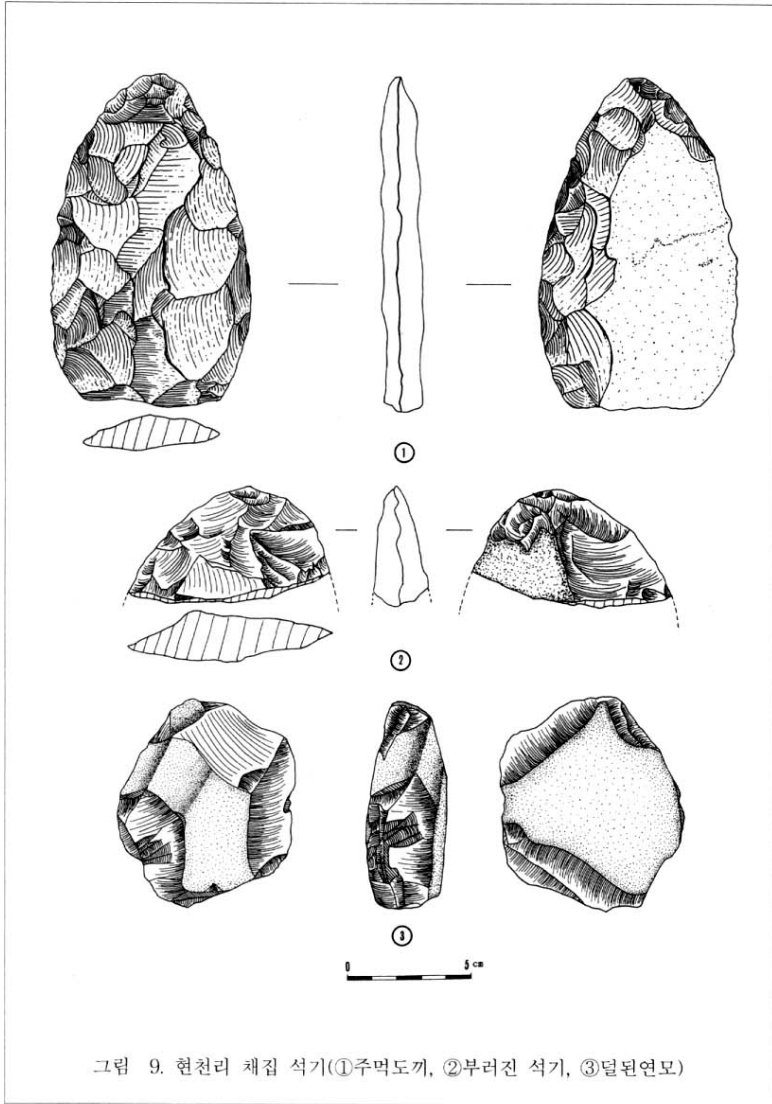


그림 9. 현천리 채집 석기(①주먹도끼, ②부러진 석기, ③달된연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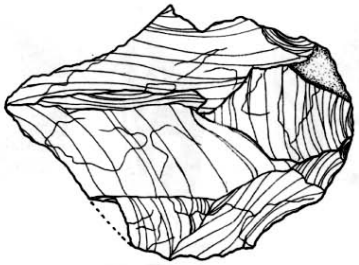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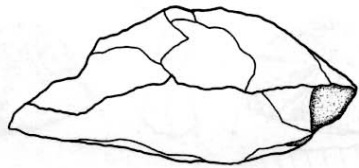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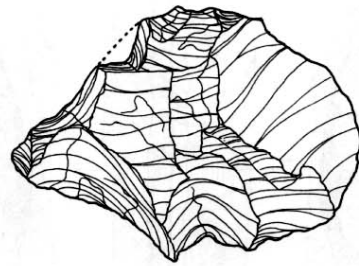


그림 10. 안흥 1리 채집 주먹도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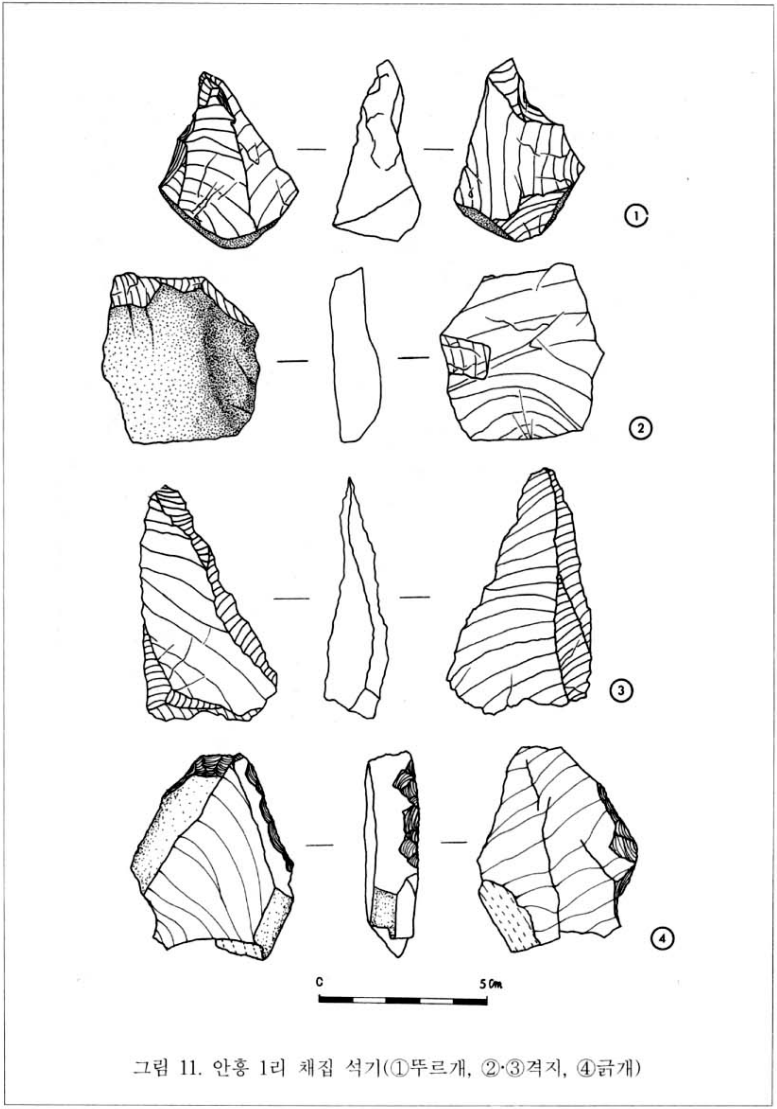


그림 11. 안흥 1리 채집 석기(①뚜르개, ②·③격지, ④긁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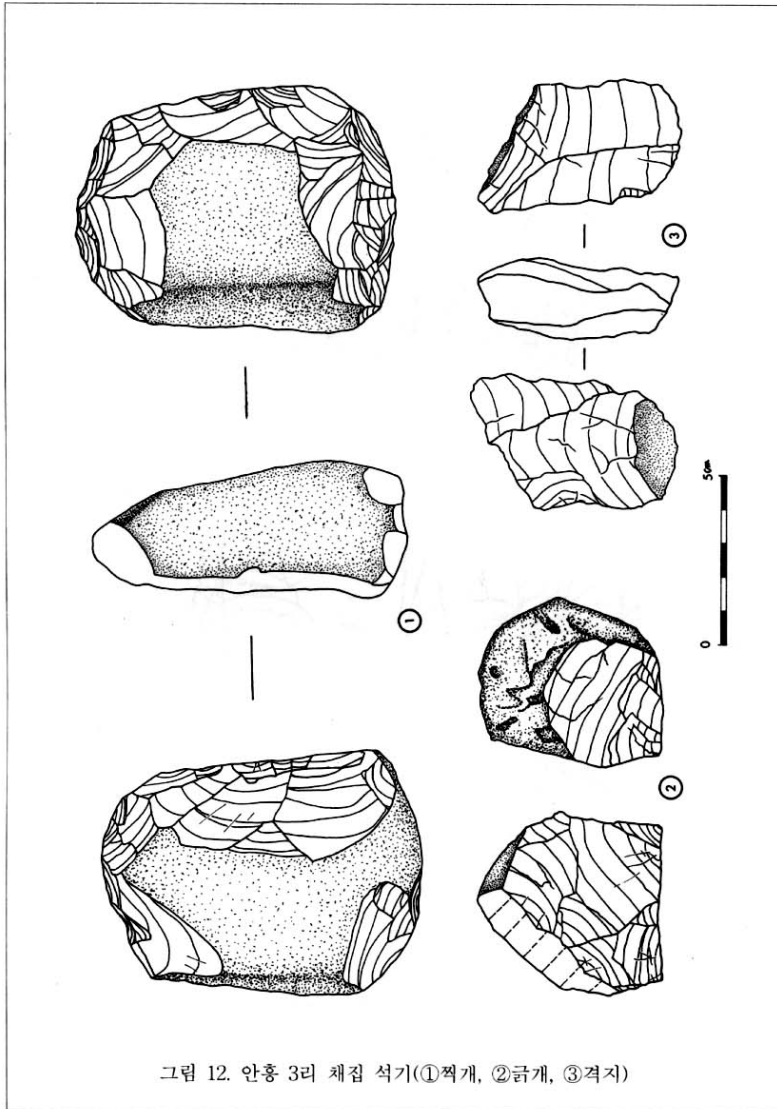


그림 12. 안흥 3리 채집 석기(①찍개, ②긁개, ③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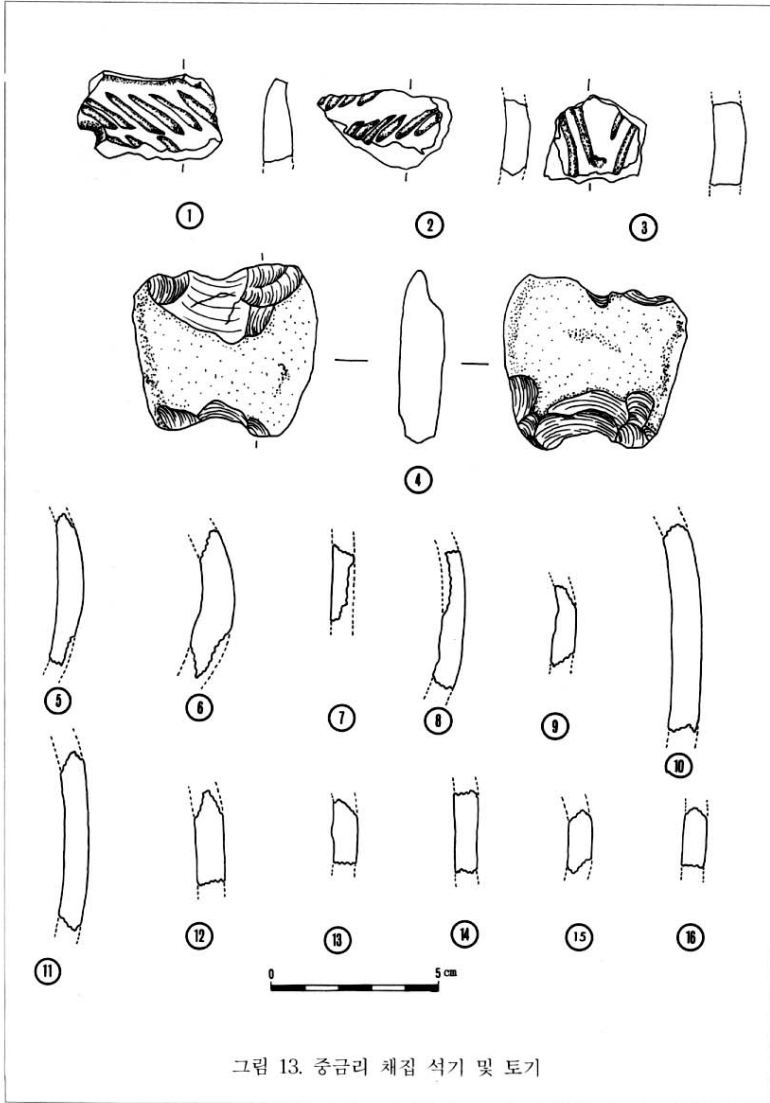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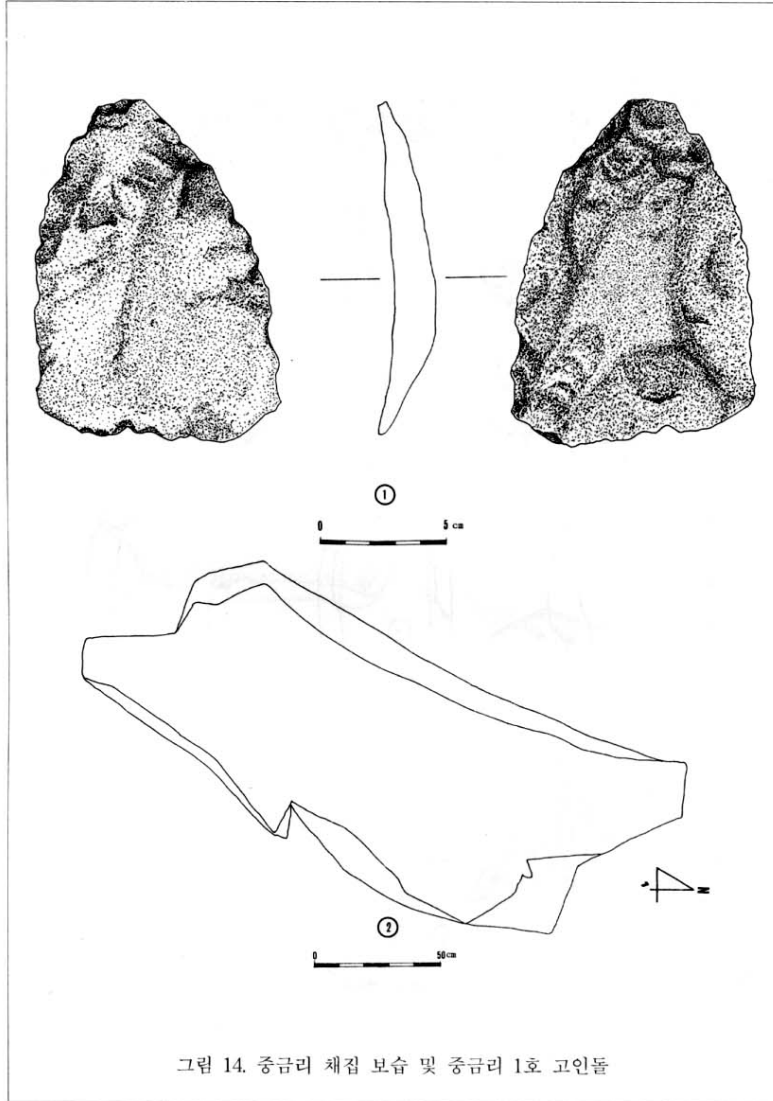


그림 13. 중금리 채집 석기 및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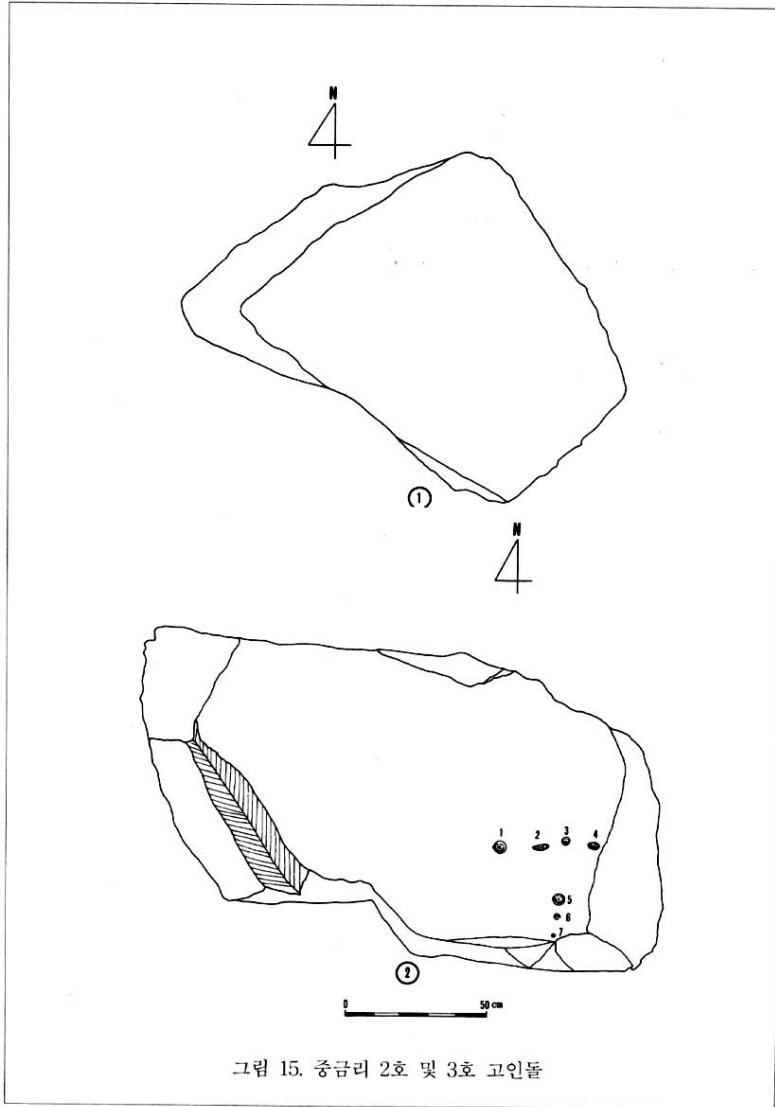


그림 15. 중금리 2호 및 3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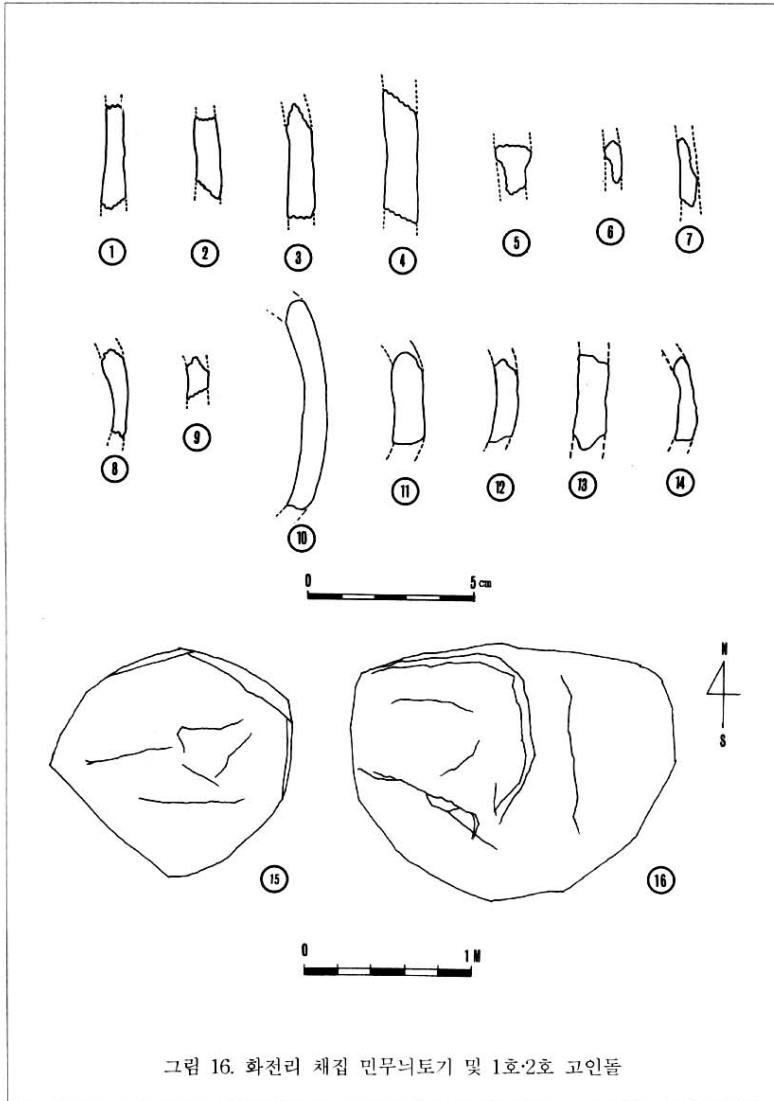


그림 16. 화전리 채집 민무늬토기 및 1호·2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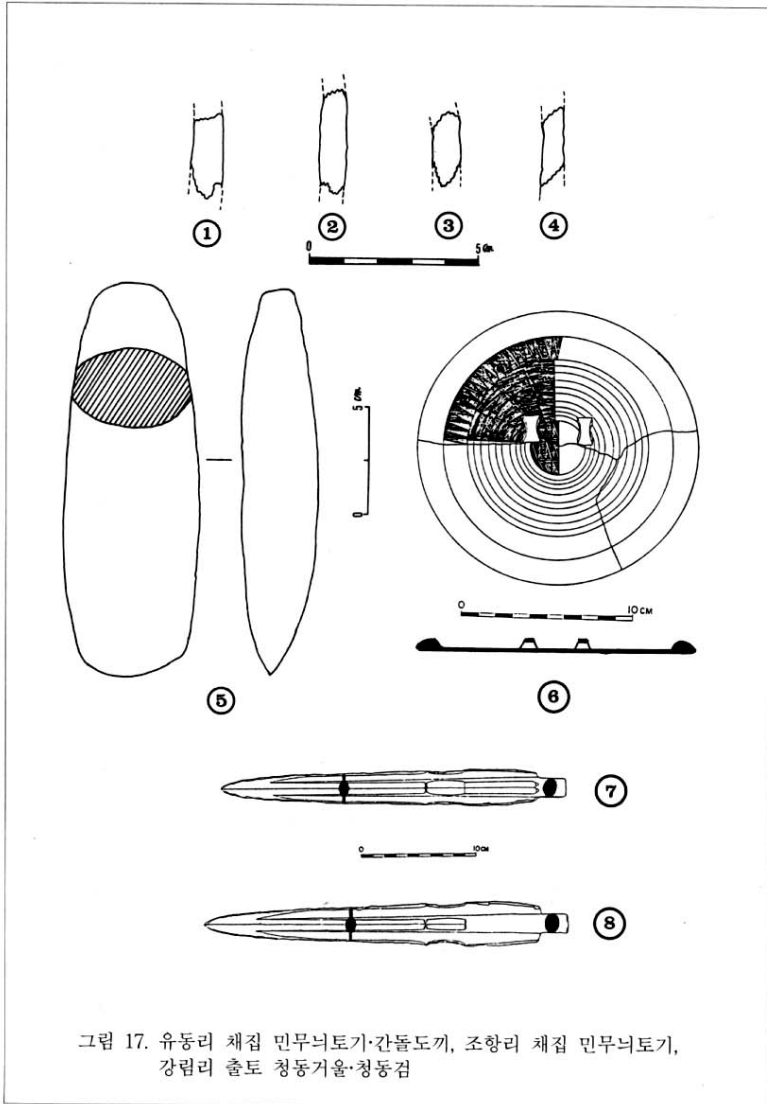


그림 17. 유동리 채집 민무늬토기·간돌도끼, 조항리 채집 민무늬토기, 강립리 출토 청동거울·청동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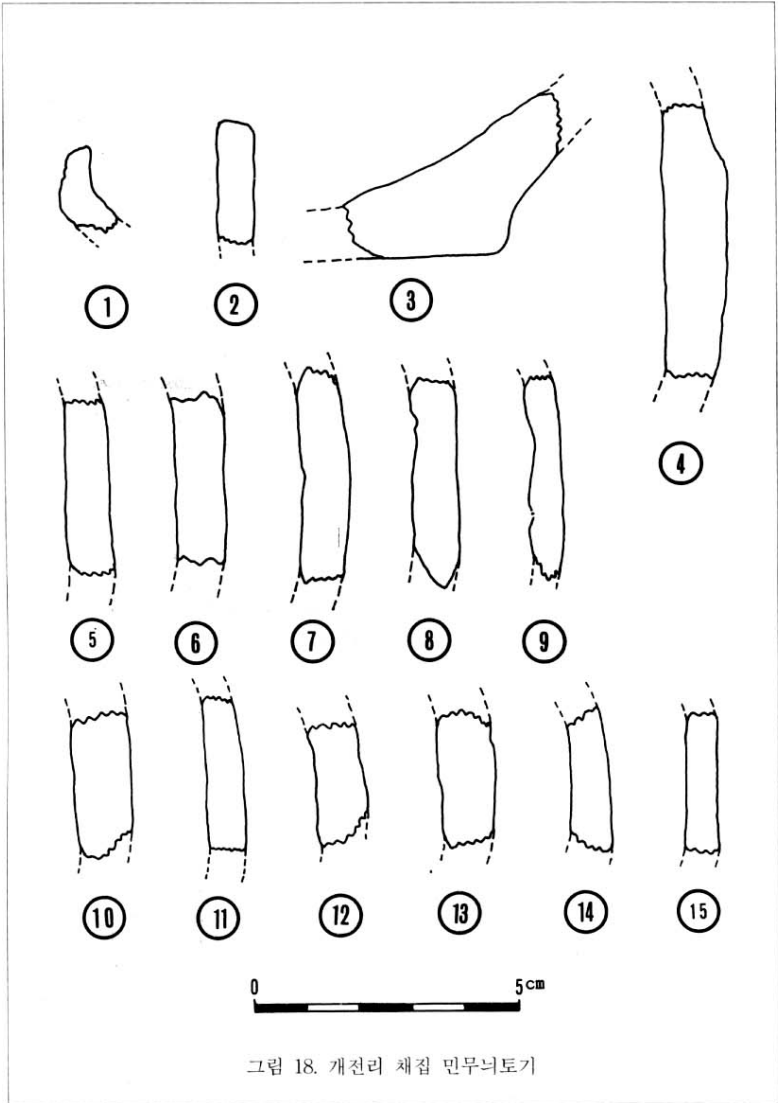


그림 18. 개진리 채집 만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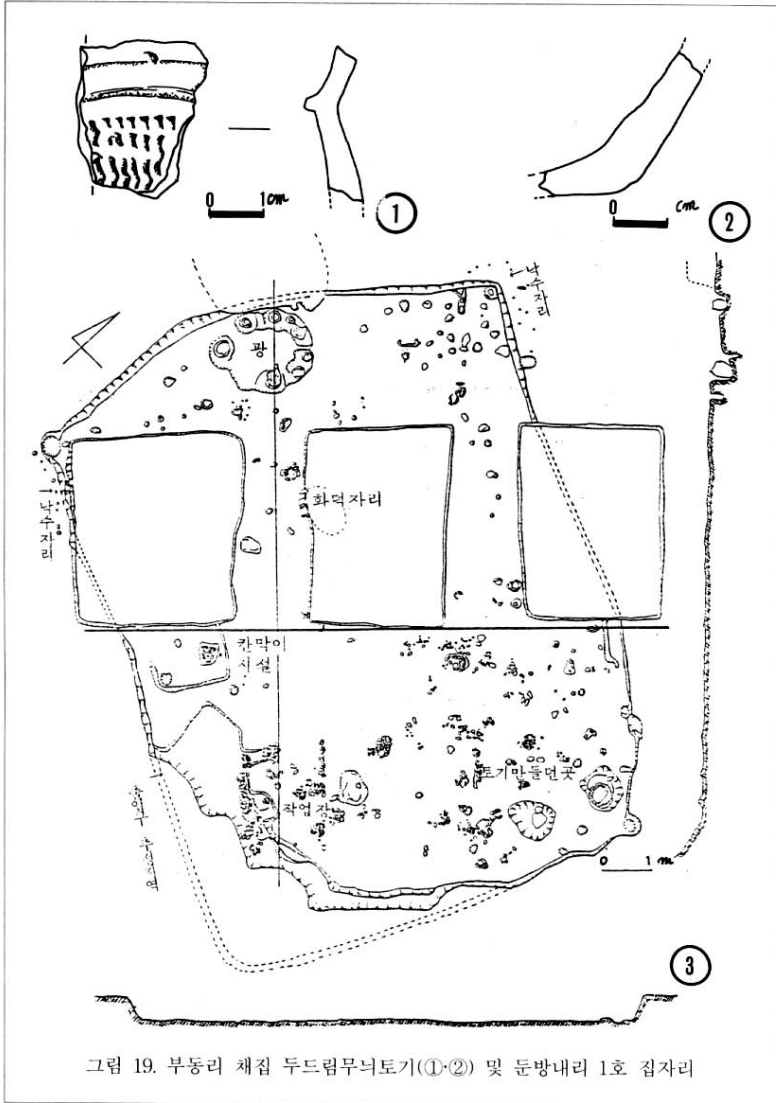


그림 19. 부동리 채집 두드림무늬토기(①·②) 및 문방내리 1호 집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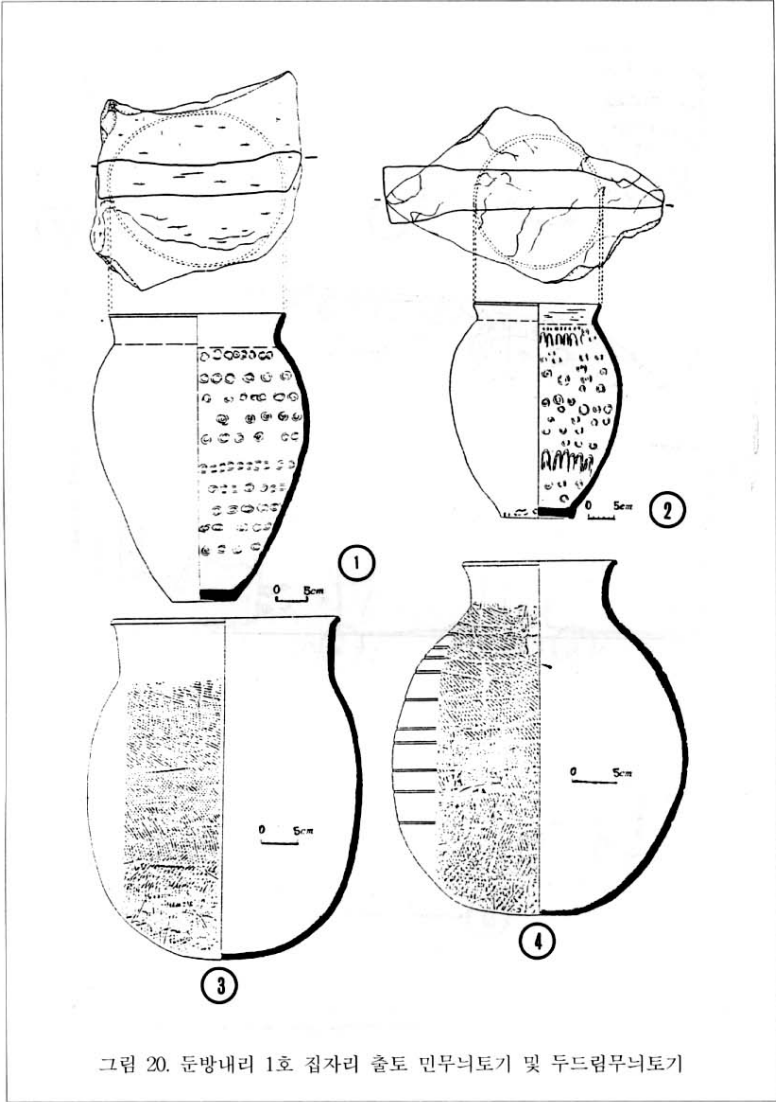


그림 20. 둔방내리 1호 집자리 출토 민무늬토기 및 두드림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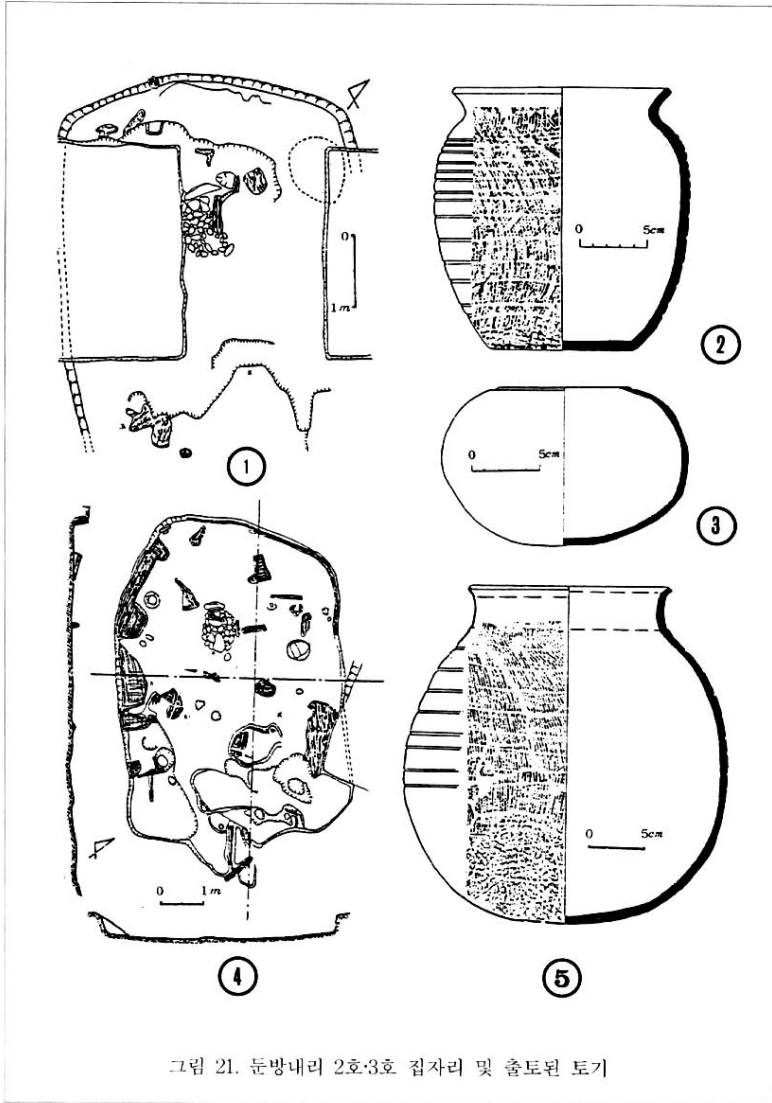


그림 21. 둔방내리 2호·3호 집자리 및 출토된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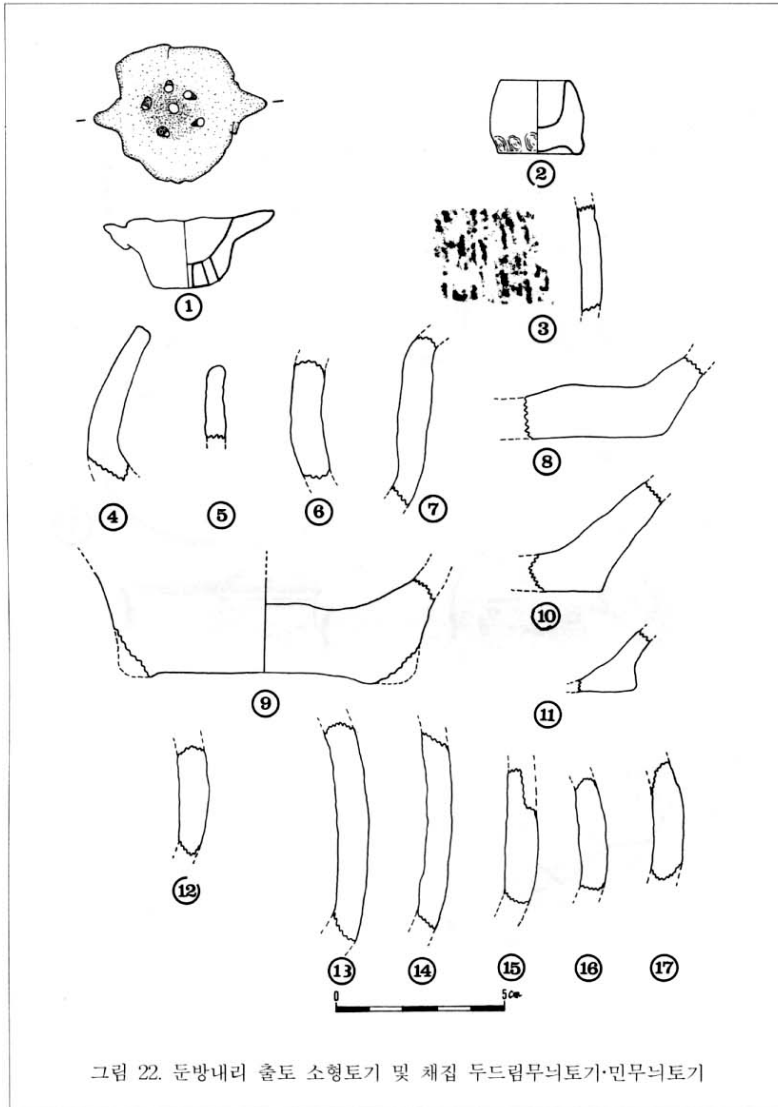


그림 22. 둔방내리 출토 소형토기 및 채집 두드림무늬토기·민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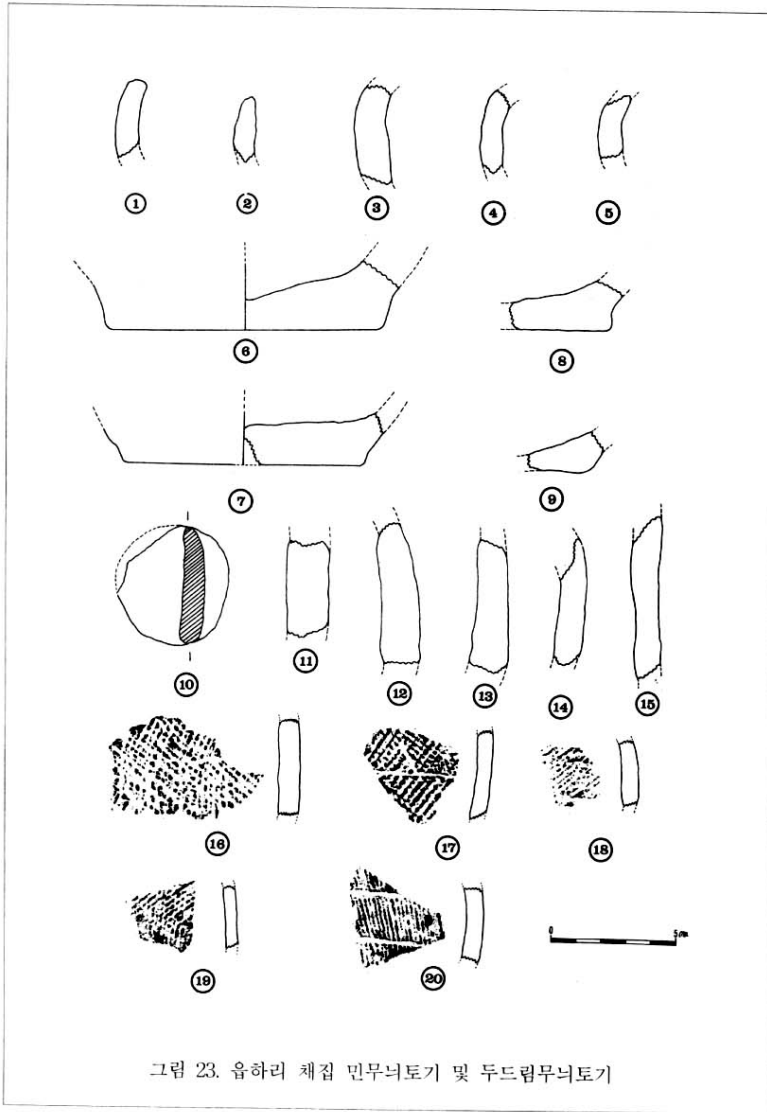


그림 23. 읍하리 채집 민무늬토기 및 두드림무늬토기



사진 1. 부동리 I 구석기유적



사진 2. 부동리 I 구석기유적 조사모습



사진 3. 부동리 I 채집 팔매돌



사진 4. 부동리 I 채집 팔매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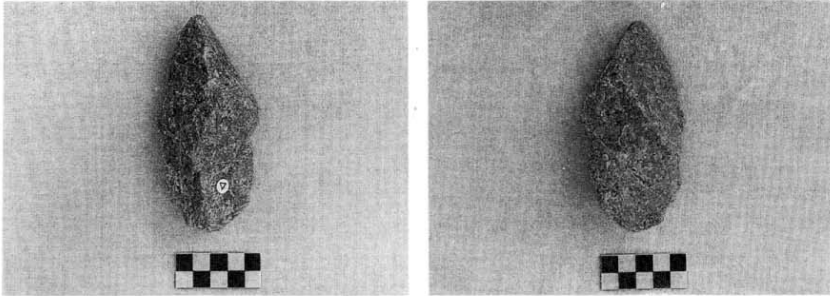


사진 5. 부동리 I 채집 주먹도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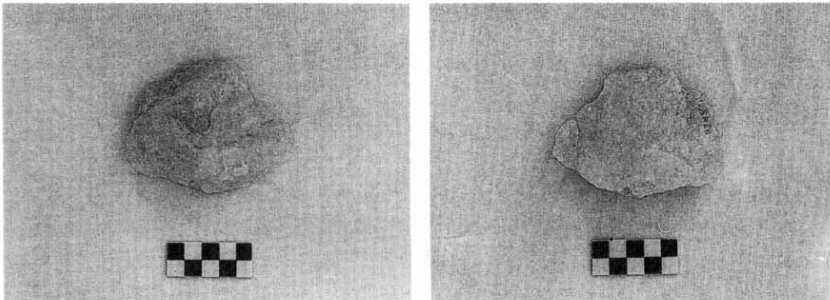


사진 6. 부동리 I 채집 찍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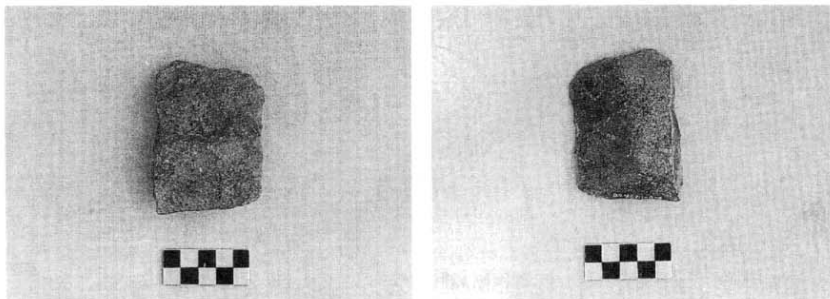


사진 7. 부동리 I 채집 찍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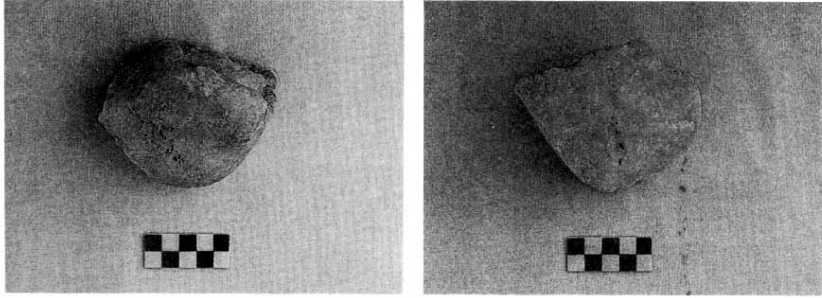


사진 8. 부동리 I 채집 찍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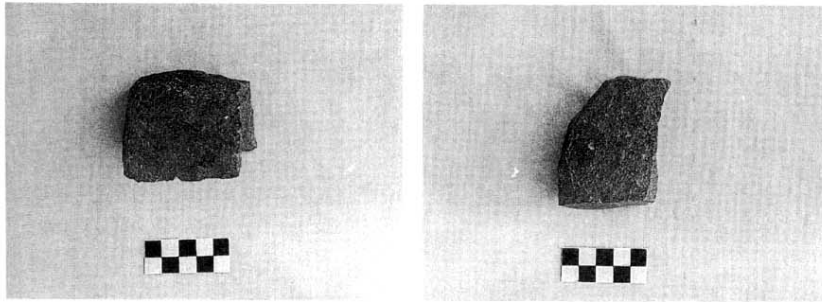


사진 9. 부동리 I 채집 대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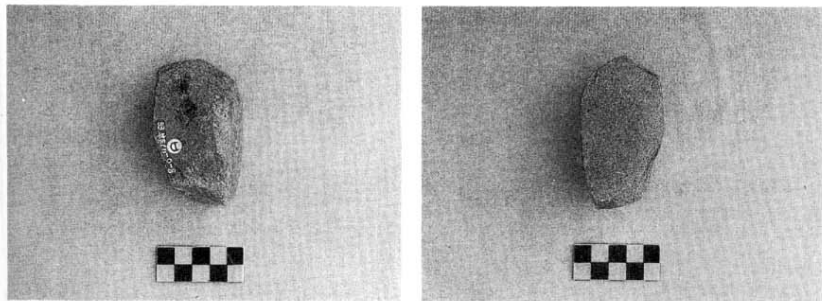


사진 10. 부동리 I 채집 금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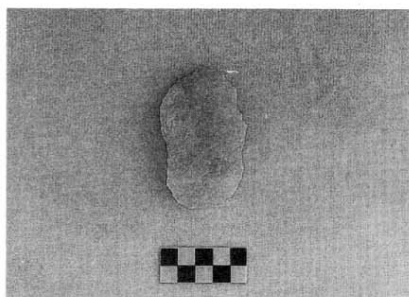


사진 11. 부동리 I 채집 굽개



사진 12. 부동리 I 채집 찌르개



사진 13. 부동리 I 채집 망치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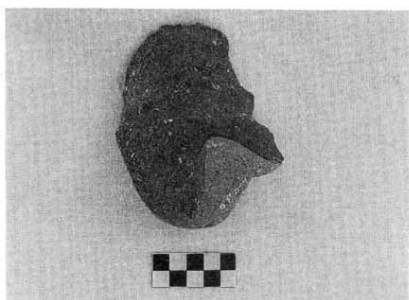


사진 14. 부동리 II 채집 찌르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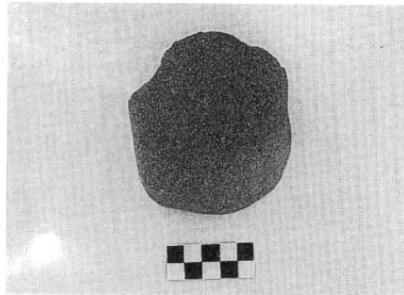


사진 15. 부동리Ⅱ 채집 찍개



사진 16. 부동리Ⅱ 채집 굽개



사진 17. 화진리 구석기유적



사진 18. 화진리 구석기유적 조사모습





사진 19. 화전리 채집 찍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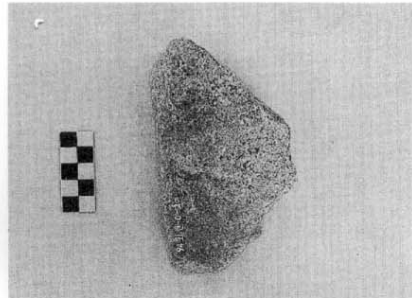


사진 20. 화전리 채집 찍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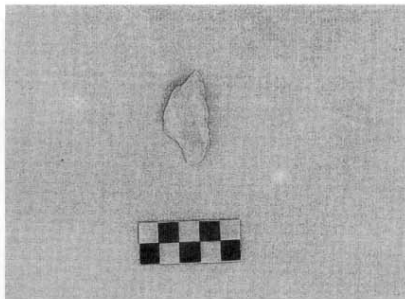


사진 21. 화전리 채집 새기개



사진 22. 화전리 채집 달된연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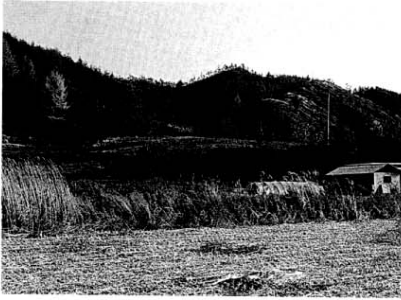


사진 23. 현천리 구석기유적 원경



사진 24. 현천리 구석기유적 전경



사진 25. 현천리 채집 주먹도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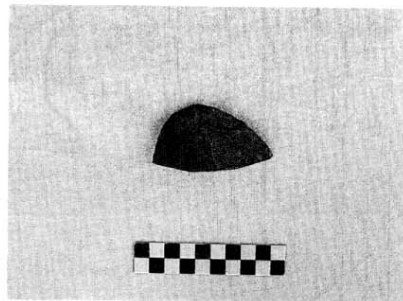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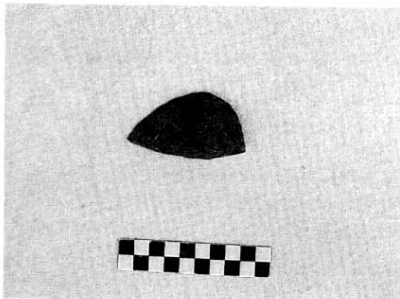


사진 26. 현천리 채집 부러진 석기



사진 27. 현천리 채집 탈된연모



사진 28. 안흥 1리 구석기유적 전경



사진 29. 안흥 3리 구석기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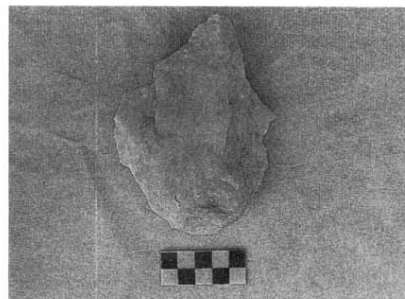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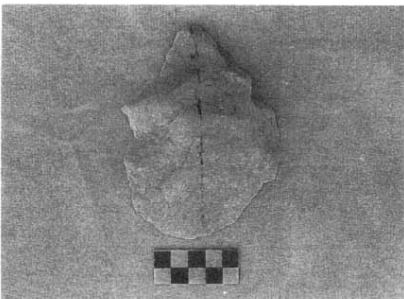


사진 30. 안흥 1리 채집 주먹도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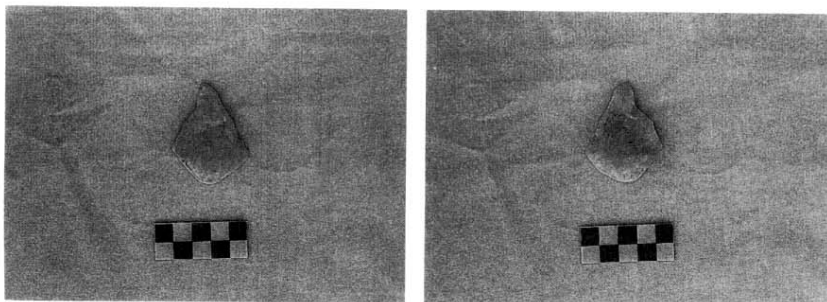


사진 31. 안흥 1리 채집 무르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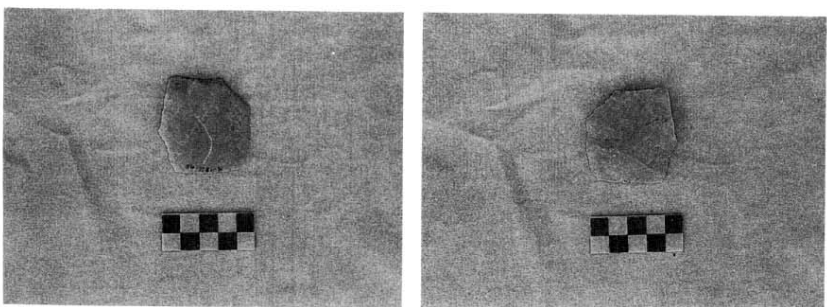


사진 32. 안흥 1리 채집 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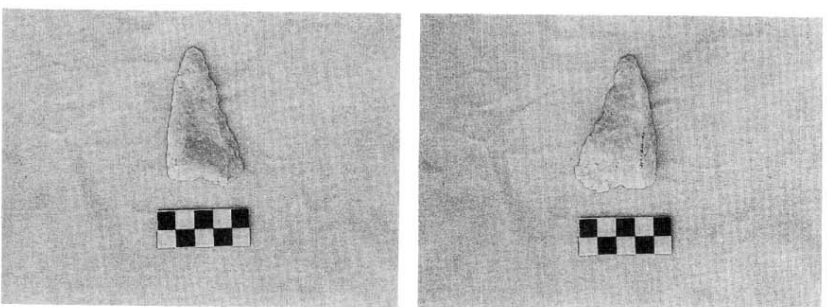


사진 33. 안흥 1리 채집 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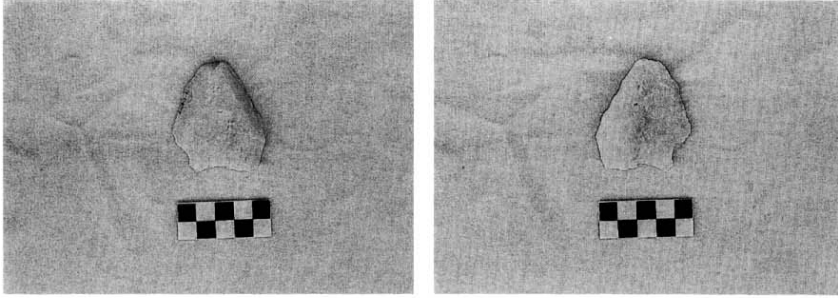


사진 34. 안흥 1리 채집 금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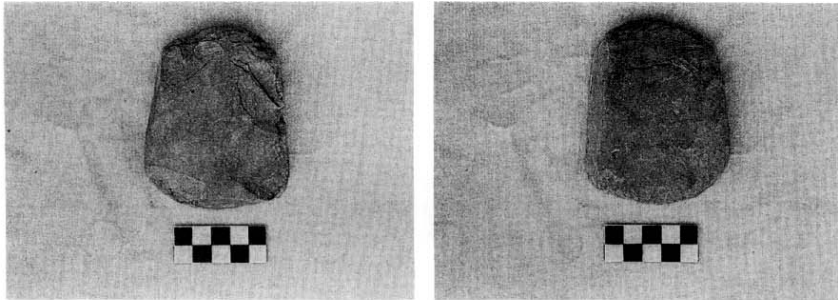


사진 35. 안흥 3리 채집 찍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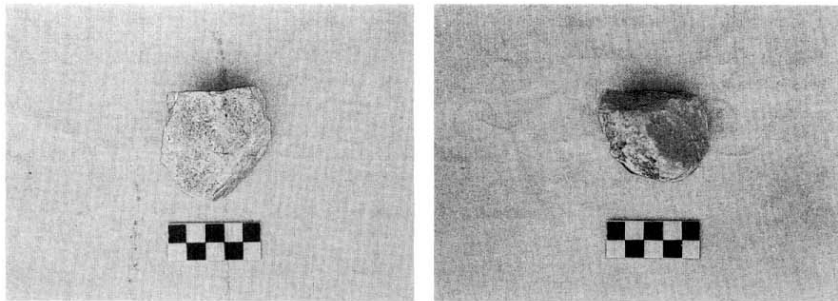


사진 36. 안흥 3리 채집 금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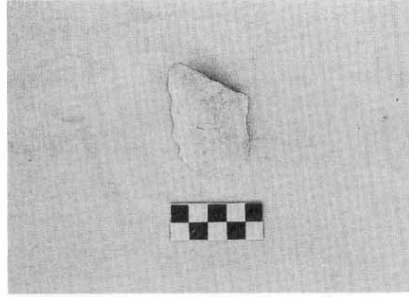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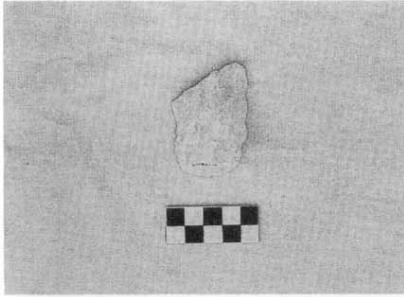


사진 37. 안흥 3리 채집 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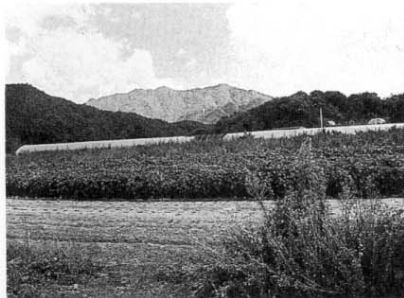


사진 38. 중금리 빗살무늬·민무늬토기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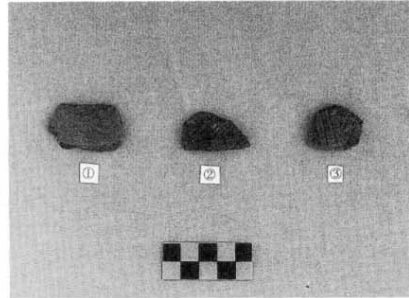


사진 39. 중금리 채집 빗살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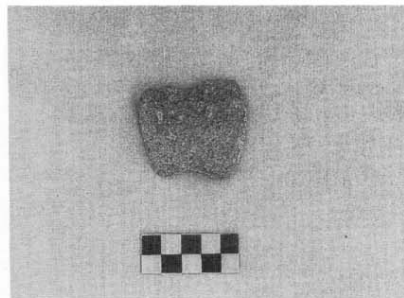


사진 40. 중금리 채집 돌그물추



사진 41. 중금리 채집 보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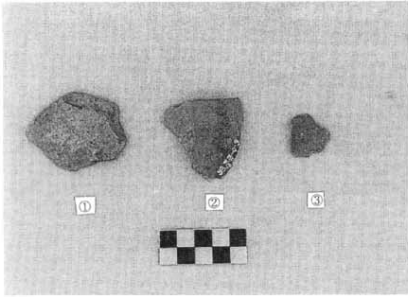


사진 42. 중금리 채집 민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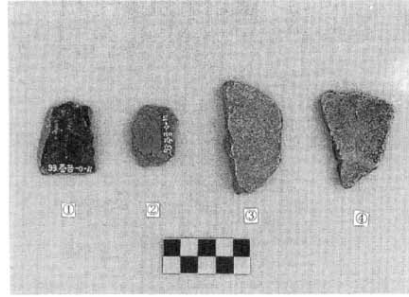


사진 43. 중금리 채집 민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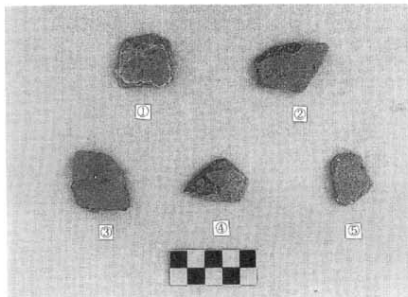


사진 44. 중금리 채집 민무늬토기



사진 45. 중금리 1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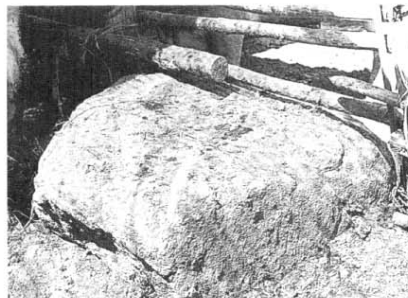


사진 46. 중금리 2호 고인돌



사진 47. 중금리 3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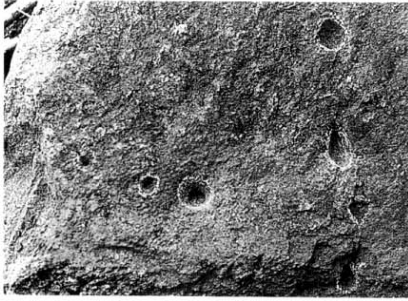


사진 48. 중금리 3호 고인돌 성형 모습



사진 49. 화전리 민무늬토기 산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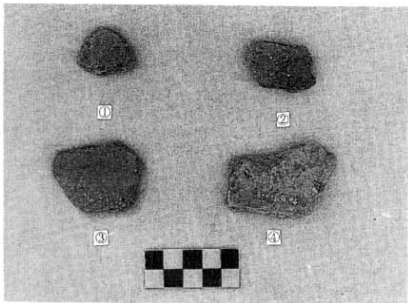


사진 50. 화전리 채집 민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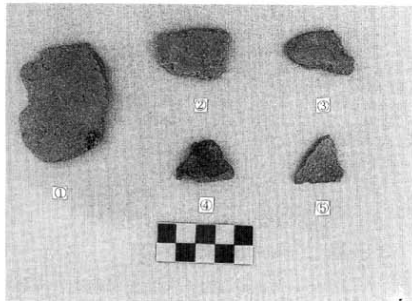


사진 51. 화전리 채집 민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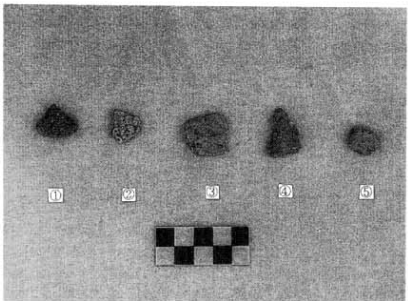


사진 52. 화전리 채집 민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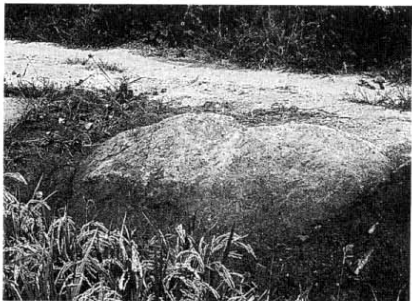


사진 53. 화전리 1호 고인돌





사진 54. 화전리 2호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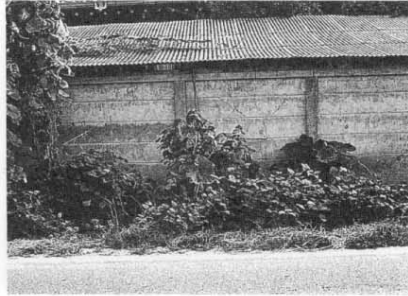


사진 55. 구방리 간돌화살촉 출토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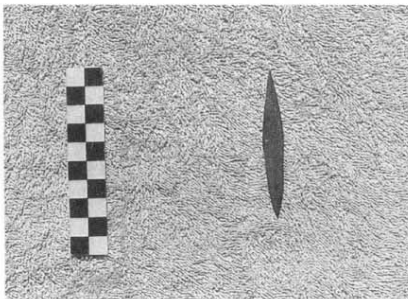


사진 56. 구방리 출토 간돌화살촉



사진 57. 유동리 1호 고인돌



사진 58. 유동리 2호 고인돌



사진 59. 유동리 3호 고인돌



사진 60. 유동리 고인돌 실측 조사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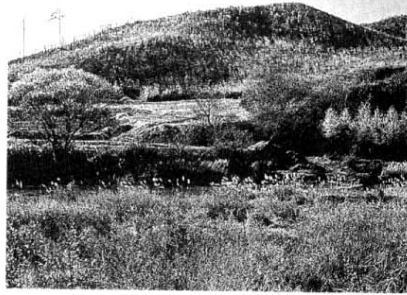


사진 61. 조항리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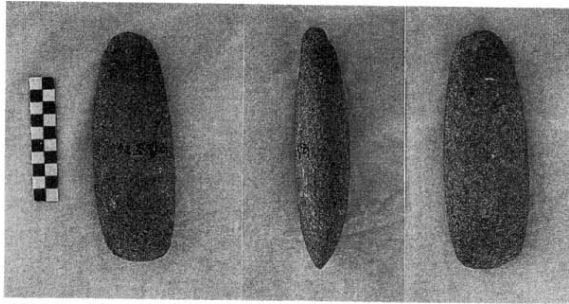


사진 62. 조항리 출토 간돌도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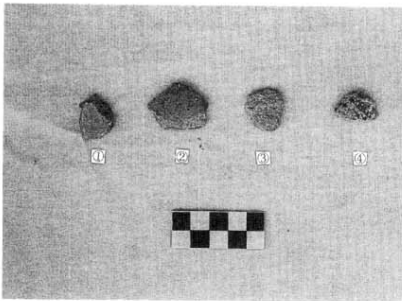


사진 63. 유동리(㉠)·조항리(㉡~㉣)채집  
민무늬도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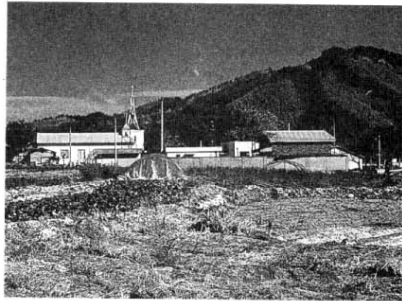


사진 64. 강림리 유적 전경



사진 65. 개전리 선돌·민무늬토기 산포지



사진 66.  
개전리  
서쪽 선돌



사진 67.  
개전리  
동쪽 선돌



사진 68. 채석장으로 추정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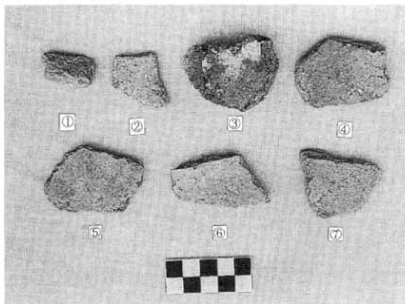


사진 69. 개전리 채집 민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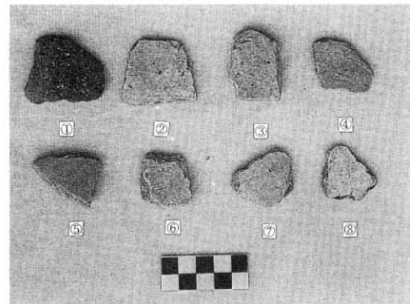


사진 70. 개전리 채집 민무늬토기



사진 71. 부동리 초기철기시대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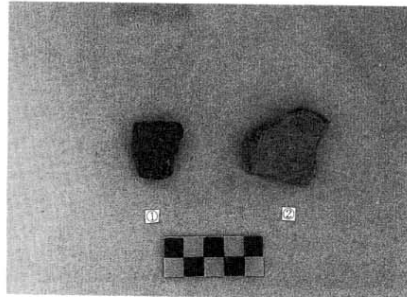


사진 72. 부동리 채집 두드림무늬토기



사진 73. 둔방내리 1호 집자리 광 노출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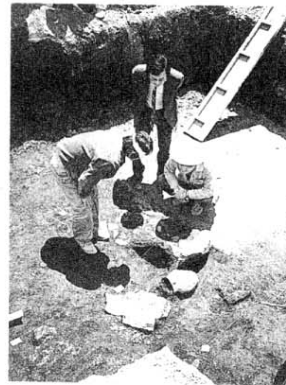


사진 74.  
둔방내리  
2호 집자리  
불똥자리



사진 75. 둔방내리 3호 집자리 모습



사진 76.  
둔방내리  
출토  
민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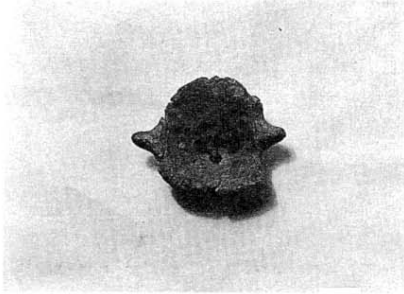


사진 77. 둔방내리 출토 소형토기(시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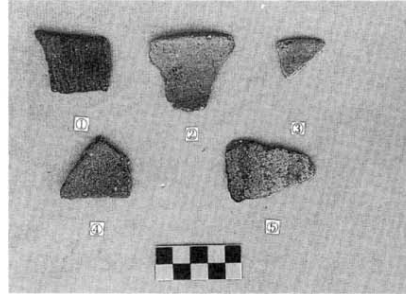


사진 78. 둔방내리 채집 두드림무늬토기  
(①)·민무늬토기(②~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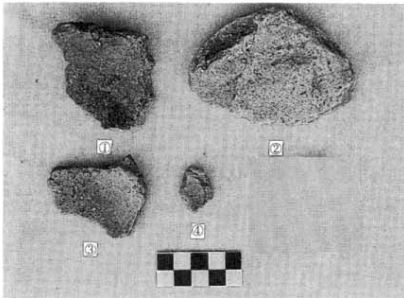


사진 79. 둔방내리 채집 민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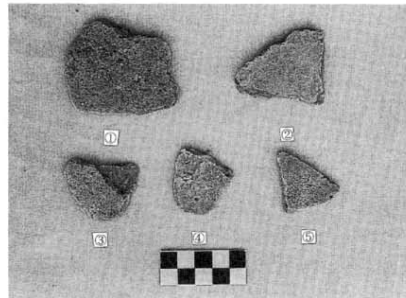


사진 80. 둔방내리 채집 민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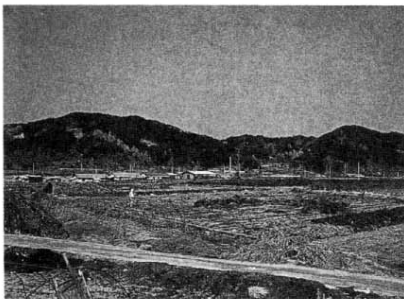


사진 81. 읍하리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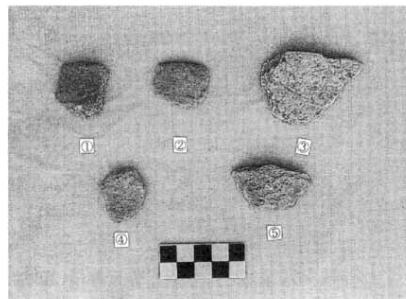


사진 82. 읍하리 채집 민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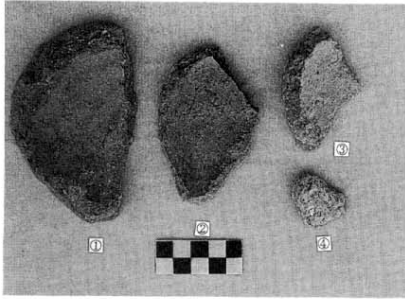


사진 83. 읍하리 채집 민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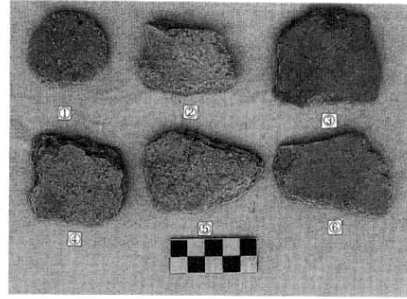


사진 84. 읍하리 채집 민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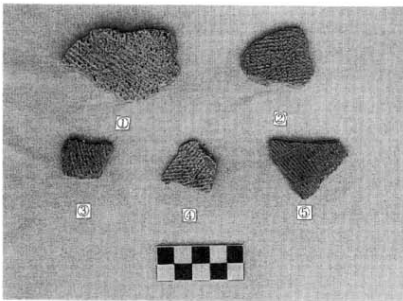


사진 85. 읍하리 채집 두드림무늬토기



사진 86. 갑천고등학교 소장 반달돌칼



사진 87. 영랑리 통일신라고분 전경



사진 88. 영랑리 통일신라고분 조사모습

---

## 橫城郡의 佛教遺蹟

---

鄭 然 雨 (江原道 文化財專門委員)

I. 概 要	124
II. 調查內容	126
1. 法興寺址	126
2. 普光寺	127
3. 石泉寺址	128
4. 正菴里寺址	129
5. 橋項里寺址	129
6. 邑上里寺址	130
7. 紫芝寺址	131
8. 邑下里石佛坐像	131
9. 邑下里三層石塔	132
10. 邑下里石塔材	133
11. 開元寺址	133
12. 屯坊 1里 안창말寺址	134
13. 屯坊內里 샘골寺址	135
14. 中金里寺址	135
15. 鳳腹寺	137
16. 新岱里寺址	139
17. 上洞里寺址	140
18. 公根里寺址	142
19. 懷眞寺址	143
20. 水白里 佛像 및 光背	143
21. 覺林寺址	144

## 橫城郡의 佛敎遺蹟

### I 概要

횡성지역에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大刹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찰들이 朝鮮時代에 이르러 廢寺됨에 따라 寺址와 寺址에 남아있는 石塔·石佛 등의 石造物이 불교유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寺刹로서 오랜 전통을 갖고 현재까지 法燈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鳳腹寺가 유일하나 이 사찰 또한 1907년 燒失되어 古刹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횡성지역에는 비록 寺名을 알 수 없으나 統一新羅時代의 雙塔을 갖고 있는 中金里寺址를 비롯하여 上洞里寺址, 覺林寺址 등 통일신라시대 이후 많은 사찰들이 건립되었다. 이 중 각림사지는 조선 태종과 관련되어 《太宗實錄》과 《世宗實錄》 地理志를 비롯한 古文獻에 많은 기록이 남아 있으며, 奉福寺(鳳腹寺)·懷眞寺·開元寺·法興寺(南山寺)·石泉寺·舞仙庵 등은 비록 단편적이지만 《梵字攷》와 《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한 각종 地理誌에 寺名, 位置, 存廢與否 등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지역의 불교유적에 대한 조사는 1942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朝鮮古蹟寶物 調査資料》와 1977년 문화재관리국에서 간행한 《文化遺蹟總覽》에 전반적인 현황이 간략히 소개되어 있으며, 1960년대 중반 鄭永鎬에 의해 일부 석조유물들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후 1983년 辛鍾遠·鄭敏和에 의해서 瓦片을 중심으로 한 寺址調査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 조사는 文獻記錄의 빈약함을 크게 보완해 주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의 조사보고들을 중심으로 횡성지역 불교유적들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그 동안의 변화된 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古文獻을 비롯하여 《한국지명총람》과 地圖 등에 나타난 地名들을 참고하여 미확인된 寺址와 유물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寺址들이 山間地域에 소재하고 있어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현지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일부 寺址와 유물들은 기존에 조사보고된 내용을 인용하였고, 寺刹은 1945년 이전에 創建된 것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橫城郡內의 佛敎遺蹟은 寺刹 2個所, 寺址 15個所, 石



塔 6基, 石佛 3軀, 浮屠 9基, 其他 石造物 2點 등이었는데, 邑面別 順序에 따라 사찰과 사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석탑·석불·부도등의 유물들은 해당 항목에서 함께 다루었다.

현지 조사시 둔내면의 寺址를 안내해 준 변창수선생(屯內高 歷史教師)과 瓦片 拓本을 맡아준 김상태선생(江原大 大學院 史學科 博士課程)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조사를 진행하고 報告書를 作成하는데 참고한 文獻은 다음과 같다.

- 1) 《太宗實錄》(1431)
- 2) 《世宗實錄》地理志(1454)
- 3) 《東國輿地勝覽》《新增東國輿地勝覽》(1481, 1530)
- 4) 《輿地圖書》(1759)
- 5) 《梵宇攷》(1799)
- 6) 《橫城邑誌》(1826)
- 7) 《關東誌》(1830)
- 8) 《關東邑誌》(1871)
- 9) 《江原道誌》(1940)
- 10) 《朝鮮古蹟寶物調查資料》(1942, 朝鮮總督府)
- 11) 《한국지명총람》강원도편(1967, 한글학회)
- 12) 《太白的 邑面(上)》(1975, 강원일보사)
- 13) 《文化遺蹟總覽》(1977, 文化財管理局)
- 14) 《橫城郡誌》(1986, 橫城郡)
- 15) 《重要發見埋藏文化財圖錄》第1輯(1989,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 16) 《重要石造文化財實測調查報告書》(1990, 江原道)
- 17) 《江原道鄉校書院寺刹誌》(1992, 江原道)
- 18) 《전통사찰총서 1》강원도 2 1(1992, 사찰문화연구원)
- 19) 《江原文化財大觀》江原道指定篇(1993, 江原道)
- 20) 《原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1994, 江原鄉土史硏究會)
- 21) 《횡성댐 수몰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1994 강원대학교)

- 22) 鄭永鎬, 〈橫城邑內的 塔像〉《考古美術》第5卷 第12號 韓國美術史學會, 1964.  
 , 〈橫城 上洞里的 塔像〉《考古美術》第6卷 第1號 韓國美術史學會, 1965.  
 \_\_\_\_\_, 〈中金里 雙塔과 新垆里 石塔〉《考古美術》第6卷 第5號 韓國美術史學會,  
 \_\_\_\_\_ 1965.  
 \_\_\_\_\_, 〈橫城 橋項里出土 高麗銅鐘〉《考古美術》第6卷 第6號 韓國  
 \_\_\_\_\_ 美術史學會, 1965.
- 23) 李浩官, 〈橫城出土 靑銅製小鐘과 무쇠솥〉《考古美術》第6卷 第2號 韓國美術史  
 學會, 1965.
- 24) 辛鍾遠·鄭敏和 〈橫城郡內 寺址調查〉《江原文化研究》第3輯, 江原大學校  
 江原文化研究所, 1983.

## II. 調查內容

### 1. 法興寺址 (사진 1~5)

● 所在地：橫城邑 南山里 은행나무골

● 沿革 및 遺蹟現況

이 寺址는 法興寺의 옛터로서 황성읍 남산리의 은행나무골(또는 절골)이라고 불리우는 南山(현재의 德高山) 서북쪽 기슭의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찰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法興寺 在南山'으로 《梵宇攷》에는 '法興寺 今廢, 南山寺 在縣南六里'로 《輿地圖書》에는 '南山寺 在縣南六里三房'으로, 《關東誌》에는 '南山寺 在縣南六里三房今爲單房'으로 《橫城邑誌》와 《關東邑誌》에는 '南山寺 在縣南六里單房'라고 기록되어 있어, 조선중기 이후 法興寺가 폐사된 뒤 南山寺가 그 法燈을 이어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sup> 현재 寺址에는 이 사찰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듯 한 그루의 큰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 남쪽으로 잣나무가 밀집된 곳이 建物址인데 길이 약 20m, 높이 1.5m 石築과 柱礎石으로 보이는 石材들이 남아 있다. (사진

1) 辛鍾遠·鄭敏和, 〈橫城郡內 寺址調查〉《江原文化研究》第3輯, 江原大學校 江原文化研究所, 1983. pp. 61~62.

1~4). 1977년에 간행된 《文化遺蹟總覽》에 의하면 당시 이 곳에는 浮屠 5기와 멧돌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140×134cm 크기의 멧돌 1點(사진 5)은 남아 있으나 부도는 남아있지 않으며, 남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普光寺에 2基(사진 7·8)가 전해질 뿐이다.

이 곳에서 발견되는 瓦片들은 樹枝文(답본 1-①·②) 과 幾何學的 文樣(답본 1-③~6, 2-①·②)의 平瓦片들이 주류를 이루며 '大' '甲' 字가 陽刻된 막새기와편(답본 2-③)이 일부 보이고 있다. 이 사찰은 출토되는 瓦片들로 볼 때 적어도 고려시대에는 創建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2. 普光寺(사진 6)

● 所在地 : 橫城邑 南山里 산16-5

● 沿革 및 遺蹟現況

보광사는 1934년 姜大熙에 의해 건립된 사찰로서 당시에는 寮舍 1棟뿐이었으나 이후 普門殿(1949), 三聖閣(1961), 東別堂(1978)등이 차례로 건립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寺名도 처음에는 南山寺라 하였으나 1961년 普光寺로 개칭되었다. 현재 입구에는 浮屠 2基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도들은 보광사를 重創한 1949년에 동북쪽으로 약 1km지점에 위치한 法興寺址에서 옮겨온 것이다.

### 1) 普光寺 浮屠(사진 7)

圓堂形 浮屠로, 地臺石은 長方形의 자연석인데 원래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基壇部와 塔身部를 1石으로 만들었는데, 基壇은 方形이지만 각을 죽여 8角처럼 되어 있다.

기단의 모서리에는 隅柱를 模刻하고 사방의 긴 면 중앙에도 당주를 모각했으며, 下臺石에는 14葉의 蓮花文을 조각하고 사이마다 間瓣을 배치했다. 塔身은 抹角方形인데 위로 갈수록 폭을 줄여 만들었다.

屋蓋石과 相輪도 방형으로 각각 1석으로 만들었으며, 마치 옥개석을 중첩시켜 놓은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塔身보다 폭이 넓고 두터워 균형감을 잃고 있다. 花崗岩 製로 총 높이는 132cm이다.

2). 普光寺 浮屠(사진 8)

타원형의 地臺石 위에 鐘形塔身을 올린 石鐘形 浮屠로, 지대석은 윗면에 1단의 받침을 두고 받침 주위에는 單瓣11葉의 連花文을 배치했다. 탑신은 하단과 상단에 單瓣 11葉의 連花文帶를 조출했고, 탑신 중앙에는 銘文이 陰刻되어 있으나 마멸이 심해 판독하기 어렵다.

상륜부는 寶珠形으로 하단에는 5엽의 연화문을 두고 그 사이에도 間瓣을 배치했다. 花崗岩製로 총 높이 110cm, 탑신 높이 88cm, 상륜 높이 88cm, 지대석 폭 62×68cm이다.

3. 石泉寺址(사진 9~13)

● 所在地 : 橫城邑 靑龍里 石田部落

● 沿革 및 遺蹟現況

이 寺址는 횡성읍 청룡리 석전부락에서 동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진 南山(현재 德高山) 기슭에 위 2치한다. 이곳은 현재 '절터골' 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自然部落名인 '石田' 이 寺名인 '石泉' 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新增東國輿地勝覽》에 '石泉寺在南山' 으로 《梵字攷》에 '石泉寺在南山今廢' 로 《江原道誌》에 '石泉寺在南山' 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곳이 石泉寺址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寺址는 논과 밭으로 경작되었으나 현재 잡초가 무성한 상태이며, 서쪽편으로 높이 4.5m길이 15m의 石築이 남아 있는데 원래는 길이 30m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지나 동쪽부분이 무너져 있다. (사진 11) 이 석축의 위에는 120평 정도의 平地가 조성되어 있으며, 柱礎石으로 보이는 3개의 돌이 2.5m와 5m간격으로 남아있다. (사진 12) 寺址 서쪽 구릉의 능선 위에는 碑의 蓋石처럼 생긴 石物 1點이 남아 있는데 크기는 80×67×40cm이다. (사진 13)

이 곳에서 발견되는 瓦片들은 樹枝文(답본2-④~⑦)과 幾何學的 文樣(답본3-①-⑥)이 대부분이며 梵字(답본3-①)와 '因戒' 가 左書로 陽刻된 平瓦片(답본3-⑦)도 일부 보이고 있다.

이 사찰은 출토되는 瓦片들로 볼 때 적어도 고려시대에는 創建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지며, 《新增東國輿地勝覽》을 편찬할 당시까지는 존속하였으나 《梵字攷》가 편찬되는 18세기 후반이전에는 廢寺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전부락으로부터 약 700m를 내려온 청룡리 2반 새마을구판장 뒤의 느티 나무 아래에는 이 寺址에서 옮겨 왔다고 전하는 맷돌 1점(60×40×20cm)이 남아 있다. (사진14)

#### 4. 正菴里 寺址 (사진 15)

● 所在地：橫城邑 正菴3里 望白部落

● 沿革 및 遺蹟現況

正菴3里 望白部落에 소재한 황성레포츠공원의 남쪽계곡에 위치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절터골로 부르고 있다. 《朝鮮古蹟寶物調查資料》에 높이 약2尺 5寸의 石佛坐像이 있었다고 하는데 1977년 간행된 《文化遺蹟總覽》에는 와편만이 산재하고 석불 좌상은 없어졌다고 되어 있어 이미 오래전에 搬出된 것으로 보인다.

寺址에서 건물지로 추정되는 부분은 3개소인데 그 중 아랫부분은 논으로 경작되었으나 현재 잡초가 무성하고 윗부분에는 石築 2개소가 남아있다.(사진 16). 석축은 대부분 붕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흙에 묻혀 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며 그 사이에 趙邦漢의 부인 平山申氏(1860~1933)의 墓가 있다. 寺址에 散在된 瓦片들은 무늬가 없는 平瓦들이 대부분이며, 幾何學的 文樣을 갖는 2종류의 平瓦片(탑본4-①·②)들로 볼 때 조선시대의 작은 암자터로 추정된다.

#### 5. 橋項里 寺址

● 所在地：橫城邑 橋項里

● 沿革 및 遺蹟現況

이 寺址에는 三層石塔이 있었으나 군청뒤의 3·1공원 입구에 移轉되어 있으며(사진23) 1964년 4월 12일 靑銅梵鍾(사진 17)을 비롯하여 土器瓶 2점(사진 18), 토기호 2점(사진19), 鐵釜 1점이 출토된 바 있다.<sup>2)</sup>이 銅鐘은 현재 國立中央博物館에 보관(新1439)되어 있는데 높이 63.7cm, 口徑 41cm 크기의 高麗末期 동종으로 《重要發見埋藏文化財圖錄》에 실린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3)</sup>

2) 鄭永鎬, 〈橫城 橋項里出土 高麗銅鐘〉《考古美術》第6卷 第6號, 韓國美術史學會, 1965.

3)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重要發見埋藏文化財圖錄》第1輯, 1989. p371.

이 종은 전체모습에 있어서는 고려종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나 세부를 살펴볼 때 그 전형에 22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하대에는 보편적인 唐草文 계통의 문양대신에 마름모꼴 문양들을 배치하였다. 또한 상대에 붙어있던 유곽이 분리되었으며 乳頭는 9개를 전형으로 하던 것이 12개로 늘어나고 있다. 이 유곽 밑으로는 4개의 연화당좌를 하대 가까이 배치하고 그 사이사이에는 머리 위로 무엇인가를 떠받친 자세로 쭈그러 앉은 像을 부조하였는데 이것도 이전의 종에서 비천이나 보살상을 위주로 하였던 점과는 차이가 있다. 이 부조 중 용머리 쪽의 것 옆에 당초문대로 廓이 형성되어 있으나 명문이나 다른 문양이 보이지 않는다. 종의 어깨 부분에 蓮華立飾을 돌리고 그 안으로 입과 오른발에 여의주를 지닌 용으로 뉴를 이루며 비록 막혀 있으나 音筒을 세운 것은 아직 고려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종의 선이나 세부조각이 뾰뚱하고 조락하여 고려말의 기술적 퇴보를 알 수 있다.

## 6. 邑上里 사지

㉠ 所在地：橫城邑 邑上里 150

㉡ 沿革 및 遺蹟現況

이 寺址에서는 1964년 11월 25일 靑銅梵鍾(사진20)을 비롯하여 鐵鼎 2점, 靑銅 香奩 1점, 靑磁蓋 1점 등 여러점의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sup>4)</sup> 이 銅鐘은 현재 國立中央博物館에 보관(新1083)되어 있으며 높이 33.8cm, 口徑 23.2cm 크기의 高麗後期 동종으로 《重要發見埋藏文化財圖錄》에 실린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5)</sup>

원통과 같이 밋밋하게 뿔어내린 모습의 종이다. 당초문으로 이루어진 上·下帶와 乳廓帶가 있고 유곽에는 꽃잎꼴이 뾰족한 꽃받침을 지닌 乳頭가 9개 있다. 종의 크기에 비해 다소 커보이는 4개의 유곽들 사이에는 菩薩坐像과 飛天이 교대로 배치되어 있고 그 사이에 다시 육각형의 撞座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세부조각들은 매우 형식화되었으며, 이러한 조각수법은 音筒과 龍鈕조각에서도 확인된다. 종의 어깨부분에 삼각형에 가까운 蓮瓣들이 마치 冠과 같이 있고, 그 안에 파손되어 나즈막한 音筒에 등을 기댄 용이 사실감보다는 고리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어 형식화된 모습으로 놓여 있다. 벌린 입사이로 길게 내민 혀 위에 작은 구슬이 올려져 있고 왼발에는 透刻된 구슬이 들려있다. 전체적으로 조각수법이나 형태미가 많이 퇴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고려 하대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李浩官, 〈橫城出土 靑銅製小鐘과 무쇠솥〉《考古美術》第6卷 第2號, 韓國美術史學會, 1965.

5)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 p372.

## 7. 紫芝寺址

① 소재지 : 橫城邑 玉洞里

② 沿革 및 遺蹟現況

이 사지는 옥동리 동북쪽에 위치한 國土峰(해발 499m)의 서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1983년 辛鍾遠·鄭敏和에 의해 조사보고된 바 있는데, 사지에는 윗면이 평평한 자연석위에 지름 14cm, 깊이 17cm의 구멍을 판 석물이 있고 조선시대의 기하학적 문양들이 있는 평와편이 산재되어 있다고 한다.<sup>6)</sup>

## 8. 邑下里 石佛坐像 (사진 22)

① 所在地 : 橫城邑 邑下里 58-1

② 沿革 및 遺蹟現況

이 佛像은 石塔 2基와 함께 興성군청 뒤편의 3·1공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사진 21), 원래는 興성군 공근면 상동리에 있던 것을 日帝때 옮겨온 것으로, 《朝鮮古蹟寶物調査資料》에 '公根面 下土洞里(현재 上洞里) 鶴谷部落 西北方 山麓에 있다'고 되어 있고, 1964년 鄭永鎬에 의해 소개된 바 있다.<sup>7)</sup> 江原道有形文化財 第22號로 지정되어 있으며, 臺座와 光背를 모두 갖춘 毘盧舍那佛坐像으로 대좌가 方形인 점이 특이하다.

불상의 머리는 髻髮로 작은 육계가 있고 相好는 원만한데 코와 입술 등은 약간 磨損되어 있으며, 목은 三道가 없이 짧고 두툼하다. 法衣는 右肩偏袒인데, 등 뒤로 걸친 옷자락 하나가 오른쪽 어깨를 살짝 거쳐 다시 등 뒤로 흘러 마치 通肩衣처럼 보이며, 무릎까지 덮고 있는 옷주름은 두텁고 형식적으로 조각되어 있다. 手印은 두손을 가슴에 모아 智拳印을 結하고 있는데 왼손은 온전하나 위에 얹은 오른손은 파손되어 있다.

臺座는 모두 方形으로 上臺石은 아래에 8葉重瓣의 仰蓮을 조각했고, 中臺石은 각면에 眠象을 마련하였는데 안상의 내부에는 地線으로부터 花形이 솟아 있다. 下臺石

6) 辛鍾遠·鄭敏和, 앞의 논문, p63.

7) 鄭永鎬, 〈橫城邑內的 塔像〉《考古美術》 第5卷 第12號, 韓國美術史學會, 1964.

은 윗면에 상대석과 같이 8엽중판의 覆蓮을 조각하는데 각 모서리에는 귀쫓이 솟아 있고, 하대석의 측면에는 각 면마다 3개씩의 안상을 陰刻하여 놓았다.

광배는 舟形으로 윗부분이 약간 파손되었는데 周緣은 雲文과 火焰文 등으로 流麗하게 장식하였으며, 頭光은 圓形의 굽은 선을 陽刻하고 그 내부에 8엽의 蓮瓣을 배치하였으며 그 사이의 공간에는 寶相華文을 조각하였다. 化佛은 두광 위의 좌우에 1軀씩 배치하였는데 그 위에도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파손되어 알 수 없다. 광배의 下端에는 두광을 표시한 立像 2軀를 양각하여 三尊의 형식을 취했는데 왼쪽의 것은 일부분이 깨져 나갔다.

이 불상은 黑雲母花崗岩으로 만들어 졌는데, 상호, 의문, 광배 및 좌대 등의 조각 수법으로 볼 때 고려 초기에 造成된 것으로 보인다. 크기는 불상이 높이 91cm, 머리 높이 29cm, 佛身 높이 62cm, 어깨폭 43cm, 다리폭 59cm이며, 대좌는 상대석 높이 20.5cm, 폭 70×71.5cm, 중대석 높이 26.5cm, 폭 39cm, 하대석 높이 17cm, 폭 71×75cm, 광배는 높이 125cm, 폭94cm, 하단의 두께 22cm이다.

#### 9. 邑下里 三層石塔 (사진 23)

㉠ 所在地：橫城邑 邑下里 58-1

㉡ 沿革 및 遺蹟現況

이 석탑은 佛像과 별도의 石塔材와 함께 璿성군청 뒤편의 3·1공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사진 21) 璿성읍 교항리에서 옮겨온 것이라 한다. 1964년 정영호에 의해 소개된 바 있고,<sup>8)</sup> 江原道 有形文化財 第23號로 지정되어 있다.

地臺石과 基壇部를 缺失하여 3개의 室身과 室蓋石만이 남았는데 옥신과 옥개석을 각각 1石으로 만들었다. 각층 옥신에는 양 隅柱가 模刻되어 있으며, 옥개석은 옥개받침이 모두 4段이고 落水面은 경사가 급하며 처마선이 밑선은 수평이나 윗선은 轉角에서 살짝 反轉되었는데 鈍厚한 모습이다. 옥신은 1층옥신보다 2층의 것이 1/3정도로 遞減되었으며 옥개석도 알맞게 체감되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3층 옥개석의 윗면에는 直徑 6cm정도의 둥근 구멍이 있고 찰주의 흔적으로 보이는 金屬製 附着物이 끼어 있다.

8) 鄭永鎬, 〈橫城邑內的 塔像〉《考古美術》第5卷 第12號, 韓國美術史學會, 1964.



이 탑은 黑雲母花崗岩으로 만들어졌으며 기단부의 구조를 볼 수 없어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옥개석의 조각수법으로 볼 때 高麗 中期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현재 총 높이 203.2cm, 1층옥신 높이 54.6cm, 폭 71cm, 1층옥개 높이 38cm, 폭 104.4cm, 2층옥신 높이 24cm, 폭 60.5cm, 2층옥개 높이 36cm, 폭 95.2cm, 3층옥신 높이 20.3cm, 폭 48.5cm, 3층옥개 높이 30.8cm, 폭 75.8cm이다.

#### 10. 邑下里 石塔材 (사진 24)

㉠ 所在地 : 橫城邑 邑下里 58-1

㉡ 沿革 및 遺蹟現況

이 塔材는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石佛坐像(제22호) 및 三層石塔(제23호)과 함께 鎭성군청 뒤편의 3·1공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사진 21.) 원래는 다른 곳에서 있던 것을 옮겨온 것인데 원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며, 현재 長明燈으로 보이는 석등의 옥개석으로 얹혀 있다.

3층의 옥개석은 옥개받침이 3단씩이고, 2층의 옥개석은 그 위층의 옥신과 1石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나머지 옥신은 없다. 옥개석의 조성수법으로 볼 때 고려후기의 석탑으로 보인다. 크기는 1층옥개석 높이는 24.5cm, 폭 75cm, 2층옥개석 높이는 23cm, 폭 63.5cm, 3층옥신 높이는 8cm, 폭 28cm, 3층옥개석 높이는 22cm, 폭 58cm이다.

#### 11. 開元寺址(사진 25~28)

㉠ 所在地 : 隅川面 鼎金里 쇠깎골

㉡ 沿革 및 遺蹟現況

우천면 정금리에서 서북쪽으로 2.5km 지점의 쇠깎골이라 불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鼎金山(海拔 494.6m)의 남쪽기슭이다. 이 寺址에 대하여는 《新增東國輿地勝覽》《梵宇攷》《江原道誌》에 '開元寺 在鼎金山'으로, 《橫城邑誌》《輿地圖書》《關東誌》에는 '開元寺 在縣北三十里單房'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寺址는 밭으로 경작되다가 묵히면서 잣나무가 심어져 있고, 廢家상태의 家屋 1棟이 있는데 이곳이 사찰의 金堂址로 추정된다.(사진26) 가옥 앞에는 石燈 下臺石

(사진 27)과 石塔材(사진 28)가 남아 있으며 주변에는 瓦片들이 散在하고 있는데 무늬가 없는 平瓦片들이 대부분이나 線條文(답본4-③), 樹枝文(답본4-④)을 비롯하여 幾何學的 文樣(답본 4-⑤·⑥)의 평와편들이 포함되어 있다. 開元寺는 寺址에 남아 있는 石造物과 선조문의 와편들로 볼 때 적어도 고려초기에는 창건되었으며, 廢寺의 시기는 《輿地圖書》와 《關東誌》의 기록과 지도에 현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關東邑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1800년대 중반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 1) 石燈下臺石(사진 27)

地臺石과 下臺石을 1石으로 만들었는데 하대석이 圓形을 이루는데 비하여 지대석은 方形이다. 하대석은 8葉의 覆瓣을 장식하였으며, 윗면에는 1단의 단을 두고 그 안에 방형의 우주석을 세우기 위한 구멍을 만들었다. 지대석 폭 121cm, 하대석의 下端 폭 103cm, 上端 폭 61cm, 간주석 구멍 폭 26cm, 깊이 14cm이다.

#### 2) 石塔材(사진 28)

석탑의 下臺中石으로 보이는데 하단과 상단에 1단씩의 받침을 두었고 兩隅柱와 1柱의 탕주가 모각되어 있다. 윗면에는 2단의 괴임을 彫出하여 上層基壇을 받도록 하였다. 폭 122cm, 높이 32cm이며, 윗면의 받침은 폭이 각각 74cm와 67cm로 아주 작은 탑이다. 이 塔材의 밑에는 長臺石 1점이 있는데 이 탑의 地臺石이거나 건물의 基壇石으로 추정되며 크기는 길이 174cm, 높이 35cm, 폭 50cm이다.

### 12. 屯坊 1里 안창말寺址

㉠ 所在地 : 屯內面 屯坊1里 안창말

㉡ 沿革 및 遺蹟現況

둔방1리 서북쪽에 있는 안창말의 절터골이라 불리는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잡목에 쌓여 있어 현황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조선시대의 幾何學的 文樣이 있는 平瓦片이 산재되어 있으며, '계담도□시주금범'과 '천중동양도인여담' 등의 글자가 세로로 한 줄씩 반복된 평와가 상당수 나온다고 한다<sup>9)</sup>

9) 辛鍾遠·鄭敏和, 앞의 논문, pp64~65.

### 13. 屯坊內里 샘골寺址(사진 29~32)

● 所在地：屯內面 屯坊內里 샘골

● 沿革 및 遺蹟現況

영동고속도로에서 둔내면 소재지인 둔방내리로 들어가는 6번 국도의 서쪽에 샘골이라 불리는 계곡에 위치하며, 주민들에 의해 절터로 불리고 있으나 갈대와 잡목으로 덮여 있어 세부적인 모습을 전혀 알아볼 수 없다(사진 30). 현재 寺址에는 4~5개소 정도의 石築이 남아 있으나 대부분 흙에 묻혀 있으며, 瓦片 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사진 31·32).

### 14. 中金里 寺址(사진 33~36)

● 所在地：甲川面 中金里 484

● 沿革 및 遺蹟現況

중금리에서 '답둔지'로 불리는 곳의 발 가운데 東西로 약 8m의 거리를 두고 三層石塔 2基(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9호)가 서 있다.(사진 34)

이 寺址는 雙塔을 갖고 있는 伽藍配置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강원지역 뿐만 아니라 중부지역에서는 희귀한 예에 속한다.<sup>10)</sup> 이 寺址의 석탑에 대해서는 《朝鮮古蹟寶物調査資料》에 처음 소개된 후 1965년 정영호에 의해 소상하게 소개되었는데, 당시 西塔은 비교적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으나 東塔은 도괴되어 마을의 민가에 흩어져 있었다고 하며,<sup>11)</sup> 두 탑 모두 1974년에 해체복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탑의 북쪽과 서쪽에는 民家가 몇 채 있으며, 주변의 논과 밭에는 瓦片들이 散在하고 있는데 주로 線條文(탑본 5-①~⑤), 樹枝文(탑본 5-⑥·⑦)이 대부분이며, 幾何學的 文樣(탑본5-⑧~⑨)이 약간 보이고 있다.

이 寺址는 記錄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來歷을 밝힐 수 없으나 석탑과 산재된 瓦片들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고려시대까지 존속하였으며, 《世宗實錄》地理志 등의 문헌에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麗末鮮初의 瓦片들이 일부 보이는 점에서 朝鮮初期의 어느 시기에 廢寺된 것으로 보인다.

10) 강원도 지역에서 쌍탑은 이 탑 외에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에 소재한 상원사 삼층석탑이 있다.

11) 鄭永鎬, 〈橫城 中金里 雙塔과 新垵里 石塔〉《考古美術》第6卷 第5號, 韓國美術史學會, 1965.

1) 中金里東三層石塔(사진 35)

2층기단 위에 세운 三層石塔으로 倒壞되어 塔材가 주변과 인근의 민가 등지에 흩어져있던 것을 1974년에 수습하여 復元하였기 때문에 上臺中石의 일부는 다른 部材로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많은 損傷을 입었는데 특히 上臺甲石과 屋蓋石, 2층室身이 심하다.

현재 下層基壇은 묻혀 있어서 그 構造를 확인할 수 없으나 下臺甲石의 윗면에는 四分圓과 角形의 2段 괴임이 상대중석을 받치고 있다.

상대중석의 각 面은 1柱의 撐柱로 양분하고 2軀씩의 八部神像을 陽刻하였는데 동쪽의 2면과 북쪽의 1면은 복원시 다른 석재를 보완하여 모두 5軀만이 남아 있다. 상대갑석은 4枚石으로 아랫면에는 副椽이 있고, 윗면에는 사분원과 각형의 2단괴임을 두어 屋身을 받치고 있다.

塔身部는 각층 옥신이 1石씩으로 隅柱가 模刻되어 있다. 옥개석은 落水面이 平薄하고 처마선은 직선을 이루다가 轉角부분에서 살짝 反轉되어 경쾌한 모습을 보여주며, 옥개받침은 5段씩이고 윗면에는 2段의 받침을 두어 그 위층의 屋身을 받고 있다. 3층옥개의 윗면에는 지름 1.1cm, 깊이 15cm의 찰주공이 있으며, 露盤에는 지름 10.5cm의 둥근구멍이 관통되어 있다. 相輪部는 露盤과 覆鉢이 남아 있다.

이 탑은 전형적인 신라석탑의 양식으로 기단면석의 팔부중상과 옥개석 등 각 부분의 조각수법으로 볼 때 적어도 8세기말에서 9세기초의 것으로 보이며, 각 층의 遞減도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아담한 탑이다. 黑雲母花崗岩으로 만들었으며 현재 높이는 약 5m이다.

2) 中金里西三層石塔 (사진 36)

이 탑도 규모와 양식이 東塔과 같은데 각 부분에 다소의 磨損은 있으나 동탑에 비하여 비교적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下層基壇은 역시 묻혀 있어서 그 구조를 확인할 수 없다. 상대중석의 각면은 1주의 탱주로 양분하고 좌상인 팔부신상 2구씩을 양각하였는데 각 면석은 1매 혹은 2매석으로 짜여져 있어 모두 4매가 넘는다. 상대갑석은 4매석으로 부연이 있고 윗면에는 사분원과 각형의 2단 받침으로 옥신을 받고 있다.

탑신부는 각층 옥신이 1석씩이며 우주가 模刻되었다. 옥개받침은 5단씩이고 윗면

에는 2단의 받침으로써 그 위에 옥신을 받고 있는데 3층 옥개의 윗면과 노반에는 東塔과 같은 크기의 찰주공이 있다. 낙수면은 평박하고 전각의 반전도 경쾌한 모습이며 각 층의 체감도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아담한 탑이다.

#### 15. 鳳腹寺(사진 37~48)

① 所在地：晴日面 新垈里 138

② 沿革 및 遺蹟現況

봉복사는 청일면 신대리의 德高山(현재 泰岐山) 서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璿성군의 現存 寺刹 중에서는 가장 由緒 깊은 사찰로서, 이 사찰에 소장된 寺誌의 기록에 따르면 新羅 善德女王 16年(647)에 慈藏律師가 덕고산 신대리에 創建하고 三像을 造成奉安後 5층석탑을 조성하고 鳳腹寺라 칭했으며, 眞德王 6年(652)에 落水臺·天真菴 등의 암자를 지었고, 文武王9年(699) 燒失되어 同王 11년과 12년에 元曉祖師가 重建하였다고 한다. 고려 德宗3年(1034)에는 도솔암·落水庵이 소실되었고, 朝鮮 英祖 23年(1747)에는 瑞谷禪師가 봉복사 전부를 중건하였으며, 隆熙 元年(1907)에 전부 燒失되었다고 한다. 그 후에도 강원도 대부분의 사찰처럼 6·25때 완전히 전소된 뒤 소규모로 중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 절의 寺名은 《新增東國輿地勝覽》과 《梵宇攷》에는 '奉福寺 在德高山'으로, 《橫城邑誌》와 《輿地圖書》에는 '奉福寺 在縣北七十里五房'으로, 《關東誌》와 《關東邑誌》에서는 '鳳腹寺 在縣北七十里五房今爲單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에는 '奉福寺'로 불리다가 후에 '奉腹寺'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 절에는 法堂과 요사채로 함께 쓰이는 因法堂(사진 38)과 三聖閣, 國祠堂, 요사채 등 4棟의 건물이 남아 있으며, 사찰 주변에는 맷돌(사진39) 등 石造物과 瓦片들이 산재해 있는데, 瓦片들은 樹枝文(답본6-①~③)과 幾何學的文樣(답본6-⑤·⑥)의 平瓦片들로 고려시대로부터 조선시대의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조선시대의 甍막새기와편(답본6-④)도 1점이 收拾되었다. 사찰의 입구에는 浮屠群이 있는데 浮屠 7基와 碑石 1基가 일렬로 늘어서 있다.(사진 40).

모두 朝鮮後期의 부도로서 圓堂形이 3기, 石鐘形이 5기인데 이를 사찰쪽에서 가까운 것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鳳腹寺 浮屠 1 (사진 41)

이 부도는 당초 봉복사에 소재하고 있던 6기의 부도 외에 1988년 조성된 것으로 寺僧瑞雲이 入寂한 후 수습한 14顆의 舍利를 봉안하였다고 한다. 方形的 基壇 위에 蓮花文 받침을 두고 上端과 下端의 隅을 줄인 圓筒形 塔身 위에 8각의 屋蓋石을 얹은 간략한 모습이다. 총 높이는 143cm이다.

2) 鳳腹寺 浮屠 2 (사진 42)

圓堂形 浮屠로 瑞谷堂 榮淵(1702~1768)의 부도이다. 서곡당은 朝鮮 英祖 23年 (1747) 봉복사를 重建한 스님으로 봉복사와 水墮寺, 두 사찰에서 住錫하였으며 수타사에서 入寂하였는데 사리 2顆가 나와서 봉복사와 수타사에 하나씩 안치하였다. 현재 수타사에도 스님의 부도와 塔비가 남아 있다.<sup>12)</sup>

부도는 하대석을 缺失한 듯 地臺石 위에 바로 6각의 중대석을 놓았는데 중대석 하단에는 '瑞谷堂塔'이라는 銘文이 남아있다. 상대석 역시 6각으로 측면과 윗면에는 연화문을 배치하고 그 위에 球形의 塔身을 올렸다. 屋蓋石은 相輪部와 1石으로 만들었는데 역시 6각이며 鈍厚하고 塔身보다 커서 균형감을 잃고 있다. 총 높이 161cm로, 중대석 34cm, 상대석 23cm, 塔身 44cm, 옥개석(상륜 포함) 60cm이다.

3) 鳳腹寺 浮屠 3(사진 43)

鐘形 塔身에 작은 寶珠形 相輪을 1석으로 만든 石鐘形 浮屠로서 塔身 전면의 중앙에 '圓明堂塔'이란 銘文이 남아 있어 주인공을 알 수 있다. 총 높이는 106cm이고, 상륜 높이 13cm이다.

4) 鳳腹寺 浮屠 4(사진 44)

8각의 지대석 위에 중형 塔身을 올린 石鐘形 浮屠로 塔銘이 없어 누구의 부도인지 알 수 없다. 塔身은 圓形이나 중심부를 4각으로 평평하게 만들었으며, 상륜은 뾰족하게 만들었다. 총 높이는 145cm, 상륜 높이는 14.5cm이다.

5) 鳳腹寺 浮屠 5(사진 45)

중형 塔身 윗부분을 잘록하게 하여 상륜을 구분한 石鐘形 浮屠로서 塔身 전면의 중

12) 辛鍾遠·鄭敏和, 앞의 논문, p55.

양에 '西岩堂塔' 이란 명문이 남아 있어 주인공을 알 수 있다. 총 높이 130cm이고, 폭 70cm이다.

6) 鳳腹寺 浮屠 6(사진 46)

자연석 기단의 윗면에 원형의 탑신받침을 두고 그 위에 종형 탑신을 올린 石鐘形浮屠이며, 둥근 상륜은 작고 낮게 만들었다. 탑명이 없어 누구의 부도인지 알 수 없다. 총 높이는 130cm이며, 폭은 70cm이다.

7) 鳳腹寺 浮屠 7(사진 47)

圓堂形浮屠로 地臺石 위에 6각의 하대석을 1석으로 만들었는데, 하대석의 윗면에는 각면 3판씩 총 18판의 覆蓮을 조각했다. 중대석과 상대석은 6각으로 중대석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고 상대석의 측면에는 仰蓮을 두었는데 蓮瓣의 배치는 중앙에 1판의 연판을 두고 모서리에도 1판씩 배치하여 총 12판을 두었다. 탑신은 크고 구형이며 위에는 상륜부와 1석으로 된 옥개석을 갖추고 있는데, 옥개석의 크기가 알맞아 이 부도군에서는 균형감이 가장 뛰어난 부도이다. 총 높이는 170cm이며, 기단 50cm, 탑신 58cm, 옥개석 30cm, 상륜 35cm이다.

8) 碑石 (사진 48)

현재 下端部가 묻혀 있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고 銘文 또한 磨滅이 심해 판독할 수 없는 상태이다. 현재 높이는 55cm, 폭 36cm, 두께 15cm이다.

16. 新垞里 寺址(사진 49)

● 所在地 : 晴日面 新垞里 239

● 沿革 및 遺蹟現況

신대리 봉복사로 들어가는 계곡 입구의 북쪽편으로 '절등'이라 부르는 산기슭에 위치한다. 이 사지는 봉복사의 원래 위치라고 전하고 있는데 봉복사는 이 곳에서 동북쪽으로 약 700m 정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의 사명이 '봉복사'였음을 볼 때 현 위치로 옮겨 가기 전의 봉복사가 있던 곳으로 보인다.

현재 사지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그 중앙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

된 신대리 삼층석탑이 있고, 이 탑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높이 3m, 길이 약 400m의 언덕이 형성되어 있는데 흙으로 덮여 있어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과거의 석축으로 짐작된다. 이 사지에서는 당초문암막새기와편(탑본 - ①·②), 연화문숫막새기와편(탑본 7-③)을 비롯하여 線條文(탑본 7-④~⑦), 樹枝文(탑본 7-⑧·⑨), 幾何學的 文樣(탑본 7-⑩)의 平瓦片들이 산재하고 있어, 이 寺址가 統一新羅時代부터 朝鮮時代에 이르는 오랜기간 동안 많은 重創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1) 新垆里三層石塔 (사진 50)

2층기단 위에 세운 3층석탑으로 상륜부는 露盤까지 남아있고 覆鉢 이상은 缺失되었다. 基壇部는 地臺石과 下臺中石을 2枚의 도로 結構하여 1石으로 만들었는데 중석의 각 면에는 兩隅柱와 1柱와 撐柱가 模刻되어 있으며, 下臺甲石은 결실되었다. 上臺中石은 4매로 결구하였으며 우주와 탕주가 없고, 갑석은 2매의 돌로 되었는데 하면에는 2단의 부록을 두었으나 윗면에는 받침이 없이 평탄하다.

塔身部는 1층옥신에 비해 2층옥신이 1/3정도로 遞減되었고 屋蓋石도 알맞게 체결되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보여준다. 1층옥신은 2석을 중으로 결구하였으나 다른 것은 1석씩이며 각 옥신에는 양우주가 정연히 모각되었다. 옥개석은 옥개받침이 5단씩이나 3층만은 4단이며, 윗면에는 모두 2단의 각형 받침을 두어 위층의 옥신을 받치고 있다. 낙수면은 평박하나 경사는 급하지 않은 편이며, 처마선은 직선을 이루고 있는데 전각에서의 반전이 적은편이어서 전체적으로 보아 경쾌한 모습은 아니다. 전각의 네 귀퉁이에는 풍탁장식이 매달렸던 작은 구멍이 있다. 3층 옥개석 윗면에는 너비 12cm, 깊이 10.5cm의 찰주공이 남아 있으며 노반에는 직경 12cm의 둥근 구멍이 뚫려져 있다. 이 탑은 기단부와 옥개석 등 전체 수법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黑雲母花崗岩으로 만들었는데 현재 총 높이는 약 5.0m이다.

17. 上洞里 寺址 (사진 51~54)

● 所在地 : 公根面 上洞里 495-1

● 沿革 및 遺蹟現況

공근면 상동리에서 洪川郡 東面 坐雲리로 연결되는 406번 지방도 도로 옆에 三層



石塔과 石佛坐像이 남아있다. 이 石造物들은 원래 논 한가운데 있었으나 도로 개설과 1993년말의 農耕地整理事業으로 인해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佛像左側의 石背片이 있었으나,<sup>13)</sup> 현재 찾아볼 수 없다.

주변지역에서는 瓦片이 散在하고 있는데 線條文[탑본8-①~④], 樹枝文[탑본8-⑤~⑦]의 平瓦片들이다.

이 寺址는 記錄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來歷을 밝힐 수 없으나 석탑과 산재된 瓦片들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고려시대까지 존속하였으나, 《世宗實錄》地理志 등의 문헌에 그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늦어도 朝鮮初期 이전에 廢寺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 절의 이름이 成德寺로서 朝鮮 太祖때에 폐사되어 灣岱山 松嶺峰아래 삼원사골로 옮겨 갔다고 한다.

#### 1) 上洞里三層石塔 [사진 53]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어 있는 3층석탑으로 현재 基壇部의 甲石 아래는 땅속에 묻혀 보이지 않으나 撐柱가 1柱가 模刻된 基壇面石이 있었다고 하며,<sup>14)</sup> 갑석의 형태를 볼 때 일반적인 2층기단의 형태이다. 갑석의 윗면에는 사본원과 각형의 탑신괴임을 두어 塔身部를 받고 있다.

탑신부는 1층屋身에 비해 2층옥신의 높이가 1/3정도의 遞減率을 보이고 屋蓋石도 자연스럽게 체감되어 안정감을 보인다. 1층과 2층의 옥신은 모두 兩隅柱를 모각하였으나 3층옥신은 우주가 없고 크기가 다른 점으로 보아 무너진 탑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다른 石材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옥개석의 落水面은 완만하고 처마선은 아랫선이 수평을 이루었으나 윗선은 轉角부분에서 反轉되었다. 옥개받침은 1층과 2층은 4단씩이나 3층은 3단이며, 옥개석 윗면에는 2단의 받침을 각출하여 그 위에 옥신을 받치고 있다. 3층옥개석 윗면에는 직경 8.5cm, 깊이 10cm의 찰주공이 남아 있다.

이 탑은 黑雲母花崗岩으로 만들어졌으며 옥개석 등 각 부분의 양식으로 볼 때 고려 초기의 것으로 보여진다.

상대갑석은 폭 122cm, 두께 7.5cm, 1층옥신은 폭 56cm, 높이 49cm, 1층옥개는 폭

13) 辛鍾遠·鄭敏和, 앞의 논문, p65.

14) 鄭永鎬, 《橫城 上洞里的 塔像》【考古美術】第6券 第1號, 韓國美術史學會, 1965.

91cm, 높이 30cm, 2층옥신은 폭 48cm, 높이 16cm, 2층옥개는 폭 79cm, 높이 26.5cm, 3층옥개는 폭 60cm, 높이 22.4cm이다.

2) 上洞里石佛坐像 [사진 54]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어 있는 石佛坐像으로 下臺石은 땅에 묻혀서 확실한 모양을 알기 어렵고 佛頭도 1989년 10월 도난을 당한 후 새로 만들어 놓았으나 원래의 것보다 작고 조잡한 모습이다. 원래의 불두는 螺髮 위에 큼직한 육계가 있었고 兩眉間과 鼻部, 口脣 등이 정제되었으며, 相好가 원만하고 입가에 미소를 띠어 자비스런 모습이였다.

목에는 三道가 있고, 手印은 降魔觸地印을 結하고 있으며 通肩한 法衣는 양어깨에 걸쳐 무릎을 덮었는데 그 流麗한 옷무늬와 왼무릎에 올려놓은 오른쪽 발의 사실적인 조각수법이 뛰어나다. 불상의 등에는 폭 4cm, 깊이 4cm의 둥근 구멍이 있어 본래는 光背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상의 좌측에는 火焰文과 二條線이 조각된 광배편이 있었으나, 1993년 경지정리작업시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臺座는 上臺石이 圓形으로 측면에는 복판양련을 장식하였는데 연판안에는 子房이 있는 화판을 彫飾하였으며 下段엔 2단의 괴임을 刻出했다. 中臺石은 8각형으로 隅柱는 없으나 각 면마다 上下로 긴 眼象이 陰刻되었다.

이 불상은 黑雲母花崗岩으로 만들어졌으며 相好와 衣紋, 臺座 등의 조각수법으로 볼 때 高麗 初期로 추정되는 우수한 작품이다.

불신 높이(복원부분 제외)는 93cm이며, 어깨 폭 65cm, 다리 폭 99cm, 가슴 폭 40cm, 상대석은 폭 95cm, 높이 24cm, 중대석 높이는 31cm이다.

18. 公根里 寺址 [사진 55, 56]

● 所在地 : 公根面 公根里1班 절골

● 沿革 및 遺蹟現況

이 절터는 공근리의 이덕삼씨택에서 북서쪽으로 500m 떨어진 산기슭의 밭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잡초가 무성하여 자세한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寺址는 넓지 않으며 3단의 石築이 남아 있다. 가장 아래에 위치한 석축은 높이 2m정도

로 약 10m가 남아있다.

寺址에는 기와편과 백자편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기와는 주로 무늬없는 평瓦가 대부분이며 幾何學的 文樣을 갖고 있는 것도 있으나 모두 조선시대의 기와들로써 사찰이 오랫동안 존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19. 懷眞寺址

㉠ 所在地：公根面 德村里 호진部落

㉡ 沿革 및 遺蹟現況

덕촌리와 水白里 사이의 도로에서 북서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진 호진부락에 위치하고 있는데, 1983년 신종원·정민화에 의해 懷眞寺址로 밝혀진 바 있다.<sup>15)</sup> 회진사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懷眞寺 在昭將山', 《梵宇攷》에 '懷眞寺 在昭將山今廢' 라고 되어있고, 이후의 기록에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1940년에 간행된 《江原道誌》에만 '懷眞寺 在昭將山今廢' 로 나타난다.

현재 寺址는 논과 밭으로 되어있고 주변에는 瓦片들이 散在하고 있는데 線條文[답본9-①], 樹枝文[답본9-②~⑥], 幾何學的 文樣[답본9-⑦~⑩]의 평瓦片들이 대부분이다.

이 寺址는 출토되는 瓦片들로 볼 때 적어도 고려초기에 창건된 사찰로서 조선시대 중엽까지는 존속하였으나 《梵宇攷》의 기록으로 볼때 18세기말경에는 이미 폐사되었음을 알수 있다.

#### 20. 水白里 佛像 및 光背 [사진 59~63]

㉠ 所在地：公根面 水白里 341-1 水白初等學校

㉡ 沿革 및 遺蹟現況

光背를 갖춘 花崗岩製 석불좌상으로 水白初等學校의 校庭에 안치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곳에서 북서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진 七峰山 계곡에 있던 것을 옮겨온 것이라고 하며, 서쪽의 옆계곡에는 懷眞寺枝가 남아있어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5) 辛鍾遠·鄭敏和, 앞의 논문, pp62~63.

佛像是佛身に 비하여 佛頭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2軀의 佛像이 組合된 것으로 보인다. 불두의 머리는 螺髮이며 육계가 알맞게 솟아 있으나 앞부분이 약간 파손되었고 相好는 원만하다. 불신은 양 어깨가 缺損되어 있고 오른팔도 손상이 심한 상태인데, 法衣는 右肩偏袒으로 형식적인 衣紋이며, 手印은 항마촉지인을 結하고 있다. 불두에 비해 조각 수법이 떨어지나 모두 高麗時代의 작품으로 보인다.

光背는 舟形으로 頭光과 身光으로 구분하고 주위에는 화염문을 彫飾했으며, 두광의 내부는 8瓣의 蓮瓣을 배치했다. 高麗 初期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현재 신광의 대부분은 묻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다.

불상은 총 높이가 78cm로서, 불두가 높이 37cm, 폭 23cm, 불신의 높이 41cm, 폭 23cm, 다리 폭이 60cm, 광배는 현재 높이 70cm, 하단폭 86cm, 두께 12cm이다.

## 21. 覺林寺址[사진 64~66]

● 所在地：講林面 講林里

● 沿革 및 遺蹟現況

이 寺址는 강림면 강림리에 소재하며 雉嶽山 동쪽지역으로 朝鮮 太宗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覺林寺址이다. 각림사는 태종이 어린시절에 글을 읽었던 곳으로, 《太宗實錄》을 보면 태종은 즉위후 이 절을 각별히 돌보았던 사실이 여러 곳에 보이고 있는데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태종 12년(1412) 10월 17일에 原州牧使에게 이 절의 승려들이 田稅를 많이 거두어 들인 일을 문책하지 말도록 命하였고, 각림사 住持 釋休가 와서 아뢰니 위의 일과 부역을 면해 주도록 承政院에 명해 원주에 치서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찰이 방금 재건되어 落成을 보게되자 부처에게 현훈패 1匹을 바치고 승려들에게도 綿布 등의 직물을 하사하였다.<sup>16)</sup>

○ 태종 16년(1416) 4월 28일 鐵 1千斤을 下賜하여 寺僧들로 하여금 중창을 하게 하였고<sup>17)</sup>

16) 《太宗實錄》卷二十四 十二年 壬辰 十月 己巳條.

17) 《太宗實錄》卷三十一 十六年 丙申 四月 庚寅條.

○ 태종 17년(1417)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sup>18)</sup> 同年 2월 27일 春等講武를 겸하여 각림사에 幸行하였다.<sup>19)</sup> 同年9월 15일 각림사가 완성되자 이전에 皇考와 황비의 冥福을 빌기 위하여 만들어 두었던 《華嚴經》을 玉川府院君 유창을 시켜 보내고, 아울러 유창에게 齋과 內疏 를 주어 法會를 베풀어 落成케 하였다.<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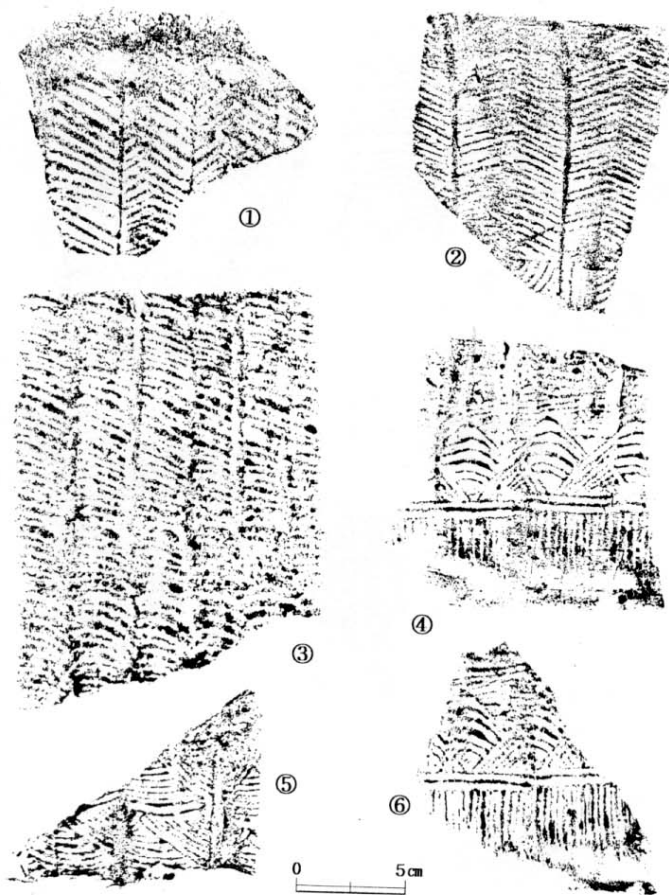
현재 寺址의 중심부에는 강림교회(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강림우체국이 들어서 있으며 그 주위에 민가 몇 채가 있고, 주변의 밭에는 石材片과 瓦片들이 散在하고 있다. 이 곳에서 발견되는 와편들은 蓮花文숫막새[답본10-①]를 비롯하여 線條文[답본10-④·⑤], 格子文[답본10-②·③], 樹枝文[답본10-⑥~⑫]과 幾何學的 文樣[답본11-①~⑨]의 平瓦片들이다.

각림사는 정확한 初創年代를 알 수 없으나 寺址에 산재된 와편들로 볼 때 적어도 統一新羅時代에는 창건된 사찰이며, 高麗時代를 거쳐 朝鮮初期까지 번창하였으나 《輿地圖書》《關東誌》《關東邑誌》 등에 '今廢'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18세기 말 전후한 시기에 廢寺된 것으로 보인다.

18) 《太宗實錄》 卷三十三 十七年 丁酉 二月 己未條 및 丁卯條..

19) 《太宗實錄》 卷三十三 十七年 丁酉 二月 甲申條.

20) 《太宗實錄》 卷三十四 十七年 丁酉 九月 丁卯條.



<답본 1> 法興寺址 瓦片



<답본 2> 法興寺址 瓦片(①~③), 石泉寺址 瓦片(④~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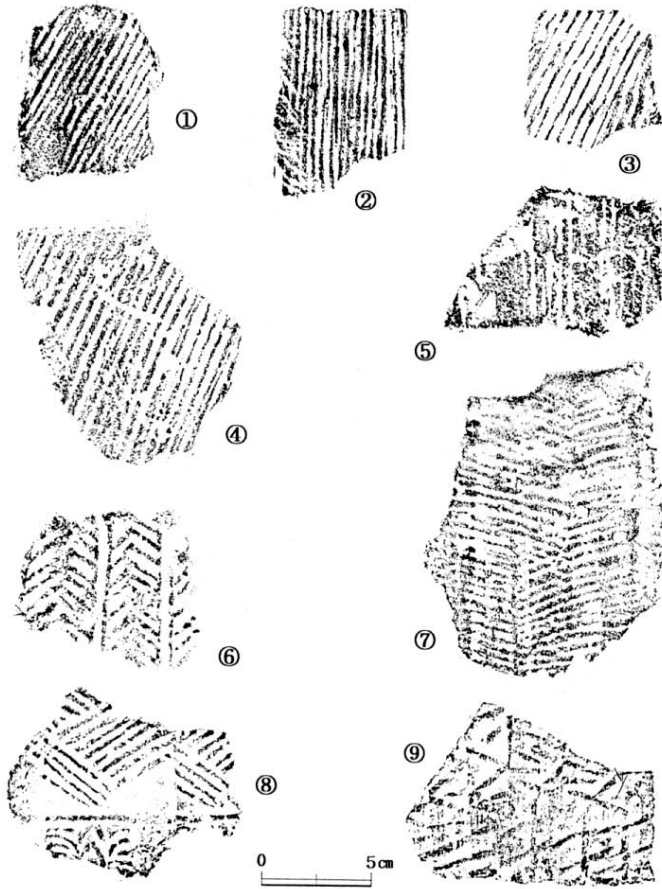


<답본 3> 石泉寺址 瓦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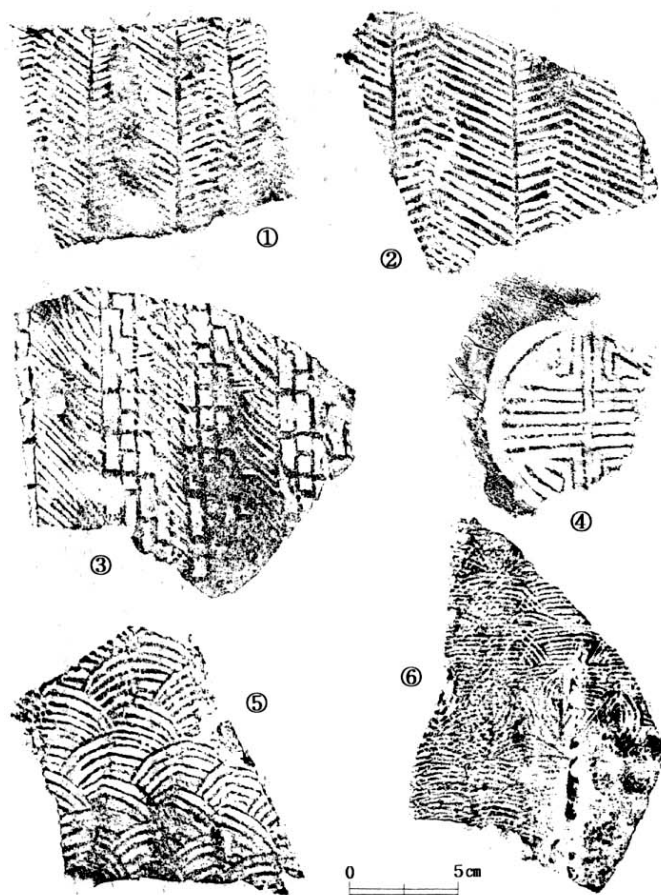




<답본 4> 正菴里寺址 瓦片(①·②), 開元寺址 瓦片(③~⑥)



<답본 5> 中金里寺址 瓦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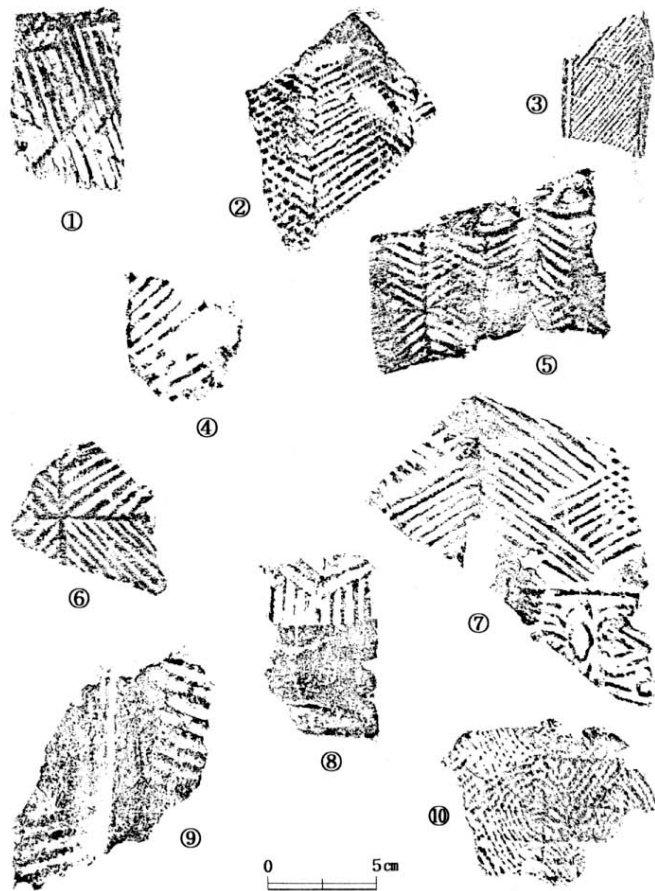
<답본 6> 鳳腹寺 瓦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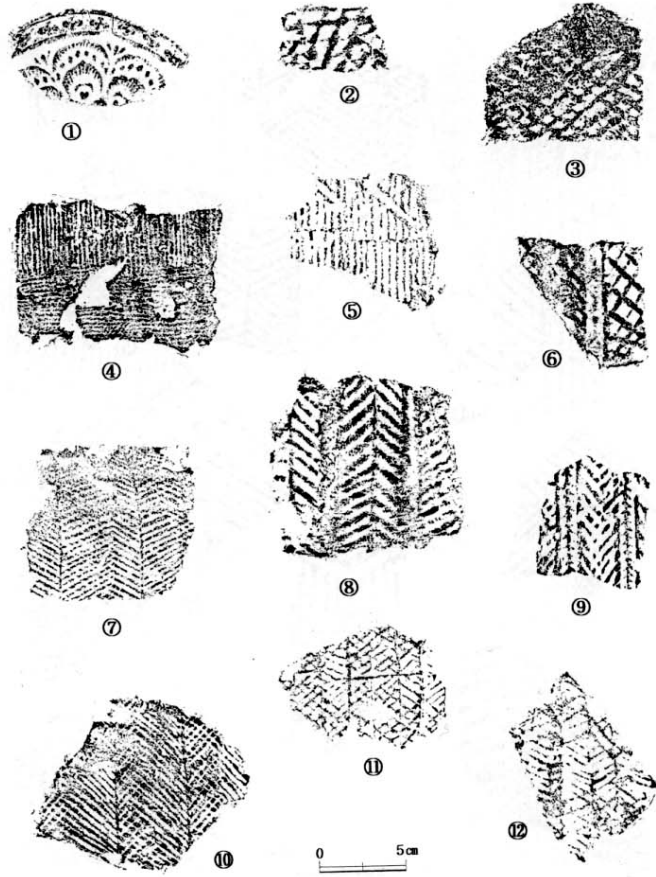
<图录 7> 新堡里寺址 瓦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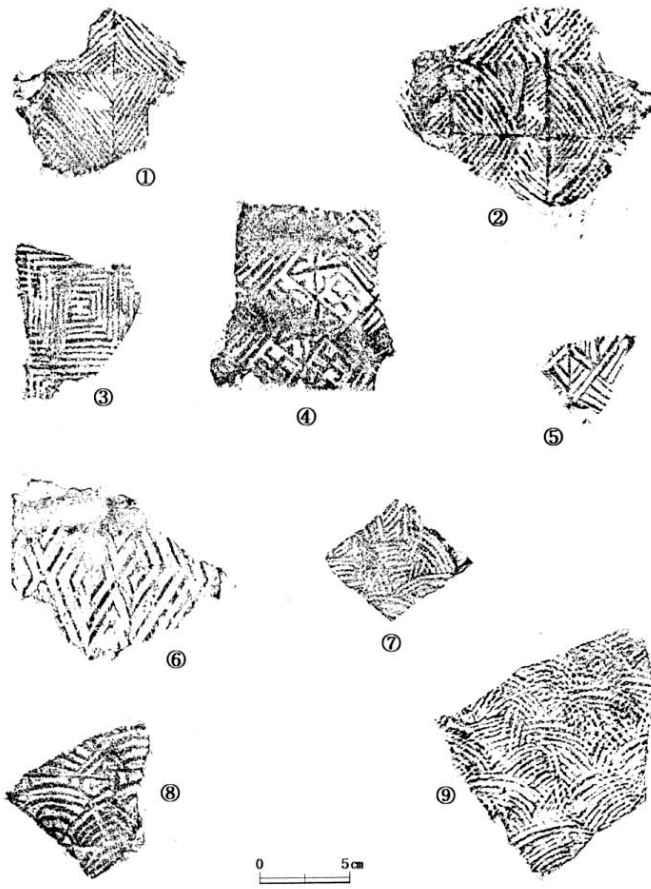
<답본 8> 上洞里寺址 瓦片



<답본 9> 懷眞寺址 瓦片



<답본 10> 覺林寺址 瓦片



<답본 11> 覺林寺址 瓦片





사진 1. 法興寺址 遠景



사진 2. 法興寺址 近景



사진 3. 法興寺址 石築



사진 4. 法興寺址 柱礎石



사진 5. 法興寺址 맷돌



사진 6. 普光寺 全景



사진 7.  
普光寺  
浮屠 1



사진 8.  
普光寺  
浮屠 2



사진 9. 石泉寺址 全景



사진 10. 石泉寺址 建物址



사진 11. 石泉寺址 石築



사진 12. 石泉寺址 柱礎石



사진 13. 石泉寺址 石造物



사진 14. 石泉寺址 옛돌



사진 15. 正菴里 寺址 全景



사진 16. 正菴里 寺址 石築



사진 17.  
橋項里 寺址  
出土 靑銅梵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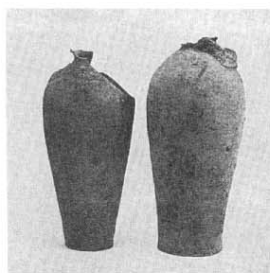


사진 18. 橋項里 寺址 出土 土器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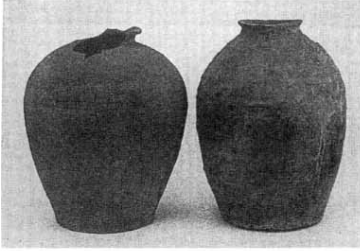


사진 19. 橋項里 寺址 出土 土器



사진 20.  
 邑上里 寺址  
 出土 靑銅梵鍾



사진 21. 邑下里 石佛坐像 및 三層石塔



사진 22.  
 邑下里  
 石佛坐像



사진 23.  
 邑下里  
 三層石塔



사진 24.  
 邑下里  
 石塔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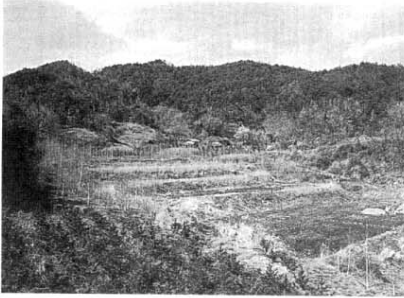


사진 25. 開元寺址 遠景



사진 26. 開元寺址 近景



사진 27. 開元寺址 石燈下臺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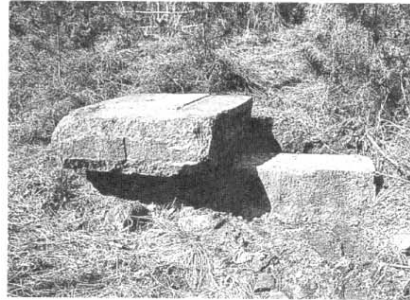


사진 28. 開元寺址 石塔材



사진 29. 屯坊內里 샘골寺址 遠景



사진 30. 屯坊內里 샘골寺址 近景



사진 31. 屯坊內里 생골寺址 石築



사진 32. 屯坊內里 生골寺址 柱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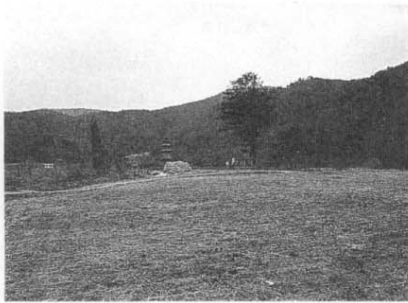


사진 33. 中金里 寺址 全景



사진 34. 中金里 寺址 三層石塔 全景



사진 35.  
中金里寺址  
東三層石塔



사진 36.  
中金里寺址  
西三層石塔



사진 37. 鳳腹寺 全景



사진 38. 鳳腹寺 因法堂



사진 39. 鳳腹寺 맷돌



사진 40. 鳳腹寺 浮屠群



사진 41.  
鳳腹寺  
浮屠 1



사진 42.  
鳳腹寺  
浮屠 2  
(瑞谷堂)





사진 43.  
鳳腹寺  
浮屠 3  
(圓明堂)



사진 44.  
鳳腹寺  
浮屠 4



사진 45.  
鳳腹寺  
浮屠 5  
(西岩堂)



사진 46.  
鳳腹寺  
浮屠 6



사진 47.  
鳳腹寺  
浮屠 7



사진 48. 鳳腹寺 碑石





사진 49. 新垈里 寺址 全景



사진 50.  
新垈里  
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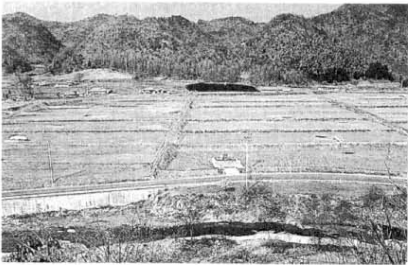


사진 51. 上洞里 寺址 遠景



사진 52. 上洞里 寺址 近景



사진 53.  
上洞里  
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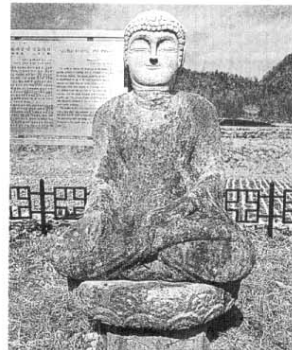


사진 54.  
上洞里  
石佛坐像



사진 55. 公根里 寺址 全景



사진 56. 公根里 寺址 石築



사진 57. 懷眞寺址 遠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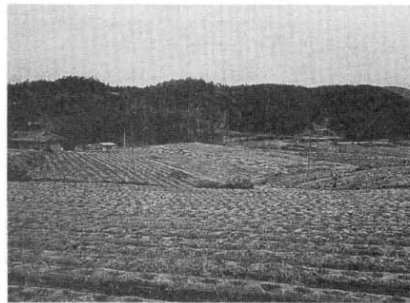


사진 58. 懷眞寺址 近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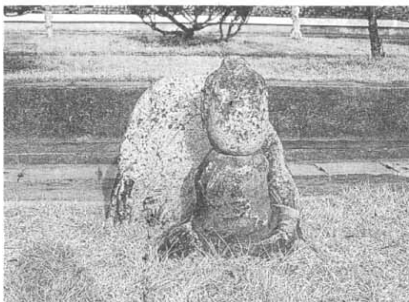


사진 59. 水白里 石佛坐像 및 光背(前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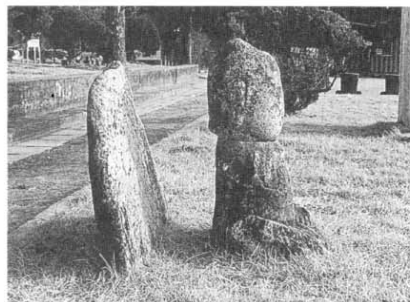


사진 60. 水白里 石佛坐像 및 光背(側面)



사진 61. 水白里 石佛坐像의 佛身細部



사진 62. 水白里 石佛坐像 光背



사진 63. 水白里 石佛坐像 光背(後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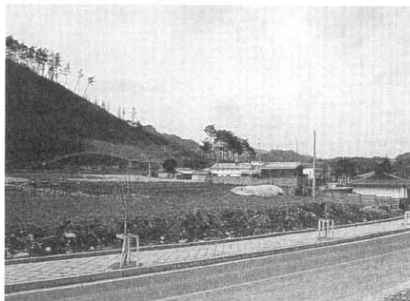


사진 64. 覺林寺址 全景



사진 65. 覺林寺址 石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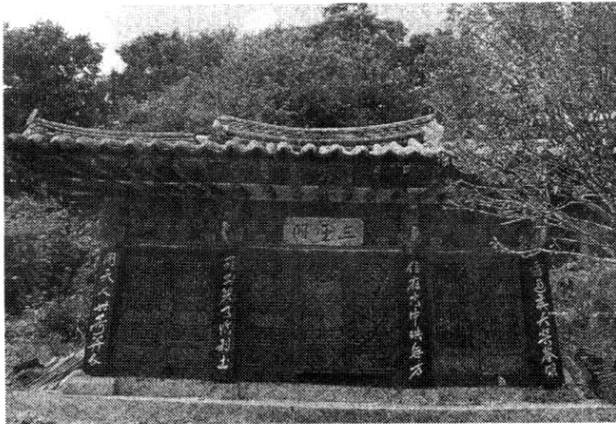


사진 66. 覺林寺址 瓦片

어사매 (제14호)

Ⅲ. 橫城의 郷土史

# 研 究 文



---

## 봉복사 서곡대사 행장



채 희 승  
(횡성서예학원장)

### 1. 머릿말

일반 세속과는 달리 수도승들은 자신의 수행과정이 엄청난 고행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과 행적 남기기를 꺼리는 고로, 그들에 대한 자료가 남은 것이 드물다. 오래된 절 입구에는 어김없이 고승들의 부도탑이 남아 있지만 이것에 대한 자세한 조사조차 힘든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 때문일 것이다.

횡성에도 여러군데 부도탑이 남아 있고 그 중에 봉복사 입구 부도중 瑞谷堂이란 글씨가 새겨진 것이 있는데 다행히 삼교집에 그 서곡대사의 행장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한글로 번역하여 서곡대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려 봉복사를 찾는이들에게 부도탑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소개한다.

### 2. 瑞谷大禪師 행장

서곡대선사의 이름은 찬연(燦淵)이요, 속성은 경주김씨로 아버지는 업상(業尙)이고 어머니는 완산이씨인데 홍천에 거주하는 농사짓는 집안으로 이씨가 늙어 거의 아이 낳아 기를 때가 아닌데도 부부가 다 쾌양산에 올라 관음보살에게 자식두기를 기도한 즉 별이 품에 떨어지는 꿈을 꾸고 잉태하여 선사를 낳으니 임오년(1702년), 3월 17일 축시라 아이때 지체가 빼어나고 거동과 법도가 공손하고 엄숙하니 노는 것도 같은 또래보다 뛰어나도다. 열살이 됨에 봉복사에 의탁하여 스승에게 책을 받았는데 책에 임해 깊이 잠심하여 글읽는 소리가 나지 않으니 그 스승이 졸고 있는가 의심되어 바늘로 찔렀다. 그러자 책을 덮고 일어나 스승에게 무릎꿇고 말하기를 “감히 조는 것이 아닙니

다. 제가 큰 공부를 하기는 하나 감히 글읽는 소리로 모든 어른들 곁에서 시끄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입을 쓰지 않고 마음과 눈을 문장글귀에 쓰니 진실로 밝게 보입니다. 원컨대 스승께서는 소자를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하고 절하고 물러나 또 책을 보는 것이었다. 16세에 봉복사의 사안장노(思岸長老)에게 머리 깎고 담월각혜(潭月覺惠)대사에게 구족계를 받고, 20세에 서산대사의 5대 적전인 관파두옥(寬坡斗玉)대사에게 경(經)을 받고, 37세에 오대산에서 참선하고 덕고산을 왕래하여 술읖을 씹고 물마시며 절과 중의 일에 개의치 않았다.

길과 산허리 계곡 가운데를 홀로 걸으며 남의 눈에 띄지를 앓았으니 40세까지 그러하였다. 기성쾌선(箕城快善) 대사를 참구하고 이내 화엄경을 강(講)하여 백여명이 강(講)을 들었고 만화원오(萬化圓悟)대사에게 보살계를 받고는 교(敎)를 버리고 선(禪)으로 돌아가 마음을 명적(冥寂)에 갖들이니 교화가 널리 미쳤다. 구름노니는 명산, 동으로 풍악, 설악, 서로 마니, 구월, 남으로 지리, 한라, 북으로 칠보, 묘향산이 가장 이름있는 것이라. 바야흐로 교전을 연구하여 깊고 넓게 정통하니 그 선정이 맑고 고요하되 텅비며 밝다. 도의 근원을 밝게 하여 묘의 일만변화를 깨닫고 아울러 자신을 누르고 중생과 한몸으로 보니 명예와 이로움을 더럽게 여기고 털끝만치도 물들지 앓았다. 남과 나를 없애고 저울눈금만치도 다툼이 없으니 목사수령이 풍문을 듣고 교유를 청하면 멀리 피하였고 아이들이 얼굴을 모르고 부역을 명하면 이에 따름이라.

맑고 밝아 퇴연히 스스로 고고하니 시주하여 모이면 세연히 스스로 그 경계밖에 마음을 두니 가히 알고 보는 자도 이와 같은데 그 깊은 조예를 가히 이름하지 못할 것인즉 어찌 능히 말로 할 것인가? 일찌기 자못 시울에 정통하여 시인, 술꾼, 광대와 더불어 많이 허락하여 트고 살았는데 참선함에 미쳐서는 절연히 폐하였다.

만년에 덕고산에 있었는데 한 유생이 방문하여 말하길 “유가 제자들이 이르길 하늘에서 성품을 받았으니 인(仁), 의(義), 예(禮), 지(智)는 실체 아님이 없은 즉, 체(體)이면서 용(用)이 있음이니 천하만사가 하나같이 이에 근본하지 앓음이 없으니 이른바 체용(體用)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불제자들은 공으로써 종(宗)을 삼는데 마음이 공적(空寂)하고자 하면 이미 실체가 없는 것이니 무엇으로써 천하만사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대사가 대답하길

“삼라만상이 한마음 밖에 있지 아니하니 돌아보면 진(眞)과 망(妄)의 상이 섞인 것이라. 진의 본체는 있고 망의 본체는 없는 것이니 이른바 공(空)이란 것은 망에게 공하고자 하면 그 본진이 있는 것이니 하늘에 두면 원(元), 형(亨), 리(利), 정(貞)이 있고 부처에 두면 상(常), 락(樂), 아(我), 정(淨)이 있는 것이니 유가에 이른바 인, 의, 예, 지가 그 이름은 비록 다르나 실체는 하나라. 상, 락, 아, 정이 이미 한 마음의 진이니 있는 즉, 시방세계 일체 일이 어제 흑시라도 이 마음 밖에서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무자년(1768년) 여름 오대산에 있으며 병이 나고 가을에 이내 위독하고 겨울에 덕고산 봉복사로 옮겼다가 다시 공작산 수타사로 가서 입적하니 봉복사에 있을 때 방광(放光)이 3일 수타사에 있을 때 방광(放光)이 입적전 3일과 후 5일에 걸쳐 있으니 입적할 때 그 일대의 산이 혼연히 황기가 돌고 푸른 무지개 붉은 무지개가 해를 여러 겹으로 둘렀으니 곧 10월 3일 사시(巳時)라 향년 67세 법랍 51세로 화장하여 사리2과를 얻으니 둥글고 오색이 나더라

화장하는 백걸음 밖에서 초골을 얻으니 다음해 기축(1769년)봄에 사리1과를 봉복탑에 두었고 또 1과와 초골은 수타사에 두어 비를 세우니 제자중 경(經)을 받은자 10여명, 법(法)을 받은자 100여명, 수계 받은 자가 천여명에 이르렀다.

슬프도다. 우리 대사의 허정낭오(虛靜朗悟)한 속마음과 고결하고 공손한 지조는 진실로 가히 정혜(定慧)를 다 갖추었으니 넉넉히 피안에 오르셨으리라.

입적후 신령스럽고 특이한 자취는 남의 이목을 밝혔고 또 죽히 성취한 바를 경험하였다.

지금의 행장 글은 진실로 마땅히 다 그 진실을 펴고 그 화려함을 밝혀 스승이 평생 덕을 숨기고 지혜를 감춰 일찌기 스스로 못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으니 오직 첨양하여 우러르고 대우가 후할까 두려워 하였으니 생(生), 노(老), 병(病), 사(死)도 이 생각과 같도다.

달은 떨어져도 오히려 하늘에 있고 산은 무너져도 땅을 떠나지 않나니 빈도 등은 스승이 이미 입적하여 다시 세상에 조립하지 못한다고는 이를 수 없으니 고로 이 행장을

함에 삼가하고 감히 방자함이 없이 하여 우리 스승의 숨은 맑은 뜻을 좇으니 아는 자는 반드시 그러함은 알 것이다.



봉복사 서곡대사부도

### 3. 마침말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다 보면 마땅한 표현이 없어 힘들 때가 많다. 더구나 고승의 행장에서는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긴 글들이라서 더욱 그러하다. 그럴 때는 글자 그대로 직역하는 선에서 머물러 오류와 실수를 줄이고자 하였다.

이 글은 다만 서곡대사의 행장번역에 그쳤으나 삼교집에는 서곡대사 제자들의 흥미 있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다.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향토 역사 자료들을 관심만 갖고 발굴 조사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이니, 황성지역인들이 향토사연구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어사매** (제14호)

IV. 향토문학 동호인 작품

## **어사매 문화마당**

- 隨筆
- 詩
- 漢詩
- 郷土文化踏査記

## 고등어를 구우며

이 정 예 (공근면)

쇠화로에 숯불을 피워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삶힌 후, 석쇠를 걸쳐 놓고 마당에서 고등어를 구웠다. 고등어는 기름에 익히면 제 맛을 잃어 좀 성가시긴 하지만 이따금 숯불에 굽는다.

채 여섯시도 안되었는데 밝은 이미 어두웠고 발도 제법 시리다.

‘나랏님도 자신다’는 잣티는 바람이 불때마다 서걱대는 화단가로 풀풀 날리고 미쳐 따라가지 못한 작은 불씨들은 생선토막 위로 유년의 기억되어 점점이 내려 앉는다.

도시에서만 자란 나는 방학이 되면 시골로 시집을 간 이모댁에 가는 날을 학수고대했다. 그 댁은 종가(宗家)라서 방학이면 친척들과 내 또래의 아이들이 늘 북적거렸다.

가게라고는 부녀회에서 술이나 국수를 파는 정도라서 돈이 있어도 군것질을 할 수 없었다. 그 가게에 군것질감이라고는 단물이 빠지면 금방 질깃질깃해지는 값싼 껌이 고작이었는데 그나마도 없기 일쑤였다.

겨울이면 마을에 빵튀기 장수가 마차에 기구와 장작을 싣고 들어와 해질녘까지 낱알 익는 냄새를 피웠다.

아이들은 흠어진 강정을 얻어 먹는 재미에 귀를 막고 아저씨의 빵이요 하는 외침과 함께 망태기에 하얀 튀밥이 튀어 나오기를 기다리며 늦도록 그 주위를 맴돌았다. 손이 큰 사돈 할머니는 쌀과 콩을 한자루씩 튀기고 들깨를 여물솥에 그득히 볶아 여러 가지 옛과 강정을 넉넉히 만들어 대청 한켠에 놓아 주셔서 우리들은 들락날락 하며 바구니를 축냈다.

그 댁 뒷목에는 빵대로 만든 둥구리가 있었는데 고구마가 천장까지 담겨져 있었다. 노 할머니는 요술화로를 가진 듯 언손을 녹이려 아랫목 요밑을 파고들 때마다 재가 담긴 화

로에서 늘 말랑말랑한 군고구마를 나누어 주었고 한 두 개 남는 것은 우리 남매에게 주었다. 사돈인 덕에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장날이면 사돈 할아버지는 눈썹인 고갯마루에 햇살이 채 퍼지기도 전에 우전에 나섰다. 우리는 할아버지를 기다린다는 핑계를 붙여 동네어귀에 있는 빈 논에서 저물도록 얼음을 지치기도 하고 달빛아래서 벗짚가리속을 드나들며 슬래잡기를 하고 놀았다.

읍내로 가는 길이 한눈에 보이던 산등성이에 할아버지의 흰 두루마기가 희끗희끗 보일라치면 아이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갔다.

새끼에 동여진 고등어 한 손은 할아버지 같짓자 걸음에 휘둘러 잔뜩 꼬부라져 있었고 아이들은 서로 들고 가려고 안달이었다.

그날 저녁에는 어른상에 무조림이 가득한 접시가 올려졌고 그 위에 고등어 한토막이 고명처럼 얹어져 있었다.

나머지 생선토막은 아이들 상에 푸짐하고 올라왔는데 철부지들은 마파람에 게논 감추듯 접시를 비웠고 끝내는 어른상에 놓인 것까지 사양하지 못했다.

어릴적 일년에 두어번 다녀왔을 뿐인데도 내 유년의 기억은 늘 그곳에서 시작된다.

나 또한 시골에 살면서 많은 손님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어른들이 베풀던 정성에 비하면 홀대에 가깝다.

남을 흠족하게 하는 일이 그리 쉽지가 않음을 겪게될 때마다 아낌없이 내어주던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리워한다.

생선이 다 구워져서 생선머리를 누렁이에게 주었더니 재빨리 제 집으로 몰고 가버린다.

친정할머니는 연탄불위에서 바짝 구운 생선머리를 좋아하셨다. 으레히 살코기는 나만 먹는줄 알고 고기 한점 드러보지 않은 일이 익은 생선을 대할때마다 후회스럽다.

고단한 삶속에서도 늘 아끼며 정갈했고 당당함을 잃지 않으셨던 할머니의 유품은 한 짐도 채 되지 않았다. 생전에 늘 화장(火葬)을 소원하며 끝내 벽제 골짜기 분분설(粉粉雪)되어 가신것도 생선머리만 고집하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요즘들어 부쩍 든다.

어쩌면 우리는 물가에 묻어달라는 엄마의 말을 충실히 이행한 어리석은 청개구리였는

지도 모르는 일이다.

한해의 끝에서 할머니의 유품의 무게가 문득 무거운 숙제로 다가서고 옛어른이 자주 사무치도록 그리운 것은 나 역시 그 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연륜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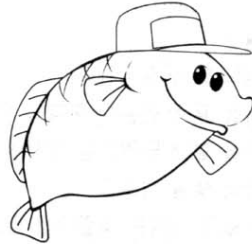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아마도 치사랑은 현실에서 드러나기보다는 우리의 정서속에 절절한 그리움으로 자리하고 마치 도도히 흐르는 강처럼 우리 삶속에 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자신은 남에게 어떤 기억으로 새겨지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

버리기 보다는 쌓는일에 더 급급하고 숲보다는 나무를 먼저 보는 우(愚)를 수없이 되풀이하건만 세월은 기다려 주는 일도 없이 매정하게 흘러간다.

이제 아주 작은것부터 버리는 연습을 하며 보다 더 충실히 앞날을 닦고 가꾸어야겠다.

노랗게 구워진 생선이 식욕을 돋운다.



## 삶



박 현 숙 (황성음)

세월은  
기척도 없이 흘러간다.  
어디에  
묻혀있지도 않으면서 상념을 뒤흔든다.  
어디쯤에서 피어올라온 녀들이  
헛된 집착으로 팔을 뻗는다.

세월은  
기척도 없이 흘러간다.  
침묵을 끌어 안은채 이따금 슬픔의 빛을 내보이며  
나만을 향해 달려오는 것처럼  
슬픔의 빛을 비추고  
소리없이 내리는 빗줄기를 타고  
내 안에 숨죽이고 있다.

세월은  
기척도 없이 흘러간다.  
평평한 삶을 걸어 올리며  
기약 없는 쇠의 소리에 머물다 흘러가므로  
비평가도 모를 그누구도  
.....  
지나버린 풍경으로만 남아있다.  
머리에 남아있는 캔버스 안에서

## 追慕文武兼全三元帥



厚堂 宋寅錫

元帥貞忠擅我東	원수정충천아동
盡心追慕古今同	진심추모고금동
麗朝偉蹟千層嶽	려조위적천층악
槿域芳名萬里風	근역방명만리풍
勳績治人移掌上	훈적치인이장상
經綸濟世有胸中	경륜제세유흉중
正蒼祠宇巍然在	정암사우외연재
香火千秋永不窮	향화천추영불궁

삼원수의 곧음과 충성이 우리 동방에 우뚝하니  
진심으로 추모함이 예나 지금이나 같더라

고려의 위대한 업적이 천층의 큰 산과 같고  
나라에 꽃다운 이름이 만리에 바람처럼 일더라

공을 세워 백성을 다스리길 손바닥 보듯하고  
정치로 세상을 구제하길 가슴속에 품고 있더라

정암에 사당이 우뚝히 있으니  
향을 태워 천년토록 영원하리라

厚堂 宋寅錫 / 橫城郡 屯內面 永浪里

##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를 다녀와서

조근민, 윤성민, 이상문 (횡성중학교 2학년)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우리 고장 향토 유적지를 답사하는 날이다.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면 어찌나 했는데, 맑고 화창했다.

### 일상에서의 탈출

오늘 하루만큼은 교실 안 공부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우리 선조들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다. 정말 그 동안 우리 문화에 대하여 너무 관심이 없었던 점과, 일부 청소년들의 서구 문화 일변도는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오늘 만큼은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안고, 내 가까이 있는 우리 향토문화 유적지를 속속들이 답사해 보고 싶다.

설레는 마음으로 지도 선생님 두 분과 34명의 우리 일행은 학교를 떠나 버스가 있는 횡성 문화원으로 향했다. 문화원에 도착한 우리들은 문화원에 근무하시는 사무국장님의 답사 일정에 대하여 잠깐 듣고 서원을 향했다.

차창밖에 펼쳐진 가을 풍경은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웠다. 노란 은행잎이 수북히 쌓여 행인들의 발길을 머물게 한 가로수, 은은함 속에 붉은 빛을 토해 내는 단풍, 산중턱 중간 중간 빼어져 나온 기암 절벽 등 말할 수 없는 황홀함에 우리 모두 잠시나마 창조주에 감사했다. 언제나 가까이 있으면서도 감사함을 모르고 지냈던 우리의 무심함이 부끄러웠다.

우리는 첫번째 목적지인 서원면 금대리 의병총에 도착했다. 금대리 의병총은 일본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면서 1907년 조선군을 강제 해산하고 고종 황제를 폐위한 만행에 분노를 금치 못하여 봉기한 분들 중 이 지역 전투에서 순국하신 세분의 무연고 의병을

모신 묘역이라 했다. 선생님과 사무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병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념을 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목숨까지 바쳐 지키고자 했고 지켰던 우리 향토, 나라를 더욱 사랑해야 됨을 깨달았고, 친구들과 굳게 손잡으며 열심히 공부 할 것을 다짐하였다.

우리는 다음 장소인 횡성의 군조 왜가리 서식지 마을로 출발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 앙상한 나무만 있고, 왜가리들은 하나도 없었다. 날씨가 추워오기도 하지만, 자연 환경으로 인해 서식지(현재 횡성읍 남산리)를 옮겨갔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감을 느꼈다.

우리들은 다시 차를 타고 다음 목적지인 풍수원교회로 향했다. 도 유형문화재 제69호인 풍수원교회는 신유박해때 40여명의 신자들이 피난처로 정착한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앙촌이라고 하였다. 교회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여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 없어 안타까웠다. 대신 마당 가득 떨어져 쌓인 낙엽을 이리 저리 밟으며, 또 책갈피에 끼울 낙엽을 하나 하나 주우며 안타까움을 달랬다.

이제 우리는 공근면 창봉리, 전통 공예의 맥을 잇고 있는 장송모 도자연구원으로 향했다. 이미 그곳에는 어린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있었다. 우리들도 도자기 전시관에 가서 갖가지 종류의 도자기를 보고 선생님의 설명도 들었다. 그래서인지 오늘 따라 우리 도자기가 더욱 자랑스러워 보였다. 특히 옛날에는 횡성에서 생산되는 흙이 좋아서 궁궐에서 가져가서 도자기를 빚어 사용하였다고 한다. 정말 우리 횡성이 자랑스러웠고, 뿌듯하였다. 그리고 횡성에서 나는 흙으로 빚어 놓은 도자기가 있었는데, 다른 지방에서 나는 흙으로 빚어놓은 도자기와 비교하여 보니 우리 횡성 흙으로 빚은 도자기는 광택이 나지 않고 은은한 빛을 내는 것이 더 훌륭해 보였다. 다음에 오면 구경만하지 말고, '사랑과 영혼'의 주인공 데미무어처럼 한번 빚어보리라.

약간 시장기를 느끼며 다음 장소인 공근면 상동리 석불 좌상(도 유형문화재 제20호) 및 상동리 삼층석탑(도 유형문화재 제 21호)으로 출발했다. 삼층석탑은 옥개석 등 각 부분의 양식으로 볼 때 고려 초기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고개를 옆으로 둘러보니 참 우수황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일이 있었다. 석불좌상의 머리 부분만



하얏던 것이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불두를 어느 몰상식한 사람이 훔쳐가서 다시 만들어 올려 놓아서 그렇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그렇게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훼손시켰다는 것이 참 알미웠다. 정말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훼손시키지 말고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겠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 시간, 식당 안으로 들어서니 너무 너무 기뻐다. 왜냐하면 음식이 다 차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이 반찬이라, 반찬도 맛있었지만 우리는 너무 배고팠던 참이라 눈치도 없이 게걸스럽게 많이도 먹었다. 아 배부르다.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다음 장소인 청일면 신대리 봉복사로 향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되는데, 그 길목에서 우리는 가을의 마지막을 느끼고 있었다. 바스락 바스락 낙엽이 발에 밟히는 소리를 들으며, 언제 내가 이런 낙엽 쌓인 길을 걸었던가? 우리 학교 교정에도 가을이면 커다란 포플러나무의 낙엽이 많이도 떨어져 쌓인다. 하지만 우리 모두 쓸어버리기에 바빴지, 한번도 무성한 그 포플러나무의 낙엽을 그대로 두고 밟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 우리에게 가을을 느낄 감정도,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다.

“교장 선생님! 우리 내년에는 교정에서 낙엽 좀 밟으며 가을을 느끼게 해주세요.”

길목의 봉복사 돌탑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높이 높이 쌓여진 그 돌탑위에 나도 소원을 담은 돌 서너개를 쌓았다. 공부 잘하게 지혜 주십사, 건강하게 생활하게 해주십사, 이 IMF 경제 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하게 해주십사 기타 등등, 절에 올라가 보니 스님 한분과 보살님 두분이 계셨는데, 스님께서 봉복사의 유래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다. 봉복사는 지형으로 말 할 것 같으면, 봉화의 배 부분에 해당된다고 한다. 오대산의 상원사가 봉화의 머리이고, 여주의 신록사가 봉화의 꼬리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봉복사는 신라 때 창건된 절로 황성군내에 현존하고 있는 사찰 중에 가장 유서가 깊은 절로 신라 선덕여왕 16년인 647년에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어 6·25때 완전히 전소된 뒤 새로이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내려오면서 계속 입구의 북쪽으로 「절등」이라 부르는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신대리 삼층석탑(도 유형문화재 제60호)을 보고 내려왔다. 옛적 사명(寺名)이 '봉복사(鳳福寺)'였

음을 볼 때 현재 이곳에 있는 신대리 삼층석탑 주위가 원래의 봉복사 사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마지막 행선지인 '망향의 동산'에 있는 갑천면 증금리 삼층석탑(도 유형문화재 제 19호)으로 출발했다.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탑은 횡성댐 건설로 증금리가 수몰되어 망향의 동산으로 이전되어 보존되고 있었다. 두 개의 탑이 사이좋게 마주보고 서 있었다. 박물관 안에는 우리 조상들의 손때묻은 고가구 및 농기구를 비롯하여 증금리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수몰로 인해 떠난 사람들의 고향 '망향의 동산', 난 언제나 볼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부모님계신 고향이 있어 좋다.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되어 우리들의 답사도 끝나가고 있었다. 다 돌아보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지만, 나는 이번 답사로 우리가 사는 횡성에 이렇게 많은 유적지가 있다는 것이 놀랍고, 너무 우리 향토 문화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한편으로 자랑스러웠다. 이제 누가 물어도 난 자랑스럽게 애국의 고장 횡성, 우리 횡성의 향토 문화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조상들의 애국 애족의 정신을 이어받아 횡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이 아름답고 찬란한 문화재를 잘 보호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그리고 이런 산 교육의 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 깨닫게 하시고, 향토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문화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V. 문예백일장 입선작품

## **향토문화행사**

■ 제15회 태풍문화제

- 초 등 부
- 중 등 부

■ 제13회 태기문화제

- 초 등 부
- 중 등 부

■ 이연승시비건립

2주년기념 학생백일장

- 동시부문
- 산문부문

## IMF와 우리집

안 지 아 (서원초등학교 6학년)

우리집은 5식구의 대가족이다. 할아버지, 아빠, 엄마, 나, 동생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다. 그전까지만 하여도 어느 가정 부럽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렇지 않아지고 있다. 그건 I.M.F.때문이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넉넉했던 우리집 살림이 조금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집만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전보다 어려워진 우리 살림이 나는 그 누구의 가정보다 더 어려워진 것처럼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아빠의 하나뿐인 플라스틱 재생 기술은 아빠의 직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같다. 우리는 경기도 김포에서 잘 나가는 플라스틱 재생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2년전쯤 횡성이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다. 아빠의 기술은 점점 쓸모가 없어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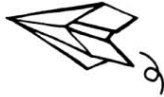
그런데 몇 개월전 아주 좋은 계약이 들어왔다. 바로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말이다. 아빠와 우리집 식구들은 정말 좋아하였다. 아빠가 일을 시작한지 몇주뒤 나쁜 소식이 우리 가족에게 들려 왔다. 아빠께서 일하시는 공장이 부도가 난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기고 난뒤 아빠는 할 수 없이 고물장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수입은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주위의 이웃분들의 도움으로 여러번 내다 팔 수 있게 되었다.

I.M.F.시대를 맞아 우리 아빠의 고통은 거의 우리 가족의 시련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엄마의 절약성이 더 높아지고, 갖고 싶은것 많은 6살난 내 동생은 사 달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 가슴 아픈것은 어쩌다 한번 사달라고 조르는 동생에게 사주지 못하는 아빠, 엄마의 마음일 것이다.

우리집의 사정을 더욱 알아 주지 못 하는 것이 단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할아버지의 악화되고 있는 병이다. 우리 할아버지에게는 치질이란 병이 있다. 이 병이 I.M.F.의 우리 가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이다. 할아버지께서는 일을 많이 하시는 편이다. 우리집에는 12마리의 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많이 하시고 피곤하실때마다 이 병이 생겨난다.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지 못하고 입에 거품을 무신 채로 몇십분을 계실 때도 있다. 아빠는 할아버지께서 아프시기 때문에 돈 걱정이 앞서신다고 많이 말씀하신다.

우리 가족은 I.M.F. 경제위기를 맞아 언제부터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매일 안타까운 생각을 하곤 한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우리 나라도 I.M.F.를 빨리 벗고 일어나 우리 가족도, 우리집도 그전과 같이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의 바램이 몇일 안가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쯤 이런 생각을 가지고 I.M.F.를 이겨내기 위하여 열심히 생활한다.



## 가을하늘은 파아란 세상

정 하 안 (횡성초등학교 5학년)

가을하늘은  
파아란 바다

돛단배 구름 떠다니고  
예쁜 새들 헤엄치고

가을하늘은  
파아란 도화지

깡총깡총 토끼 그리고  
어흥어흥 호랑이 그리고

가을하늘은  
파아란 목장

하얀 양떼 뛰어다니고  
얼룩젓소 풀 뜯어 먹고

가을하늘은  
파아란 내마음

꿈을 그리고  
생각을 키우고

가을하늘은  
파아란 세상

## 가을 하늘

안 윤 정 (봉덕초등학교 5학년)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밖으로 나가 떨어진 밤을 주워서 큰바구니에 담아 놓고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와보니 아빠께서는 밤나무에 올라가셔서 긴나무장대로 밤송이가 많이 달린 나뭇가지를 툭툭 치시자 밤송이가 툭툭 떨어지고 밤 여러톨도 뚜두둑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밤송이는 녹색이었지만 속은 꼭 찬 갈색 밤톨이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초록색 밤송이와 갈색 밤송이를 열심히 까다보니 이마에 흐르던 땀은 시원한 바람때문에 마르고 하늘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빠는

“잘까네. 그런데 윤정이 이마에 땀이 흐르네. 힘들니?”라고 하시며 아빠는 밤한톨 두톨씩 줍어 담았습니다. 아빠께서도 가을 하늘을 보시더니 “오늘은 참 맑네 오늘 따기를 잘했군” 하시면서 집개로 깎밤송이 껍질을 자루에 줍어 담았습니다. 오빠는 밤을 까면서 큰 밤톨을 볼때마다 “와 큰 밤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또 작은 밤톨과 벌레 먹은 밤톨을 볼때마다 “애개개 겨우 요만해 치 벌레먹었잖아”

라고 하며 확확 버리곤 했답니다. 갑자기 오빠가 하늘을 보자마자 “아빠 오늘은 비않은데요? 하늘이 파래요”

라고 아빠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응 오늘따라 하늘이 파랗고 바람도 조금씩 부네 오늘 벼베는 사람은 힘 안들겠는데 “

라고 하시면서 다른쪽 있는 밤나무를 긴 나무장대로 툭툭쳐서 아까처럼 밤송이와 밤톨을 떨어 뜨리셨습니다.

이때 오빠 등에 밤송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오빠가 얼른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엄마 저 이거 밤송이가 등에 떨어져서 찢렸는데 오돌도돌 돋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이때 하늘을 봤는데 저녁놀 때문에 산뒤에는 해님이 숨어 있고 하늘은 부끄러운듯이 붉고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아빠도 하늘을 보시면서

“오! 멋진데 태근아 얼른 나와서 하늘 좀 봐”

라고 하자 오빠는 얼른 뛰어나와서 저녁 노을을 보자 크게 감탄하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그 감탄소리에 그치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웬지 모든 가족이 저녁 노을을 보면서 감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도 가을 하늘을 그리고 가을 저녁 노을을 보면서 가을 하늘은 어느때의 하늘보다 멋지고 아름답고... 가을 하늘이 이렇게 멋진지 처음 느꼈습니다.





## 아버지의 얼굴

박 호 익 (홍성중학교 3학년)

“땡가라 땡가라 땡땡 땡땡 띠리리리~.”

수업의 끝을 알리는 소녀의 기도 멜로디가 나를 즐겁게 한다.

“이제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지루한 수업의 끝 내일 이것이 되풀이 되긴 하지만 일단 오늘, 학교에서의 일은 끝났다는 생각에 절로 신이난다. 담임 선생님의 종례가 끝나고 친구들과의 인사후에 집으로 간다.

끝날때의 기분과는 달리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는 울적했다. 이런 저런 생각, 요즈음 잡생각에 통 공부도 안되고 자꾸 내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기도 하다.

어느새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짐을 느낀다.

‘집에 가면 또 무엇을 할까?’

‘왜 이리 재미가 없지?’

‘힘들다.’

집에 들어가면서

“다녀왔습니다.”

경쾌하게 인사를 했다.

“응, 호익이 왔어?”

언제나 다정하게 들리는 가족들의 목소리. 가방을 내려 놓고 옷을 갈아 입었다.

잠깐의 쉬는 시간과 저녁시간. 이 시간이 끝나면 공부를 해야 한다. 내 나이 또래애들은 다 해야 하는 일이지만 나는 이리도 공부가 하기 싫은지 책상에 앉아도 땀 생각만

하게 되고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도 않는다.

한참 책상에 앉아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빠 오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인사를 드리려고 터벅터벅 걸어나왔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아버지는 인사하는 나를 보시고는 씨익 웃어 보이셨다.

아버지께서 씻고 쉬러 가신 후에 어머니께서 내 가슴 속 깊이 새겨질 진지한 말씀을 하셨다.

“호익아, 너 방금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니? 낮동안 내내 일하시고 얼마나 힘들시겠냐? 그리고도 짜증 안부리시는데…….”

난 정말 가끔씩 너의 아버지가 애처러워 보일 때가 많다.”

눈물이 울컥 쏟아져 나왔다. 나는 낮동안 편안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즈음 아버지는 가을의 땡볕 아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난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표현은 안하시지만 얼마나 힘이 드실까? 그런데 난 공부하기 싫다고 짜증만 내고…….’

‘그래 내가 힘들때 아버지의 얼굴을 생각하자 그 안에 깃든 나에게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 사랑의 눈물

홍 원 정 (우천중학교 2학년)

하루 해가 저물어 발걸음을 집으로 향한다. 그곳에는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농사일로 항상 바쁘셔서 난 거의 매일 아무도 없는 쓸쓸한 집엘 들어간다. 그리고 기다린다 언제쯤이면 부모님이 들어 오실까 하면서…….

하루는 아버지가 술에 취하셔서 비틀거리시며 나를 반기셨다.

“우리 딸 왔구나.”

평소에도 술을 좋아하는 하지만 또 자주 드셔서 종종 취한 모습을 보기는 하지만 그 날은 아버지의 모습이 왠지 더욱 초라해 보였다. 아버지의 어깨 위에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커다란 힘이 억누르고 있는 듯했다.

“아빠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어휴 냄새가 진동을 하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날 안아 주셨다. 평소 너무 딱딱하고 애정 표현도 잘 하지 않으시던 아버지의 갑작스런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

“우리 딸 아빠 무릎에 한번 앉아 볼래?”

아버지의 품은 따뜻했다. 솜이불에 쌓여 있는 것 처럼 따뜻했다.

“원정아 공부 열심히 해.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아빠가 바라는 건 1등을 하는 것 보단 아빠나 엄마한테 최선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뿐이란다. 그리고 오빠랑 너랑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래.

사람은 건강이 최고야. 알았지? 오빠랑 약속할 수 있지?”

“아빠, 저 열심히 할래요. 이 다음에 커서 아빠랑 엄마랑 한달에 한번씩 여행시켜 드릴  
게요.”

아버지는 내 눈을 보시며 옅은 웃음을 지으셨다. 저녁을 차리시던 어머니도 말만으로도  
고맙다며 웃으셨다.

아버지의 품에서 일어나 방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난 눈물이 쏟아졌다.

방금 전까지 아버지와 웃으며 얘기 한 것들이 다시 생각났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  
건강하게 자라 달라는 말.

아버지는 힘드신 것이 분명했다. 갓은 농사 짓기가 싫으면 공부하라는 부모님의 말씀  
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너무 힘드시니까 그 고통을 우리 남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의 웃음뒤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이 보였다. I.M.F.라는 것 때  
문에 농자재값도 오르고 장대처럼 쏟아지던 비 때문에 농작물도 많이 망가지고…….  
항상 옆에서 지켜 보는 나 이기에 아버지가 왜 힘들어 하시는지 짐작 할 수 있었다. 이  
런 생각을 하니 자꾸만 눈물이 흘러 내렸다. 이젠 그만 울어야 한다고 입술을 깨물고  
진정을 해도 부모님의 얼굴이 아른거려 또 다시 얼굴을 이불에 묻었다.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마음 속으로 외쳐 보았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 정말 열심히 살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항상  
최고 보다는 최선을 결과 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하는 그런 딸 착한 딸이 될게요. 그러  
니까 절 지켜봐 주세요. 어른이 되면 아버지 얼굴에 있는 근심이랑 걱정이랑 다 쫓아내  
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사랑해요.’

아버지의 늙어만 가는 주름과 흰 머리카락을 생각하며 다시 올바른 사람이 될 거라고  
다짐했다.



## 보름달

최 윤 미 (둔내초등학교 6학년)

정월대보름의 밤하늘  
밝은 달빛이  
은 세상을 비춘다.

내 얼굴도  
노오란 보름달처럼  
은 세상을 밝게  
아름답게 비추고 싶다.

보름달의 미소는  
모든 사람들의 미소

검정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보름달처럼

검은 내 마음을  
밝게 비춰 줄 수 있는  
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밝은 달은  
내 마음을  
밝게 비춘다.

## 보름달

주 선 미 (성북초등학교 6학년)

소원을 비는 3월 2일 정월대보름날입니다. 보름달님과 함께있는 별님이 말하였어요.  
“보름달님 저도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쩔건지 말해 봐.”  
별은 나도 보름달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보름달은 안된다고 하였지만 별은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별들을 모아 금색 보름달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잘보일려고 진짜 보름달 옆에 다가가 사람들을 황당하게 해버리고 말았죠. 사실 보름달을 만들려면 이 세상의 모든 별들이 합쳐져야만 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어디다 소원을 빌어야하지 저 달은 뭐지.” 하고 말하는데 그때 한 아이가……. “엄마, 별들이 없어. 세상이 캄캄해.” 하며 마구 울었어요. 별은 그 소리를 듣고 참 미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달님을 찾아가 용서를 빈 후 별은 동지들을 제자리에 보내 주었어요. 별은 자기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보름달 옆에 왔어요. 그 어린이의 울음은 그쳤어요. 그 때 보름달이 말하였어요. “니가 그렇게 보름달이 되고 싶으면 소원을 빌어봐.” 별은 가슴속 깊이 말하였어요. ‘전 보름달이 되고 싶어요.’ 하며 소원을 말하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바로 바로 그건 별이 보름달로 들어가 더 환하게 비추어 주었던거예요. 그 날 밤 사람들은 한 명씩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아주 아주 간절하게……. 과연 그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사람들은 믿을거예요. 별님의 소원도 이루어졌으니까요. 보름달이 말해요. “소원을 빌어 보세요. 아주 바라고 있는 소원을…….” 하늘에서 별들에 행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별들이 보름달을 더욱 비추어 주고 있어요. 별님은 보름달에서 나와 말하였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꼭 이루어 질거예요.” 라고 하며 별님은 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기 위하여 여행을 떠났답니다.

## 보름달

이 문 섭 (정금초등학교 5학년)

어제가 대보름이었다. 나는 밤 11시 30분쯤 보름달을 보러 나갔다.

다른날과 달리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어서 밖이 더 잘 보였다.

환한 달빛을 맞으며 서 있으니 꼭 내가 영화속 한장면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 쌍안경 렌즈를 잘 닦은 뒤 가지고 나가 달을 보았다. 우주인 아저씨들이 지어 놓은 달의 바다, 산, 분화구가 한눈에 속속 들어 왔다. 그리고 나서 소원을 빌었다. 5학년 때에는 공부를 잘 하게 해달라는 것과 오늘 글짓기를 잘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달님이 소원을 들어줄까? 물론 들어주겠지 정중하게 부탁을 했으니까 말이다. 소원을 빌고 나니까 달님은 알았다는 듯이 더 환하게 비추어 주셨다. 보름달을 보고 나서 집으로 들어오니까 마음이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 지면서 글짓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아마 달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 주신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때와는 달리 생각이 잘 떠오르고 별로 걱정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나에게 이상한 점이 느껴졌다. 그렇게 소원을 빌고도 미신이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미신이 아니라는 것만 알게 하려고 일부러 들어 주신 것이 아닐까?하고 말이다. 그리고 매년 소원을 빌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달을 보면서 지금 마음이 복잡한 부모님께서 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시골에 와서 맑은 하늘 아래에서 보름달을 보는 것이 작은 행복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제는 보름달을 보았으니까 여름에 마당에서 별을 실컷 감상 할 수 있다.

너무너무 좋겠다.

## 나 살던 고향

이 미 애 (청일중학교 3학년)

뿌연 연기속에  
한번의 재채기는  
나 살던 고향의 향수를  
더욱 그림게 하였고,  
누가 크나 키재기하듯  
우뚝 솟기만 했던 나무와  
실새없이 흐르던 냇물은  
오늘도 잘 있는지 궁금하다.

발전속에 파묻혀지고 있는  
나 살던 고향의 내가 만든 자취는  
아버지와 정성껏 가꾼 소나무  
이제 그릇터 뿐이 남지 않았지만

이쪽 저쪽으로 부딪기며  
'빨리 빨리'  
외치는 도시환경속에  
찌들고 있는 나를

모든 것을 재우고  
아버지와 어머니 기다리시는  
그 곳  
나 살던 고향으로 갈련다.



## 고향의 보물

도 이 화 (우천중학교 3학년)

나의 고향에는 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

슬플때 괴로울때 묻어 놓은  
저 민들레 홀씨속의 눈물과

기쁠때 즐거울 때 감춰놓은  
저 단구름뒤의  
웃음과

많은 친구들과의 우정을  
보관해둔 저 시냇물속에

나의 어린시절 꿈을  
물려주었던 작은새의 입속에

이 모든 고향의 옛 추억이  
나의 보물들이다.

그래서  
나의 지난날의 추억이  
그리워 질때면  
이 고향에 다시와  
찾아보고 나의 보물들을  
느껴볼 것이다.

나의 아름다운 고향  
내 고향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  
자라온 이 곳이다.

## 부끄럼쟁이 봄비

권 용 환 (성남초등학교 4학년)

5월의 봄비는  
부끄럼쟁이.

우리가 잠든새  
사알짝 내리고,

세상을  
거울처럼 빛나도록  
뒹아놓네.

5월의 봄비는  
부끄럼쟁이

세상이 다시  
왁자지껄 해지면

자기가 한 일  
부끄러워  
사라진다.

5월의 봄비는  
세상에서 제일가는  
부끄럼쟁이.

## 5월이 다가올때

서 주 희 (성북초등학교 6학년)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  
분홍빛 꽃잎에  
살포시 내려 앉을때

해맑은 어린아이가  
희망의 앞길로  
들판에 나발을 옮길때

내가 먹고 살던  
가족들의 사랑이  
더 많이 다가올때

내 귀에 울리던  
사람들의 속사감이  
끊이지 않을때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풍선이  
하늘 높이 다다를때

알록 달록 어여쁜 꽃들이  
방긋 방긋 웃음 띤 우리들이  
얼굴을 내밀때

바쁜 사생활속의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가족의 사랑이 떠오를때

학교 등교길에  
땅에 떨어져 있는  
꽃잎을 바라볼때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 내 가족에게서  
사랑의 마음이 전해질 때

나는 진정으로  
내 가슴속 깊이  
봄 그리고 5월이란걸

사랑이 가득하고  
따스한 봄기운이  
왔다는 것을…….

## 꽃이 아름다운 이유

신 현 태 (서원초등학교 6학년)

햇빛처럼 밝은 어린이 마음  
달 처럼 맑은 어린이 마음  
그 마음 만큼이나 아름다운  
꽃의 마음

한들한들 바람에 몸을 실어  
초롱초롱 새 하얀 마음으로  
부드러운 땅 속에 뿌리를  
내린다.

촉촉한 빗방울이 잠자던 씨앗을  
깨우면 찬란한 햇빛의 빛으로  
솟아 오르는 꽃  
강하게 느껴지는 생명력

이제는 벌과 나비의 친구가  
되어있는 어여쁜 꽃 한송이

5월의 푸른 하늘처럼  
아름다운 지금의 생활 모습

## 하늘나라에 계신 이연승 선생님께

이 현 주 (청일초등학교 5학년)

'가게 주인이 거울속에 비친 하늘을 날마다 파랗게 닦아 놓으면 손님들은 파란 하늘속에 비친 얼굴을 보고 해가 담긴 거울을 사가겠지요.' 온 식구가 잘보는 문 앞에 걸어 두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생각에 잠길거예요. 예쁘게 단장하고 '나는 누구일까? 예뻐까? 미울까?' 고개를 가우똥 거리며 여러가지 표정을 지어 보기도 하겠지요. 지난해 선생님 추모 글짓기 대회에 아무 생각없이 참가하였다가 선생님 약력을 보고 선생님 글을 찾아 읽어 보았습니다. 선생님 글 속에 빠져들면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으로 가르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구요?', 선생님 동시집 '해를 파는 가게, 햇살이 사는 동네' 에는 맑고 밝은 아름다운 세상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을테니까요.

어제 어머니께 "엄마 나 내일 이연승 선생님 추모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게 되었어."하고 자랑하니 어머니께서 "오 우리 딸 장하구나" 하시며 "내가 너만할 때 외운 동시가 있는데 낭송해 보련" 말씀이 끝나자마자 "거울 가게에는 거울 수 만 큼....." 선생님의 동시를 한 행도 틀리지 않고 낭송하였습니다. 선생님 글 속에는 엄마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는 맑고 밝은 마음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지금 파란 하늘을 보며 선생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멍게 멍게 구름속에서 예쁜 글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집에 가서 엄마와 함께 선생님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글을 써서 거울 모퉁이에 붙여 놓고 식구들에게 자랑할거예요.

선생님 내년에도 다시 만나면 더 좋은 글을 써서 하늘 나라에 계신 선생님께 큰 소리로 들려 드릴게요. 내년에 다시 만날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 이연승 선생님께

최 서 영 (공근초등학교 6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공근초등학교 6학년 1반에 재학중인 최서영입니다.

오늘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일은 공산당을 잡는 일만이 아니고 이연승 선생님처럼 자기 맡은 일을 하고 어린이들을 위해 시를 짓거나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우리 나라를 위해 충성을 한다는 것이야.”라는 말씀에 귀가 쫑긋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나도 나라에 충성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근면에서 살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연승 선생님께서 출생을 하셨기때문입니다.

저는 이연승 선생님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를 파는 가게’와 ‘햇살이 사는 동네’ 등 여러 어린이의 동시 등을 지으셨으며, 강원 아동 문학상과 한정동 아동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연승 선생님의 충성함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황성 ‘어린이 글짓기 대회’라는 것을 주최하여 산문쓰는 동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연승 선생님! 하늘에 계셔서도 황성군의 보배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모든지 잘 될 수 있도록해주세요. 전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연승 선생님처럼 유명한 시인이 되겠다고……. 하지만 시인이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처럼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선생님! 이연승 선생님! 저도 훌륭한 시인이 되게해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늘에서 편안히 바라보세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안녕히 계세요.

## VI. 문화원 소식



### ■ '99 사업계획

- ▶ 지역사회교육사업
  - 전시회
  - 음악회
  - 문화예술제
- ▶ 향토문화교육사업
  - 문화교실운영
  - 문화유적지답사
- ▶ 향토문화보존전승
  - 태기문화제
  - 태풍문화제
  - 향토문화기록촬영
  - 전통민속예술경연출연
  - 한시집발간
- ▶ 애향활동전개사업
  - 애향지 "어사매" 발간
  - 문학지 발간
  - 향토인물선양백일장
  - 군민만세운동웅변대회
- ▶ 향토사료조사사업
  - 유적지발굴조사
  - 향토사료자료수집
  - 향토사료집발간
  - 향토사연구
- ▶ 기타특별사업
  - 푸른음악회



## ◆ '98년도 사업실적

사업명	기간	참석인원(부)	사업명	기간	참석인원(부)		
지역사회교육사업	전시회	6월~12월	1,500명	애향활동전개	제13회 어사매발간	11월	1,500부
	음악회	5/30, 12/7	950명		제5집 문학지발간	12월	500부
	문화예술제	10/19, 12/16~17	600명		백일장	5/20	150명
	문화교양강좌	12/19	60명		옹변대회	4/1	400명
문화교육	문화교실운영	년중	연3,416명	향토사료조사	향유적지발굴	5/4	20명
	문화유적순례	7.8.9.11월	200명		향토사료수집	년중	-
향토문화보존전승	제12회 태기문화제	3/12~13	1,500명	기타특별사업	제14집 향토사료발간	12월	1,500부
	제15회 태풍문화제	10/13~14	3,000명		향토사연구	년중	-
	향토문화기록촬영	년중	-		수재민위로 '98충년음악회	12/16	500명
	전통민속예술경연출연	6/19	30명				

### 지역사회교육사업

#### 전시회

본 문화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소양과 창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각종 전시회의 지원과 협력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의 열린공간 확대 실현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 횡성문화원 서예교실 수강생 작품전  
6/12 ~ 6/16
- 횡성 신협 서화전  
10/9 ~ 10/11
- 제15회 태풍문화제 김광수사진작가전  
10/12 ~ 10/18
- 강원사진영상회 사진전  
10/30 ~ 11/2

- 백함영상회 회원사진전  
11/13 ~ 11/16
- 횡성연목회 제6회 작품전  
12/4 ~ 12/6
- 제14회 그림샘 작품전  
12/18 ~ 12/20



## 음악회

청소년들에게 젊음을 건전하게 발산하고  
우정과 화합을 돈독히 하기위해 개최하고  
있는 "청소년건전가요제"와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군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송  
년음악회"가 인기연예인을 초청, 성황리  
에 개최하였다.

- 제2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5/30)
- 제4회 문화의밤(은나래합창단 12/7)
- 송년음악회 (12/16)



## 문화예술제 및 교양강좌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배경과 전통  
문화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해하고 참  
여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의 예술  
제행사 지원과 소외되기 쉬운 여성들의 사  
회참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문화교양강  
좌를 앞으로 더욱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향토문화교육사업

### 문화교실 운영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고 있는 주민참여  
로 사랑을 받고 있는 "향토문화교실" 운  
영이 군민의 정신문화를 신장시키고 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연히 느  
낄 수 있다. 본 문화원은 이에 만족치 않  
고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랑받  
을 수 있는 문화교실이 되도록 노력을 아  
끼지 않을 계획이다.

- 서예교실
- 생활외국어교실(일본어)
- 수묵화교실
- 사물놀이
- 음악교실



### 문화유적지 순례

물밀듯 밀려오는 외래문화속에 우리문화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문화유적지 순례가 관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여 관내문화 유적지를 4회순례하였으며 관외 문화유적지로는 경주시 일원 문화유적지의 문화유산들을 연구·관찰하였다.

- 관내 문화유적지순례 4회  
(7/16, 8/1, 11/5, 11/25)
- 관외유적지순례(9/29)  
경주시 일원 문화유적지



향토문화보존전승사업

### 문화제

형성의 대표적 문화축제인 "제15회 태풍문화제" 행사중 전통민속놀이(짚신삼기, 널뛰기, 새끼꼬기, 제기차기, 그네뛰기 등)와 각종 전시회 및 문화행사를 본 문화원이 주관하였고 전국 유일의 마을단위 문화제인 "제12회 태기문화제"를 위원회

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는등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전승 발전 시키는데 앞장서 노력했다.

- 제12회 태기문화제  
(3/12 ~ 3/13)
- 제15회 태풍문화제  
(10/13 ~ 10/14)
- 제3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양구 6/19)



## 애향활동전개사업

### 향토애향지발간 및 기념행사

우리고장이 배출한 아동문학가인 “故 이연승선생동시비건립1주년”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아동들에게 문학적 자질 향상 기회를 마련하고 애향심을 북돋아 주는 향토인물선양사업을 전개했다. 또한 “군민만세운동 학생웅변대회”를 개최하여 애국의 고장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고장 유일한 향토애향지인 “어사매 13호”에서는 황성의 민속문화와 연구문등을 집중 수록하여 차원높은 향토 지로써 군민의 기대와 자부심에 부응했다.

- “故 이연승선생동시비건립 1주년기념” 어린이 글짓기대회 (5/20)
- 군민만세운동기념 (4/1)
- 어사매 13호 발간('98. 11)
- 황성문학회 제5집발간 ('98. 12)



## 향토사료조사사업

### 향토사료집발간 및 발굴조사

우리고장 조상들의 생활양식과 바램이나 정서 그리고 상상력을 알아볼 수 있는 향토사료를 채록하고 정리한 “황성의 전설과 설화”를 발간하여 조상들의 생활경험과 의식, 가치관 등을 기록으로 보존,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한차원 높게 향상시켰다.

또한, 문화원 임원들과 향토사료 조사위원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태기산 산성지와 치악산 운곡 원천석 선생의 생활은거유적지 발굴사업은 선인의 생활발자취와 지명에 얽힌 사료를 기초발굴하였다.

이러한 유적지 발굴조사와 향토사료집 발간은 우리고장 삶의 원류를 찾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관심사업으로 본 문화원은 앞으로도 향토문화를 전승 보존시키는데 주도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태기산 산성지 발굴조사 (5/4)
- 운곡 원천석 선생 생활은거지 발굴조사 (11/19)
- 향토사료 제14집 발간('98. 12)



## 횡성문화원 임직원명단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장 명	직 장	자 택
원 장	심진황	횡성읍 읍하4리 380-6 섬강㉠1동 203호 (011-360-7841)	횡성문화원	343-2271	343-7841
부원장	진기범	횡성읍 읍상리 278-8	알고파서점	343-2687	343-3334
"	조경택	횡성읍 읍상2리 274	자영업	343-2742	343-2742
이 사	정재영	횡성읍 북천리 영진㉠A동 201호 (011-367-3618)	신대분교	345-5124	343-3336
"	우광수	횡성읍 북천리 태우㉠3동 501호 (011-9791-1446)	횡성중학교	343-2241	343-1446
"	이종호	횡성군 우천면 장금리 904-1	민속예술보존회	342-2647	342-2854
"	전인환	횡성읍 조곡리 433	의보공단 강릉시지부		343-7700
"	이석원	횡성읍 읍상1리 346 (011-361-3488)	횡성새마을금고	343-3526	343-3518
"	김광수	횡성읍 읍상리 284 (011-371-2618)	백우사장	343-2618	343-5100
"	민경철	횡성읍 북천리 태우㉠3동 308호 (016-378-8781)	청일초등학교	342-5553	343-8781
"	정두영	횡성읍 읍하리 299-6	서원사인쇄소	343-2404	343-0694
"	윤춘식	횡성읍 읍상1리 333	횡성감리교회	343-1286~8	343-3349
"	이일영	횡성읍 읍하1리 69	의류상업	343-0808	
"	유관종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017-338-2706)	사물놀이강사		342-2706
"	정병익	횡성읍 입석리 132	농업		343-2390
"	김상겸	횡성읍 마산리 451-3	농업		343-3514
"	오세민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108-9 (011-361-2633)	자영업	342-5888	342-1019
"	한상래	횡성읍 입석리 162-8	횡성군노인회	343-3553	343-2670
감 사	도회관	횡성읍 읍상2리 1반 (019-243-2376)	상업	343-2376	343-2964
"	전상국	횡성읍 입석리 65 (019-316-8181)	농업		343-2466
사무국장	홍성진	횡성읍 목계리 (011-362-3120)	횡성문화원	343-2271	343-3120
간 사	정호경	원주시 태장2동 두진백로㉠102-607호 (012-1381-3257)	횡성문화원	343-2271	748-3327

## 횡성문화원 회원명단

성명	주소	직업	자택	직장
고한석	횡성군 공근면 수백리 295		343-6336	
구본섭	횡성읍 읍하3리 251-54 동화화원	동화화원	343-2752	343-2752
권상철	횡성읍 읍하4리 274	춘천철물	343-3282	343-2824
권용환	횡성읍 읍하리 383		343-7135	
김광수	횡성읍 읍상리 284	백우사장	343-5100	343-2618
김상겸	횡성읍 마산리 451-3(말미)	농업	343-3514	
김운수	횡성군 공근면 학담2리 성골		342-2181	
김정웅	횡성읍 읍상리 315-8	김약국	343-2707	
김창식	횡성읍 읍하리 73-6	국도광고	343-4900	343-2100
김철호	횡성읍 북천리 영진④B동 101호	횡성군청	343-2689	
김현주	횡성군 우천면 상하가리	농업	342-6518	
김남준	횡성군 횡성읍 읍상2리	농업	343-3603	
김진혁	횡성군 우천면 문암리 55	농업	342-6019	
김동근	횡성군 횡성읍 내지리 217	농업	343-3959	
김순남	횡성군 둔내면 자포리	아이세상	342-6925	
이병오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467-2		343-6789	
김천수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493	농업	343-3434	
남진향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 409	유미양품점		342-2205
도회관	횡성읍 읍상2리 1반	회원	343-2964	
도광태	원주시 단계동 롯데③3동 504호	중고동문화사무국장	원주742-8229	343-0207
류봉만	횡성읍 읍상2리 542-3	자연산추어탕	343-4253	
민경철	횡성읍 북천리 태우③3동 308호	교사	343-8781	342-5553
이각구	횡성군 횡성읍 목계리 106		343-2071	
윤만복	횡성군 횡성읍 읍하3리 215-3	농업	343-2575	
박재향	횡성군 둔내면 마암2리	가사		343-6584
박정애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295	가사	343-7814	
박인평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57	한정농장	714-0088	342-2526
박태식	횡성읍 가담1리 468	농업	342-2609	
방규진	횡성읍 북천리 148 총무계	횡성읍사무소	343-9661	343-2482
심진황	횡성읍 읍하4리 380-6 삼강①1동 203호	횡성문화원	343-7841	343-2271
송인석	횡성군 둔내면 영랑리 539		343-1774	
신구선	횡성군 북천리 115-37		343-1350	

성명	주소	직업	자택	직장
양우환	횡성읍 읍하리 대동④101동 707호	횡성한의원	343-9526	343-7364
양중하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849-3	농업	342-2602	
우광수	횡성읍 북천 태우③3동 501호	교사	343-1446	343-2241
원종춘	횡성읍 읍하1리 110 한림서당	한림서당	343-3162	
유인상	횡성읍 읍하1리 115-11	횡성치과		343-8890
윤재택	횡성읍 읍하1리 115-1	형재건설	342-0009	343-3131
윤춘식	횡성읍 읍상1리 333	지역업	343-3349	
이석원	횡성읍 읍상1리 346	횡성새마을금고	343-3518	343-2833
이일영	횡성읍 읍하1리 69	크로커다일	343-0808	
이장우	횡성읍 읍하2리 36	횡성골재	343-2723	343-7618
이제구	횡성읍 읍하1리 308(군청앞)	화성컴퓨터학원	343-2434	343-1202
이종호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904-1	민속예술보존회	342-2854	342-2647
이철우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507	농업	342-2665	
이승호	원주시 흥업면 흥업2리 748-2		원주763-7386	
유병규	홍천군 남면 명동리		홍천432-4252	
유관종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342-2706	
안병화	횡성읍 읍상리 원흥④102-505		343-0641	343-6975
김광남	원주시 단구동 142-24 5/1	초등교사	원주763-4890	343-2311
임종홍	횡성읍 읍하4리 6번지	농업	343-2056	
최기섭	횡성군 우천면 상하가리 170	농업	342-6294	342-8923
신규영	횡성군 둔내면 자포1리		342-5889	
전석희	횡성군 둔내면 둔방1리	가사	342-1403	
양희자	횡성군 둔내면 자포리	태양미용	342-1884	342-1884
김형래	횡성군 둔내면 우용1리 365-12	사업	344-5500	0342-732-2124
윤국영	횡성군 둔내면 석문1리 168	학원운영		342-0127
김영선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0		342-1072	
이대선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280-1	농업	342-2405	
원종훈	횡성읍 읍하1리 67-1	지역업	343-7920	
양기호	원주시 명륜2동 현대2차⑤ 202동 1007		762-8328	
오세민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108-9	상업	342-1019	342-5888
전상국	횡성읍 입석리 65	회사원	343-2466	
전인택	횡성군 둔내면 자포1리 409	도의원	343-0601	
전인환	횡성읍 조곡리 433	의료보험조합	343-7700	

성명	주소	직업	주택	직장
정두영	횡성읍 읍하리 299-6	서원사인쇄소	343-0694	343-2404
정병익	횡성읍 입석리 132		343-2390	
정삼영	횡성읍 읍하3리 214-6		343-3130	
정재영	횡성읍 북천리 영진④A동 201호	교사	343-3336	345-5124
정우철	횡성읍 읍상리		343-2818	
정병유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342-3217	
정왕택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343-6494	
정계철	원주시 개운동 444-15		원주761-1063	
정인영	횡성읍 읍하리 읍하택지 550-3		344-1558	
조경택	횡성읍 읍상2리 274		343-2742	
조광식	횡성읍 청룡리		343-3074	
장태준	횡성군 서원면 석화3리		342-5077	
김용금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17	가사	342-6811	
박봉순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가사	344-0522	
조규선	홍천군 남면 유치2리 575	농업	홍천432-4802	432-8400
진기영	원주시 개운동 394-12		원주761-0346	
진기범	횡성읍 읍상리 278-8	알고파서점	343-3334	343-2687
채금순	횡성군 둔내면 자포1리 455-2	새마을둔내면부녀회	342-1245	
채희승	횡성읍 북천리 태우④1동 906	횡성서예학원	343-9060	342-6000
최혁순	횡성읍 북천리 중앙④3동 408	농협군지부	343-1019	343-2811
정미호	횡성군 둔내면 동산④A동 308	상업	342-0387	342-7892
한상국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82	농업	342-1516	
한상동	횡성읍 읍상2리 276-15		343-4019	
한상래	횡성읍 입석리 162-8	횡성군노인회	343-2670	343-3553
홍성익	횡성군 우천면 정금2리	농업	342-2671	
함기중	횡성읍 읍상3리 313-7		344-2543	
김관수	횡성군 공근면 수백리	농업	343-6821	
임종훈	횡성군 둔내면 자포2리 643	농업	342-1555	
김두선	횡성군 횡성읍 읍상4리 동원④ 209	건설업	343-2495	345-8504
고명규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511-16	상업	343-3337	345-1013
박동근	홍천군 남면 시동리	농업	432-4529	
김용진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농업	342-6135	



---

## 문화원 회원 임회안내

---

황성군 관내 성인 남·여 거주자로  
학력 및 직업등의 자격 제한없이 수시로  
누구나 임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회비 10,000원, 연회비 20,000원)

안 내 : 황성문화원 ☎ 343-2271

---

### 어 사 매 제14호

발 행 일 : 1999. 12.

발 행 처 : 황성문화원

발 행 인 : 심 진 황

편 집 : 황성문화원

기획·인쇄 : 누리기획

(비매품)

---

